

연구보고서

JILES 2020-03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실태조사

홍숙희·송재홍·김도영·양연숙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실태조사

책임연구자

홍 숙 희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전략기획부장

공동연구자

송 재 흥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교수

김 도 영 | 제주국제대학교 상담복지학과 교수

양 연 숙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팀장

발간사

우리는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교육현장에서는 AI융합교육, 애듀테크 등 많은 변화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2020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의 일상을 체험하였습니다. 제주지역 아동·청소년들은 기성세대가 겪어보지 못한 변화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세대는 세상의 변화에 맞설 수 있는 구심력을 갖춘 주체적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교육 관계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지역의 아동·청소년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다행히 근래 들어 지역공동체 교육체제의 일환인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에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업유예, 학교 부적응학생, 잠재적 학교 밖 학생 등 위기학생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교육불평등으로 인한 지역 내 아동·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학령기 교육지원에서 전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의 관점으로 아동·청소년기의 학습과 교육지원을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지역사회 유관 교육자원간의 연계와 총체적 학습 지원체제를 구축해 실효성 있는 지역의 교육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를 위해 도움을 주신 여러분과 연구진들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이 연구 결과가 바탕이 되어 우리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적 교육지원체제가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불확실성 시대에도 주체적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학습기반 조성, 이를 반영한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12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 정 옥

연구요약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우리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4차 산업혁명 도래와 AI융합교육, 에듀테크 전략 등이 교육현장에 빠른 속도로 자리매김 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교육 현장은 그 동안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였음. 학생들은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번갈아 진행되면서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일상을 보냄. 이러한 현상은 직업세계를 비롯한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됨. 이에 따라 제주지역 아동·청소년들이 불확실한 시대에 대응하여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려면 지역사회 교육지원체제의 전면적 혁신이 요구됨
- ‘제주지역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어떤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비단 학교교육 관계자만이 아닌 지역사회 모두의 것임. 또한 ‘학교 내 아동·청소년’ 이든 ‘학교 밖 아동·청소년’이든 구분 없이 자신이 살고 있는 생활공간 가까이에서 배움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학습동기를 부여받고, 배움을 지속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
- 우리사회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취약계층 자녀의 교육격차 해소에 관심을 둔 지원정책은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돌봄과 청소년방과후 활동 지원 사업과, 교육부의 본격적인 교육정책으로 2003년부터 시작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들 수 있음. 이와 같이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막고 교육적 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 해결방안으로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업유예, 학교 부적응학생, 잠재적 학교 밖 학생 등 위기학생 발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므로 여전히 등장하고 있는 교육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내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도 차이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무엇보다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의 유관 교육자원간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교육력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학습 지원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예견되는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성인기가 될 향후 20년 전후의 삶을 고려하여 현재 아동·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학령기 교육지원에서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아동·청소년기의 학습을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의 적용이 요구되고 있음. 더불어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평생에 걸친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학습력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향상을 위한 지원이 중요해짐
-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아동·청소년의 성장 지원 정책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재학생 대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학업유예, 학교 부적응 학생을 비롯한 학업중단 청소년 등 위기학생인 경우는 지역사회 관계기관들의 몫임에 주목하여,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을 위한 통합적 교육지원체제 구축을 모색함. 특히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전 생애에 걸친 삶을 조망하는 관점에서 변화된 사회현상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지원체제의 혁신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 이를 위해 제주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현황과 국내 및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의 교육지원 기관 이용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 요구를 조사하고, 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지원 현황 및 실태, 요구 사항을 조사하였음. 또한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 수혜자, 관련기관 관계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여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 효과성 제고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음. 이상의 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제주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 효과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 제주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실태 분석
- 국내 및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현황 분석

- 제주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 요구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제주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점 집단 면접(FGI) 조사
- 제주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제안

나. 연구 방법

- 문헌자료 수집 및 분석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관련 선행연구 분석
 - 국내·외 교육취약계층 교육지원 사례 및 정책 분석
- 설문조사
 - 대상 :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기관 2020년 기준 이용자(아동·청소년) 200명 및 관계자 100명, 총 300명을 계획하였고, 실제 아동·청소년 201명, 관계자 101명
 - 주요 조사 내용 : 아동·청소년 이용 교육 현황 및 교육적 상황, 교육 이용 애로 사항, 교육 내용 중 중요 정도, 교육 내용별 시급성,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도움 정도, 지역사회 기관 환경 여건, 가정에서의 교육 지원 정도, 교육방법의 적합성, 학교 외 교육 지원 요구 내용 정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온라인 학습 참여 확대에 따른 어려움 및 학력격차 해소 방안 등
- 전문가 FGI :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참여자, 지원 기관 관계자,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담당자 및 전문가, 아동·청소년 활동 지원 기관 관계자 등 3개 집단, 11명(총 3회)
- 연구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음

1단계	연구 설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방향 및 내용 구성 · 연구 착수 보고
2단계	자료 수집 및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및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사례 및 관련 정책 검토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관련 선행연구 검토

3단계	실태조사 실시 FGI 실시	↔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 지역기관 이용자 및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 교육취약계층 교육지원 관련 기관 이용 당사자 및 종사자, 학계 등 전문가 대상 초점집단면접 실시
4단계	자료 분석 및 종합 수렴	↔	· 수집된 자료 분석 및 기술 분석을 통한 정책과제 발굴 및 논의
5단계	분석·집필	↔	· 조사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집필

II.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실태

1.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특성

- 제주지역 학령인구인 아동·청소년은 2020년 기준 제주지역 114천명으로 전체 인구 67만 대비 17%를 차지함. 연령대별로 보면 6~11세 초등학교령 인구 42,000명(6.3%), 12~14세 중학교령 인구 21,000명(3.1%) 15~17세 고등학교령 인구 21,000명(3.1%), 18세~21세 대학학령 인구 31,000명(4.6%)임
- 2018년 기준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21,341명으로 이 중 19세 이하 수급자는 6,072명으로 전체 수급자 대비 28.5%를 차지함. 19세 이하 수급자와 연관성이 높은 30~49세 연령대 수급자 비율은 2011년도 4,519명(20.8%)으로 가장 높았다가 점점 감소하여 2018년도에는 3,112명(14.6%)으로 비율이 6% 정도 감소함. 제주지역 학령인구인 아동·청소년 114천명(2020년 기준) 대비 제주지역 19세 이하 수급권자는 6,072명(2018년 기준)으로 5.3%의 비중을 차지함
- 학업중단자는 2019년 기준 513명으로 전체 학생의 0.7%를 차지하고, 고등학생이 237명(1.2%)으로 초등(156명, 0.4%) 및 중학생(120명, 0.6%)보다 월등히 높음. 고등학생은 질병, 가사, 부적응에 의한 자퇴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함
- 다문화학생은 2020년 기준 2,259명으로 전체학생의 2.9%를 차지하고 초등학교 다문화 학생(1,837명, 4.5%)이 중·고등학생보다 많이 분포되어 있고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전국적으로 2018년 기준으로 학업중단율이 1.03%를 기록하고 있어 유의해야할 대상임

2.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지역 환경 및 실태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분야 지원은 학교에서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이 지원되며 주로 학교 내에서 학습 및 문화, 심리 관련 활동 등이 이루어짐.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보호시설 등 아동·청소년 대상 사회복지관련 기관에서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교육서비스는 보호와 양육 관련 활동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함. 한편 2017년부터 교육지원 전문서비스 기관인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도내 152개가 있으며 아동 대상은 지역아동센터가 65개소로 가장 많으며 전체의 50%를 차지함. 아동 대상 기관은 주로 돌봄과 보호,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상당수이며 아동학대 관련 기관도 분류되어 있음. 청소년 대상 기관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이 가장 많으며 청소년 관련 기관은 청소년활동과 상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련관, 지원센터 등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음
- 지역아동센터 이용 현황을 보면 제주지역은 2015년도 신고정원 1,984명 중 1,857명이 이용하여 신고인원 대비 93.6% 참여, 2016년도는 신고정원 대비 89.4%로 이용율이 다소 떨어졌으나 2019년말 기준 92.8%로 올라감. 제주지역 지역아동센터 수는 2015년 68개소에서 2016년 66개소, 2020년 현재 66개소임
- 사교육비 지출 현황을 보면 2019년 기준으로 300만원 이하 소득수준에 중학생 사교육비가 53.52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100만원 미만 소득수준에서는 고등학생 사교육비는 제로이며 중학생(29.96만원) 사교육비도 초등학생(43.07만원)보다 적은 수준으로 나타나, 소득수준 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매우 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Ⅲ. 국내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1.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법과 업무

- 국내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된 법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아동의 빈

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등 여러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주된 중앙 부처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임

2. 중앙부처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 중앙부처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의 드림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 교육부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와 꿈드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그리고 청소년쉼터임

3.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관련 업무 담당 조직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서귀포시 포함)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들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 지원 정책은 자기주도학습지원 센터가 중심이 되어 마중물(자기주도학습) 배움터를 만들어 취약계층 관련 기관 및 읍면지역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음. 또한 교육청과 협력하여 기초학습 부진 해소를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교육기관의 협력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음. 더불어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기관은 돌봄이 주 기능이지만, 학습적 요구와 필요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 지원 정책은 2020년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 지원 계획을 통해 정서위기 지원, 기초학력 향상, 취약계층(다문화·탈북·저소득) 교육복지 통합 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단위학교별 혼디거넌팀을 구성하고 교육복지실 기능 확대를 통해 위기학생을 발굴하여 학생 유형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취약계층 학생지원을 포함한 학생복지사업(저소득층 교육정보화지원,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민간위탁), 취약계층 우수인재 육성사업(꿈사다리 장학제도)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음
- 제주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긍정적인 면으로, 첫 번째는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있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돌봄과 더불어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두 번째는 소외 될 수 있는 특정 영역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도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임. 주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꿈드림(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과 가출청소년(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쉼터는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반면에 부족한 면은, 첫 번째, 교육지원 대상인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대부분 동일하다는 점임. 사업별로 이중 또는 중복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업대상이 대부분 동일함.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꿈드림과 가출청소년(가정 밖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쉼터 사업을 제외하고는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 아동을 우선 대상으로 함. 두 번째, 사업 내용이 유사성 및 중복성을 띄고 있음.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운영 부처만 다를 뿐 돌봄, 급식 제공,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학습 및 교육 지원 등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대상 또한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 내용과 지원 대상이 유사하다보니 각각의 사업이 차별성이 떨어짐. 세 번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취약계층 지원 관련 사업들이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을 다문화·탈북·저소득층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4. 정부·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시사점

- 종합해보면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 지원 정책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각각 추진함에 따라 이중 또는 중복 지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중간 매개기관이 필요함
 -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의 급격한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 증가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비한 교육콘텐츠 개발 및 적용, 일반화 보급을 위한 교육전문기관이 필요하며, 지자체-교육청-지역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공공성을 갖춘 아동·청소년 교육 전문기관이 요구됨
 - 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고른 학습성취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학업성취 미도달 학

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지역기관은 교육적 고민과 실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함

- 도청이 지원하는 지역사회기관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 지원정책들이 민·관 상호협력 형태를 띠고 있으며, 도교육청이 시행하는 교육복지사업은 ‘제주형 교육복지’사업을 통해 학교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연계·협력하여 교육복지 실현을 도모하고 있음. 한편 교육복지사업은 개별 학교(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별 운영형태 및 실태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학교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개별 학교 간의 조정, 개별 학교 컨설팅 등의 지원이 요구됨. 이를 위해 교육복지사업과 연계된 지역사회 허브센터의 설립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IV.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 지원 요구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가. 조사 설계 및 방법

- 조사 대상자는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기관 2020년 기준 이용자 (아동·청소년) 200명 및 관계자 100명, 총 300명을 계획하였고, 실제 아동·청소년 202명, 관계자 101명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됨
- 표집 방법은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기관 현황자료를 근거로 기관 유형,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비례할당 표집 하였음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표본 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pm 6.83\%p$ 이고,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기관 관계자의 표본 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pm 5.67\%p$ 임
- 본 연구의 설문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2020년 10월 29일~11월 15일 사이에 전문 조사업체를 통해서 수행되었음

나. 조사 내용

- 설문지는 김정애 외(2014), 이해영 외(2011), 한만길 외(2008), 허미연 외(2012)의 조사 내용을 참고로 연구진이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구성함
- 본 연구를 위한 조사 내용은 <표 IV-1>과 같음(<부록 1> 참조)

<표 IV-1> 조사 내용

구분	조사내용	설문 번호	문항 수		
아 동 · 청 소 년 용	기본 정보	1~4	4		
	기관 이용 정보	5	2		
	사교육 참여 실태	· 학원 / · 개인(그룹)과외 / · 학습지 / · 유료 인터넷 강의 · 수강 여부, 수강 기간	6	2	
	교육 참여의 애로사항	· 공부하거나 다양한 교육 받으려 할 때의 애로사항	7	5	
	참여한 교육의 도움 정도	· 교육의 중요 정도(교육과정 분류: 5개)	8	5	
		· 교육의 우선 순위(교육과정 분류: 5개)	9	5	
		· 교육의 도움 정도(교육과정 분류: 5개)	10	5	
	지역기관 교육 여건	· 지역기관 교육환경(공간, 교구, 냉난방, 도서 등)	11	6	
	가정교육 실태	· 가정 내 교육 실태 (학습관리, 학습지도, 문화예술활동 유무, 온라인 학습 환경)	12	4	
	적합한 교육 방법	· 교육방법(7분류)	13	7	
	지역사회 교육요구	· 지역사회 교육 개선 사항 (교육 요구 제안 제도, 학습공간, 새로운 교육과정, 무료 교육 확대, 스스로 학습 여건)	14	5	
	온라인 학습 참여 확대의 어려움	· 온라인 학습 참여방법의 불편, 온라인 학습환경의 불충 분, 집중 및 이해력 부족	15	3	
	관 계 자 용	소속 기관 정보	· 기관 유형, 소재지, 기관 이용대상자	1~3	4
		소속 기관 역할	· 기관 주요 역할(5분류)	4	5 (우선순위)
기관의 교육활동 비중		· 기관의 교육활동 비중	5	우선순위	
기관 이용 아동청소년의 교육 실태		· 기관 이용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상황(6분류)	6	5	
지역기관 교육실태		· 교육 중요 정도(교육과정 분류: 5개)	7	5	
		· 교육 우선 순위(교육과정 분류: 5개)	8	5	
지역기관 교육 여건		· 지역기관 교육환경(공간, 교구, 냉난방, 도서 등)	9	6	
적합한 교육 방법		· 교육방법(7분류)	10	7	
교육 운영 여건		·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애로사항 (정보, 기획, 강사수급, 학습공간, 예산, 노트북 등 교육 자재)	11	6	
학력격차 해소 방안		· 학력격차 해소 노력 방법 (학교와 지역사회 지원, 교육기회 제공확대, 온라인 학습 지원, 학습 조력사 양성·지원, 학습코칭 및 컨설팅 지원)	12	5	
지역사회에의 요구사항		· 아동청소년의 교육의 질 높이기 위한 개선 사항 (전문교육기관, 제안 제도, 학습공간, 협업체제, 종사자 연 수, 교구 지원, 도외 교육 지원)	13	6	
응답자 일반적 사항		· 성별, 연령, 학력, 현 업무의 근무경력	14~17	4	

다. 설문조사 대상자 특성

□ 아동·청소년 응답자

- 아동·청소년 응답자는 총 202명이며, 여자청소년이 54.7%(110명) 남자 청소년이 45.2%(91명)임. 연령대별로는 ‘12세 이상 ~ 13세 미만’이 32.8%로 가장 비중이 높음
- 학교 재학 상황은 초등학교 재학중인 청소년이 전체의 57.2%로 가장 많음
- 거주가족은 ‘부모가 있는 가정’이 전체의 60.0%로 가장 많음. ‘한부모 가정’이 전체의 30%로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 현재 이용하고 있는 지역사회기관은 ‘지역아동센터’가 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11.4%로 다음 순으로 나타남

□ 아동·청소년 교육지원기관 관계자 응답자

- 아동·청소년 교육지원기관 관계자 응답자는 총 101명이며, 여성 80.2%(81명) 남성 19.8%(20명)임. 연령대별로는 ‘50세 이상 ~ 59세 미만’이 31.7%로 가장 많음
- 학력은 ‘대졸 이상’이 전체의 95.0%로 가장 많음
- 근무기간은 ‘5년 미만’이 전체의 36.6%로 가장 많음. ‘10년이상~ 1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이 각각 27.7%, 24.3% 순으로 비슷한 비중을 나타냄
- 이용대상자는 ‘초등학생’ 39.3%, ‘중학생’ 32.7%, ‘고등학생’ 14.2% 순으로 나타남
- 직업 유무에서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51.1%임
- 소속기관은 ‘지역아동센터’가 67.3%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함.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11.9%로 다음 순으로 나타남
- 소속기관 소재지를 살펴보면, ‘제주시 동지역’이 4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다음으로 ‘서귀포 동지역’ 22.8%로 나타남. ‘제주시’ 지역 61.4%, ‘서귀포’ 지역 38.6%로 나타남

2. 조사 결과

가.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조사 결과

□ 학교교육 외에 받고 있는 교육(사교육) 참여 현황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이 학원, 개인과외, 학습지 구독 등에 대해 응답자 전체의 50.2%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학원에서 가장 많이 수강하는 과목은 수학(36.6%), 영어(29.6%)가 전체의 66%로 나타났고, 예체능 학원을 수강하는 아동·청소년은 전체의 21.1%로 나타남. 또 참여 기간은 주 5일 동안 매일 학원을 다니는 아동·청소년이 전체의 32.0%로 가장 많고, 1회당 이용시간은 1시간이상~2시간 이하로 수업을 받는 아동·청소년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3%로 나타남

□ 스스로 공부하기와 교육 참여시 애로사항

- ‘스스로 공부하거나 다양한 교육을 받으려고 할 때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 애로사항은 ‘학습지 등 교육 자료가 부족함’ 영역이 가장 어려움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음. 이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음’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학습에 대한 의지나 교육 여건이 부족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음.

□ 교육영역별 중요성 및 영역별 교육 제공에 대한 시급성 인식 정도

- ‘교육영역별 중요성’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기관의 관계자들이 인식하는 교육의 중요성보다 아동·청소년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영역별 교육제공의 시급성’에서 아동·청소년들의 인식 정도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창의적 체험활동(미술, 독서, 음악, 만들기 등)’이 가장 시급한 교육이라고 인식함.

□ 학교 외 지역사회기관의 교육에 대한 도움 및 교육환경 만족도

- 지역사회기관의 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4점으로 만족한다

는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어 대체로 적절한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
'지역사회 기관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임

□ 가정에서의 교육 지원 현황

- '가정의 교육 지원'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을 조금 넘는 응답을 하였고, 그 응답 중 '가족(부모님)이 나의 숙제 지도 및 학습 지도를 해줌' 영역은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족도를 보임. 이를 통해 지역사회기관의 교육환경이 아동·청소년들의 교육지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 교육방법에 대한 적합도

- '교육방법에 대한 적합정도'에 대해서는 '실습, 견학 등 참여를 통한 교육'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이어 '강사의 강의를 통한 교육', '토의와 질의응답을 통한 교육' 순으로 나타남. 특히, '인터넷, 책 등을 통한 혼자 하는 학습', '텔레비전, 라디오 등 대중 매체를 통한 교육 방법'은 조금 낮은 교육의 적합도를 나타냄.

□ 학교 외에서 필요한 교육을 편리하게 받기 위한 여건

- '교육을 편리하게 받기 위한 여건'에 대해서는 좋은 선생님들의 좋은 무료 교육과 새로운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급증한 비대면 방법 중심의 언컨택트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 교육 방법 모색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온라인 학습 참여 확대에 따른 어려움

- '온라인 학습 참여 확대에 따른 어려움'에 대하여는 '컴퓨터, 인터넷 통신 등 온라인 학습 환경이 충분하지 않음' 평균 3.66으로 가장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음. 온라인 수업의 확대에 관련 기반 시설의 보급 확대가 시급함을 알 수 있음. 이어 '온라인 학습 참여 방법이 불편함', '온라인 학습 과정 집중이 어렵고 이해가 잘 안됨' 순으로 나타남. 이와 같이 '온라인 학습 과정에 집중이 어렵고, 이해가 잘 안됨'의 문제보다 온라인 학습 환경의 불충분이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학습 환경이 좀 더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음

나. 아동·청소년 교육지원기관 관계자의 조사 결과

□ 기관의 역할

- 교육지원기관 관계자들 대상의 조사 결과, ‘소속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 1순위에서는 ‘방과후 돌봄(부모 대리적 보호자 역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건강한 문화 공간의 역할’ 10.9%, ‘정서 및 사회적 발달 지원’ 순으로 나타남. 2순위, 3순위에서는 ‘정서 및 사회성 발달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남. 교육 중심의 역할보다 돌봄과 문화 공간, 정서 및 사회성 발달 지원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기관이 운영 중인 교육활동 비중과 아동·청소년의 교육상황 정도

- 반면 ‘기관이 운영 중인 교육활동 비중’에 대하여는 ‘학습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정서지원’ 15.8%, ‘창의적 체험활동’, ‘문화예술활동’ 순으로 나타남. 그리고 ‘소속 기관 이용 아동·청소년의 교육상황 정도’를 살펴본 결과, 관계자들은 ‘학습동기가 약함’ 영역에서 교육상황이 가장 좋지 않다고 인지하고 있음. ‘학습동기가 약함’, ‘기초학습부진 등 학습 수준이 낮음’, ‘교육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력자(가족 등)가 없음’이 평균 3.01(1.05) 이상의 순으로 나타남

□ 기관 이용 아동·청소년의 교육 영역별 중요성 인식과 교육의 시급성 정도

- 한편, ‘아동·청소년의 교육 영역별 중요도’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관계자들이 ‘보통’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어서 관계자들은 ‘문화예술활동’, 뒤이어 ‘창의적 체험활동’, ‘정서지원’, ‘학습지도’ 순으로 낮게 나타남. 또 소속기관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시급성’ 정도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응답한 가운데, ‘정서지원’영역을 가장 시급한 것으로, 뒤이어 ‘진로교육’, ‘학습지도’ 순으로 교육의 시급성을 나타냄

□ 기관의 교육환경 만족도

- ‘소속 기관의 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관계자들이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환경 만족정도를 ‘보통’보다 낮은 ‘그렇지 않다’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냄. 또한 ‘냉·난방시설이 좋음’영역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지만, 실제로는 ‘보통’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임. 뒤이어 ‘아동·청소년의 학습지도 프로그램 운영

이 원활함’, ‘책상 의자 등 교육받을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있음’ 순으로 나타남

□ 기관의 교육방법에 대한 적합도

- ‘소속 기관의 아동·청소년대상 교육 방법에 대한 적합도’에서는 관계자들이 2.36점으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 관계자들은 ‘실습, 견학 등 참여를 통한 교육’ 영역, ‘강사의 강의를 통한 교육’, ‘소규모 동아리 모임을 통한 교육’ 순으로 나타남. 특히 사항은 ‘인터넷, 책 등을 통한 혼자 하는 학습’영역이 가장 낮은 교육의 적합도를 나타냄. 평균 2점이 되지 않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

- ‘교육프로그램 운영할 때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1.72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응답하였고, 응답 중 ‘학습공간이 부족하여 다양한 교육 운영이 어려움’영역에 대해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인식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애로사항에 대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학력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요구도

- ‘코로나 19로 인한 학력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요구도’에 대해서는 2.79점으로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요구도를 나타냄. ‘온라인 학습 콘텐츠 무료(저비용)이용 시스템 확대’영역을 제외한 4개 영역은 평균치와 거의 같은 수준을 나타냄. 관계자들은 ‘많은 학습 조력자(학습 도우미 등) 양성 및 지원 확대’, ‘무료(저비용) 학습 코칭 및 컨설팅 지원’ 등 2개의 영역이 가장 높은 요구 수준을 나타냄. 하지만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요구 수준을 나타냄

□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요사항

- ‘아동·청소년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보통’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필요성 수준을 나타냄. 이런 가운데 ‘공공 성격의 아동·청소년 교육 관련 전문기관 역할 강화가 필요’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남. 뒤이어 ‘행정동 단위 지역에 있는 다양한 공간을 학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협업체제 구축필요’, ‘교육 흐름에 맞는 필요한 교육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제도’와 ‘노트북, 드론 등

고비용 교구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지원시스템 필요' 순으로 응답하였고, '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관련 연수 필요'가 가장 낮게 나타남

V.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 지원 활성화 방안 모색

1. FGI 조사 개요

가. FGI 대상 및 기간

- 조사 대상자는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참여자, 지원 기관 관계자,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담당자 및 전문가, 아동·청소년 활동 지원 기관 관계자 등 3개 집단, 11명임
- 조사 대상의 특성 및 수집의견 영역에 따라 2020년 7월 2일에서 7월 3일 사이에 진행함

나. FGI 방법 및 내용

- 면접 방법은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3개의 대상별 특성에 따른 사전 질문지를 마련하고, Open Discussion을 활용하여 이루어졌음
- 각 초점 집단별로 심층 면담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질적 자료를 내용분석의 방법에 따라 분석함. 즉 수집된 의견을 정리하여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활성화와 관련 주요과제들에 대해 코딩(coding)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코딩된 내용을 면담 질문에 따라 상위 범주화한 후 이를 다시 하위범주로 구분함
- 본 연구를 위한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음

구 분	조사내용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참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에게 공부와 학교의 의미 · 청소년을 위한 지원기관에서 교육프로그램 특성 · 청소년 지원기관과 학교 교육의 차이 ·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와 장애요인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현황 및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관에서의 교육 지원 현황 및 과제 · 지원기관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특성 및 교육 여건 ·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와 과제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의 효과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 정책의 기본 특성 ·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 정책추진의 장애요인 ·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방향 ·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 정책의 성과와 발전 과제

2. FGI 조사 결과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인식 및 과제

- 한편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초점집단면접에서 나타난 아동·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은 공부를 진로, 즉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인식하며, 때로는 의지를 갖고 공부할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입시 경쟁 속에서 압박감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음
- 또한 획일화된 교육과정, 교사 편견, 따돌림 경험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생활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며 졸업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탈출을 기도하였음. 그리고 교육지원센터를 쉼터이자 충전소이고, 공작소, 사랑방 등으로 인식하고 있음
- 더불어 교육지원 프로그램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체험형 진로 프로그램,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취미활동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검정고시 이외에 심화된 학습 프로그램을 요구함. 이와 함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에게 교육지원센터 적응을 위한 오리엔테이션과 부모들의 이해가 필요함을 제기함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현황 및 과제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기관의 실무자들이 초점집단면접에서 제시한 의견은 공부를 삶 그 자체, 곧 기쁨과 행동을 나누는 시간이자 아동·청소년들의 꿈

과 희망을 키워가는 여정으로 바라보며, 교육의 기본 성격을 삶의 기본 소양으로서 자존감을 높이고 인성을 함양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학업 보충 및 학업 복귀를 돕는 제2의 학교이자 지속적인 돌봄과 보살핌을 제공하는 열린 공간으로 바라봄. 그래서 자기개발, 진로체험, 진로탐색 등 진로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자립 기반을 확충하고, 당사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참여와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을 함
- 또한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유연성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1:1 개별지도 프로그램의 강화와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생활 적응 프로그램, 그리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동시에 교육지원기관 실무자들은 교육과 복지 사이에서 자신들의 역할 행동에 대해서 개념적 혼란을 겪고 있으며, 수혜 대상의 연령 범위와 요구의 다양성,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교사 수급의 어려움, 한시적이고 체계성 없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체계, 왜곡된 학부모 인식 등을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주된 걸림돌로 인식함
- 또한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의 기초학력 부진이 검정고시와 같은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주된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중학교 졸업 이후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함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 및 과제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정책추진 기관의 담당 실무자들은 공부나 교육의 성격에 대해 아동·청소년들이 삶의 잣대를 세울 수 있게 인문학적 소양 함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주로 기초학습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전 방위적인 돌봄과 예산 및 장학금 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
- 또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체계적 지원과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학생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 대상의 범위에 대한 혼란, 쏟아지는 민원으로 인한 역량 한계, 돌봄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연대의 어려움,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과 경직성 등을 교육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주된 걸림

들로 인식하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 자립 시스템과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단기간 지원보다는 꾸준한 돌봄과 성장지원 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필요함

□ 제주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 한편 교육지원 정책추진 기관 담당 실무자들이 제기하는 바와 같이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의 기초학습기능 부진이 교과학습 및 진로 개발에 주된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그들이 경제적·구조적으로 취약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실직과 이직을 반복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
- 또한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몰려 있는 특성화고의 교육 지원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색다른 교육 환경에 대한 점검과 대책도 함께 수립되어야 함
- 아동·청소년기는 신체적·생리적·심리적·사회적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시기임. 인간은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성장과 발달이 진행된 결과로 존재하는데, 아동·청소년기는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성적 성숙과 여러 형태의 생리적 발달 양상이 촉진되는 시기이며, 무엇보다 인지발달과정을 통해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미래에 대한 생각과 사고체계가 형성됨
- 그러므로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겪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발생하는 경험의 차이와 학습 능력의 격차는 전 생애에 걸쳐 극복이 어려운 난제로 자리 잡게 됨.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출발점이 다름으로 인해 인생 전반에 걸친 삶의 질 격차를 낳게 되며, 사회적으로는 빈곤의 악순환이자 대물림 현상으로 이어짐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은 취약계층 부모를 둔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 내·외 어디에 속해 있던 학업성취도가 낮거나 정규교육활동에의 참여 기회가 제한된 아동·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전 생애에 걸친 삶을 조망하는 관점을 적용하여 기초학습역량을 강화하고, 심리적 안정을 통한 자아 정체감 형성, 자기개발과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통한 자립 준비, 사회 변화와 지역사회 이해와 참여 활동 등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제주지역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은 중앙부처별 다양한 사업 시행에 따라 돌봄과 교육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음. 학교와 지역사회기관에서 주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학업 유예 및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학습동기가 부족하여 학업 성취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교육 활동에의 참여 기회는 매우 제한적임. 그리고 차상위층을 포함한 중위층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에게도 역시 참여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그나마 제주도청에서 추진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면서 교육청 및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자유롭게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
- 그러므로 그 동안 제주에서 추진되어 온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성이 재정립되어야 함. 특히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학습력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주도적 성장을 통해 자아탄력성 회복을 지원하는 노력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지원 기관간의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아동·청소년의 돌봄과 교육이 통합 지원되는 촘촘한 그물망인 제주지역 교육안전망 구축이 요구됨
- 향후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은 단순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만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성격의 사업이라는 인식을 넘어서야 함. 제주의 아동·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가치관과 태도, 그리고 삶의 방식과 역량 갖추기 등에 대한 방향성 정립과 실천 활동이 전개되어야 함. 특히 이러한 내용을 담아내기 위한 교육지원체제의 혁신과 교육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함

VI. 논의 및 정책제언

1.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의 정책 방향

- 제주특별자치도가 향후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의 효과성 증진 및 활성화 정책 방향은 크게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1) 교육 격차 해소

를 위한 핵심 역량 증진, 2) 정체성과 자존감 형성을 위한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3) 통합적 성장 지원을 위한 혁신적 기반 조성, 4) 교육지원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제시됨

1)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역량 증진

- 제주지역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은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에서 돌봄과 교육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기 실시 중에 있음. 그러나 주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중심의 복지 지원에 초점에 맞춰져 있어 학습동기가 부족해 학습 성취도가 낮은 청소년을 비롯하여 중위층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은 참여가 어려운 여건임. 이에 사회·경제적 배경에 상관없이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희망하면 기초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핵심역량을 증진할 수 있어야 함. 이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로 인생의 출발점을 재설정할 수 있게 할 수 있음
- 그런 의미에서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단순한 복지적·교육적 서비스 차원이 아닌 제주사회의 미래 주역이 될 차세대들을 위한 교육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임

2)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정체성과 자존감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 아동·청소년 시기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변화를 겪는 시기로 교우관계 및 학교 생활에서의 부적응, 그리고 가족 간의 불화 및 갈등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 즉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와 범죄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함
- 그러므로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상처 회복과 치유, 그리고 관계 개선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제공이 요구됨. 이는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회복 탄력성 증진을 바탕으로 자아 정체성과 자존감 형성에 기여할 것임

3)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통합적 성장 지원을 위한 혁신적 기반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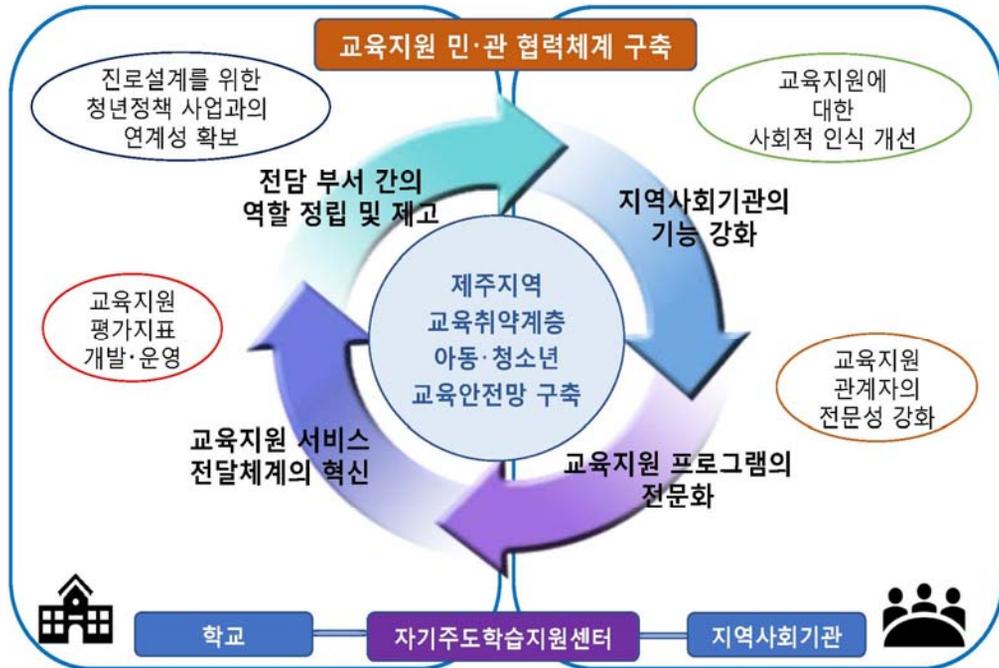
- 제주지역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은 학교와 지역사회기관 등에서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주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대상에 집중되어 있고, 돌봄과 보살핌에 중점을 두어 운영되고 있음. 제주지역은 2016년 이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면서 아동·청소년들이 교육청 및 학교,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자기주도학습컨설팅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와 지역사회기관간의 연계·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에 비해 실질적인 접근성 확보는 어려운 실정임.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정책의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지원 전달체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중심적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함. 이는 중앙 정부의 정책 사업 전달체계에 따라 교육과 돌봄 기능이 이원화가 발생하는 것임.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육취약계층 교육지원의 혁신적 기반(조례와 제도, 교육참여방법, 교육내용, 교육수준, 교육방법 등)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4)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제주지역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의해 학교와 지역사회기관, 즉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음. 물론 학교는 도교육청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지역사회기관의 교육지원 사업들은 제주특별자치도 혹은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직영이거나 운영 지원·위탁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그래서 학교와 지역사회기관간의 협력이 상시적이지 않거나 단절되어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그러므로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 활성화를 위한 도와 도교육청, 학교와 지역사회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동시에 지역사회기관(단체)들의 교육적 역량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지원체계의 구축과 상호간의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한 시점임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의 혁신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정기구와 공공기관, 아동·청소년의 돌봄과 교육지원 기관(단체)들의 연계·협력을 통한 교육안전망 구축이 요구됨



[그림 VI-1]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안전망 구축 모형

2.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과제

-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이 미래 제주사회의 주역으로서 삶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교육지원 정책의 새로운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표 VI-1>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과제(안)

구분	주요 과제	비고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관련 조례·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 향상과 맞벌이 부모 지원 접근 ·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등 지역사회 기관 이용 대상 확대위한 제도적 개선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 방향성 정립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상처 회복과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통합적 성장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 참여 확대를 위한 종합 정보 제공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지원의 확대	
	•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윤리 교육 강화	
	• 온라인 콘텐츠 및 학습 방법 활용 교육 강화	
	• 지역사회기관의 교육 시설 확충 및 학습 환경 조성	
교육지원 민·관협력을 통한 교육안전망 구축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전담 부서간 역할 정립 및 제고	
	• 실질적 교육지원 기관으로서 지역사회기관의 기능 강화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발굴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 교육취약계층 청소년의 진로설계를 위한 청년 정책 및 사업과의 연계성 확보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지원 관계자의 전문성 강화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전 생애에 걸친 삶을 조망하는 관점의 교육지원 평가지표 개발 및 운용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민관협력 체계 구축		

목차	
I. 서론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가. 연구의 필요성	3
나. 연구의 목적	5
2. 연구 내용 및 방법	6
가. 연구의 내용	6
나. 연구의 방법	7
다. 용어의 정의	9
II.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실태	13
1.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특성	13
가. 아동·청소년의 인구구성	13
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구성 및 특성	14
2.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지역 환경 및 실태	20
가.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의 지역 여건	20
3. 요약 및 시사점	24
III. 국내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29
1.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법과 업무	29
가.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법	29
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36
2. 중앙부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현황	37
가.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현황	37
나. 지역아동센터	40
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3

라. 꿈드림(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45
마. 청소년쉼터	46
3.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현황	47
가.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담당 조직	47
나. 제주특자치도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53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중심으로	
다. 제주특자치도교육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56
-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 지원 계획 중심으로	
4. 요약 및 시사점	59
가. 국내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요약 및 시사점	59
나. 정부·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시사점	61
IV.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 지원 요구 분석	67
1. 조사 개요	67
가. 조사 설계 및 방법	67
나. 조사 내용	67
다. 설문조사 대상자 특성	69
2. 조사 결과	72
가.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조사 결과	72
나. 아동·청소년 교육지원기관 관계자의 조사 결과	87
3. 요약 및 시사점	99
V.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 지원 활성화 방안 모색	109
1. FGI 조사 개요	109
가. FGI 대상 및 기간	109
나. FGI 방법 및 내용	110
2. FGI 조사 결과	111
가.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참여 현황	111

나.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현황 및 실태	116
다.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의 효과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124
3. 요약 및 시사점	132
가. 요약 및 과제	132
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34
VI. 논의 및 정책 제언	139
1. 요약 및 논의	139
2. 정책 제언	148
가.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의 정책 방향	148
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의 정책 과제	150
참고문헌	165
부록	167

표목차

<표 II-1> 학령인구 추이 13

<표 II-2> 연령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15

<표 II-3> 제주지역 학업중단자 현황 16

<표 II-4> 학업중단 사유 현황 17

<표 II-5> 다문화학생 현황 18

<표 II-6> 다문화학생 유형 19

<표 II-7>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 분야 지원사업 현황 21

<표 II-8> 제주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현황(2020.6월 기준) 22

<표 II-9> 지역아동센터 이용 현황 23

<표 II-10>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 현황 23

<표 III-1>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영역 및 프로그램 42

<표 III-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44

<표 III-3>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프로그램 45

<표 III-4> 청소년쉼터의 종류 및 기능 46

<표 III-5>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교육과정 54

<표 III-6>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방식 55

<표 III-7> 학생복지 사업 안내 58

<표 III-8>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법의 특징 59

<표 III-9>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의 특징 60

<표 IV-1> 조사 내용 68

<표 IV-2> 아동·청소년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69

<표 IV-3> 아동·청소년 교육지원기관 관계자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71

<표 IV-4> 응답자의 학교교육 외에 받고 있는 교육 참여 현황 72

<표 IV-5> 응답자의 학교교육 외에 받고 있는 교육 참여 기간 특성 74

<표 IV-6> 스스로 공부하기와 교육 참여시 애로사항 75

<표 IV-7> 교육 영역별 중요성 인식 정도 76

<표 IV-8> 영역별 교육 제공에 대한 시급성 인식 정도 77

〈표 IV-9〉 학교 외 지역사회기관의 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	78
〈표 IV-10〉 지역사회 기관의 교육환경 만족도	79
〈표 IV-11〉 가정에서의 교육 지원 현황	80
〈표 IV-12〉 교육방법에 대한 적합도	81
〈표 IV-13〉 학교 외에서 필요한 교육을 편리하게 받기 위한 여건	82
〈표 IV-14〉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온라인 학습 참여 확대에 따른 어려움	83
〈표 IV-15〉 스스로 공부하기와 교육참여시 애로사항	84
〈표 IV-16〉 코로나 19 관련 학습참여 확대에 따른 어려움	86
〈표 IV-17〉 기관의 역할	87
〈표 IV-18〉 소속 기관이 운영 중인 교육활동 비중	88
〈표 IV-19〉 소속 기관 이용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상황	88
〈표 IV-20〉 기관이용 아동 청소년의 교육 중요도	89
〈표 IV-21〉 기관이용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급한 교육 인식 정도	90
〈표 IV-22〉 기관의 교육환경 만족도	91
〈표 IV-23〉 기관의 교육방법 적합도	92
〈표 IV-24〉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	93
〈표 IV-25〉 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요구도	94
〈표 IV-26〉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요사항	95
〈표 IV-27〉 기관 이용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상황	97
〈표 IV-28〉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방법 적합성	98
〈표 V-1〉 관계자 심층 면담 대상 및 일정	109
〈표 V-2〉 조사 내용	110
〈표 VI-1〉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의 정책 과제(안)	164

그림목차

[그림 I-1] 연구 수행 절차	8
[그림 III-1] 드림스타트 추진체계	38
[그림 III-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전달체계	40
[그림 III-3] 제주특별자치도청 보건복지여성국 조직도	48
[그림 III-4] 제주특별자치도청 특별자치행정국 조직도	48
[그림 III-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도	52
[그림 III-6] 2020년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지원 추진체계	57
[그림 IV-1] 스스로 공부하기와 교육 참여시 애로사항	75
[그림 IV-2] 교육영역별 중요성 인식 정도	76
[그림 IV-3] 영역별 교육 제공에 대한 시급성 인식 정도	77
[그림 IV-4] 학교 외 지역사회기관의 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	78
[그림 IV-5] 지역사회 기관의 교육환경 만족도	79
[그림 IV-6] 가정에서의 교육 지원 현황	80
[그림 IV-7] 교육방법에 대한 적합도	81
[그림 IV-8] 학교 외에서 필요한 교육을 편리하게 받기 위한 여건	82
[그림 IV-9]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온라인 학습 참여 확대에 따른 어려움	83
[그림 IV-10] 소속 기관 이용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상황	89
[그림 IV-11] 기관 이용 아동·청소년의 교육 중요도	90
[그림 IV-12] 기관이용 아동 청소년을 위한 시급한 교육인식 정도	91
[그림 IV-13] 아동·청소년의 교육환경 만족도	92
[그림 IV-14] 기관의 교육방법 적합도	93
[그림 IV-15]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점	94
[그림 IV-16] 코로나 19로 인한 학력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요구	95
[그림 IV-17]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요사항	96
[그림 VI-1]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안전망 구축 모형	159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 불확실성 시대 대응 위한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체제 혁신 필요
-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4차 산업혁명 담론과 AI융합교육, 에듀테크 전략 등이 교육현장에 빠른 속도로 자리매김 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교육 현장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였음.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번갈아 진행되면서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일상을 보냄
- 더불어 정보통신 기술 등의 생명주기 단축, 직업세계를 비롯한 급격한 사회적 변화 등의 초래로 미래사회도 급격하게 변화될 것으로 예측됨. 이에 따라 제주지역 아동·청소년들이 불확실한 시대에 대응하여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 갖추기를 위한 지역사회의 교육지원체제의 전면적인 혁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지역에서 삶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 생태계 조성 필요
- 무엇보다 ‘제주지역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어떤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은 비단 학교교육 관계자만의 것은 아닐 것임. 강풍과 같은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변화에 맞설 수 있는 구심력을 갖춰 스스로 자신의 삶을 모색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주체적 인간으로 성장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학교 내 아동·청소년’이든 ‘학교 밖 아동·청소년’이든 구분 없이 자신이 살고 있는 생활공간 가까이에서 배움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학습동기를 부여받고, 배움을 지속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 격차사회나 위험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안으로 마을 공동체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김찬호, 2002; 구자인 외, 2010; 양병찬, 2014)과 함께 지역공동체 교육체제의 일환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이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을 전제로 하

여 지자체 단위의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음

□ 실질적 교육격차 해소 방안 모색 필요

- 우리사회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취약계층 자녀의 교육격차 해소에 관심을 둔 지원정책은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돌봄과 청소년방과후 활동 지원 성격으로 시작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이 있음
- 또 본격적인 교육정책은 2003년부터 시작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들 수 있음. 1997년 경제위기 이후 200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한 소득불평등과 빈곤률로 대표되는 계층 간의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고, 이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막고 교육적 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 해결방안으로 도입되었음
- 이후 2005년 이후 전국적인 ‘교육복지사업’으로 확대되어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지역 내 아동청소년에게 교육·문화·복지가 연계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이와 같이 ‘교육복지사업’이 계속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업유예, 학교 부적응학생, 잠재적 학교 밖 학생 등 위기 학생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므로 여전히 등장하고 있는 교육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내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 수준 차이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무엇보다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의 유관 교육자원간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 실효성 있는 학습 지원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임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 필요

- 오늘날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직업 소멸 등이 나타나고 있는 사회현상은 미래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예견하게 함.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성인기가 될 향후 20년 전후의 삶은 그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울 것임. 현재 아동·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학령기 교육지원에서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아동·청소년기의 학습을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이는 아동·청소년의 학습관과 학습방법의 제고,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불평등 현상을 극복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임. 지식기반 사회의 등장과 정보화의

가속화 현상으로 ‘학습력’ 차이가 곧 삶의 불평등으로 직결되어 나타나게 됨. 특히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학습력 차이는 평생에 걸친 ‘삶의 질’과 직결되어 빈곤의 악순환과 대물림으로 직결되는 문제임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성장은 학업성취와 높은 관련성이 있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특히 자신의 경험에 기반한 학습계획 수립과 자기 스스로의 계약이 매우 중요한 자기주도 학습과정은 자아탄력성의 회복과 함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여 적극적 성장을 기대하게 함. 그러므로 전 생애에 걸친 학습역량 발휘를 위해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이 요구됨

나.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전 생애에 걸친 삶을 조망하고, 변화된 사회현상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교육지원체제의 혁신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함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 현황과 요구를 분석하여 비대면 수업의 급증으로 인한 학습결손 정도를 확인하고, 기초학습역량 강화 등 실질적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기존 아동·청소년의 성장 지원 정책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재학생 대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학업유예, 학교 부적응 학생을 비롯한 학업중단 청소년 등 위기학생인 경우는 지역사회 관계기관들의 몫으로 책임이 부여됨. 이 같이 분리된 교육지원으로 인해 교육복지사업이 지속 전개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함. 이에 따라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을 위한 통합적 교육지원체제 구축을 모색하고자 함
- 본 연구의 결과는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 정책 실행의 성과를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아동·청소년의 통합적 성장지원을 통해 불확실성 시대에도 주체적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학습기반 조성의 방향과 역할을 제고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의 개발 및 효과적인 사업 운영 방안을 수립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내용

- 제주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실태 분석
- 제주지역에서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현황과 실태를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여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배경적 특성과 교육적 필요 전반을 파악하고, 관련 이슈 및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함
- 국내 및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분석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 정책의 환경과 시행과정 현황을 분석하고, 대내외 여건의 변화와 연계하여 누구나 교육적 성장 지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지원 체제 구축의 방향성을 검토함
- 제주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 인프라 및 지원 실태 현황 분석을 기초로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참여 수요 변화와 대응 여건을 분석함
- 제주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 요구 분석
- 제주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지원 실태 파악을 위하여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지원 현황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이용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에 대한 당사자의 교육 참여 현황 및 요구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을 통하여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함
- 제주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 활성화 방안
- 전문가 초점집단면접(FGI) 질문을 통해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의 의미와 참여 아동·청소년의 특성, 교육에 대한 요구 등 교육 운영의 기본 성격과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프로그램 운영의 주요 장애요인 등을 분석하여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 효과성 제고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
- 정책 대안 및 추진체계 구축 방안 제안
- 제주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실태분석, 교육지원 정책의 환경 및 현황 분석, 관계기관

참여 아동청소년의 요구와 관계자의 조사 결과, 그리고 교육지원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한 제주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통합적 성장지원 및 교육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함

나. 연구의 방법

□ 문헌자료 수집 및 분석

- 연구 주제와 관련한 포괄적인 선행연구 자료 수집 분석을 위해 국내외 연구보고서, 학술지, 정책자료, 법령자료, 일반서적, 인터넷 자료, 개별 기관 및 프로그램 관련 현황 자료 등 폭 넓은 범위로 문헌자료를 수집함
- 교육취약계층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 현황 및 추진체계 등과 관련된 국내 각종 문헌 및 보고서,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 관련 국내외 사례 및 문헌 조사를 실시함

□ 통계 분석

- 제주지역 통계보고서(제주특별자치도, 2019. 6.),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보고서(제주특별자치도, 2019),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20) 등을 분석하여 제주 아동청소년의 교육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함

□ 설문조사

- 제주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기관 관계자와 아동·청소년대상으로 교육지원 현황과 실태, 성장을 위한 필요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함
- 대상 :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기관 이용자(아동·청소년) 200명, 관계자 100명, 총 300명
- 주요 조사 내용 : 아동·청소년 이용 교육 현황 및 교육적 상황, 교육 이용 애로사항, 교육 내용 중 중요 정도, 교육 내용별 시급성,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도움 정도, 지역사회 기관 환경 여건, 가정에서의 교육 지원 정도, 교육방법의 적합성, 학교 외 교육 지원 요구 내용 정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온라인 학습 참여 확대에 따른 어려움 및 학력격차 해소 방안 등

□ 전문가 회의

-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 환경 및 교육지원 효과성 제고와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관계자 및 아동청소년 당사자 등 11명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집단 심층면담(Focus Group Interview)으로 개최하였음
- 심층면담시 사전에 준비한 질문지를 제시하여, 면담 참여 대상자들이 연구과제 전반에 대한 상황 파악을 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분석하여 자료화함

□ 분석 및 종합

- 수집된 자료 분석은 자료수집원이 문헌분석, 관계자 심층면담에 대해 각각 기술 분석 실시
- 교육지원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한 제주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통합적 성장지원 및 교육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함
- 기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통합적 성장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의 활성화 방안 및 효과적인 교육지원체계 구축 방안 탐색
-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헌검토-전문가 및 관계자의 초점집단면접 및 협의를 보완적 수단으로 적용하는 삼각측정법을 활용하여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보함
- 이상의 연구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음

1단계	연구 설계	⇨	· 연구 방향 및 내용 구성 · 연구 착수 보고
2단계	자료 수집 및 검토	⇨	· 국내 및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사례 및 관련 정책 검토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관련 선행연구 검토
3단계	실태조사 실시 FGI 실시	⇨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 지역기관 이용자 및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 교육취약계층 교육지원 관련 기관 이용 당사자 및 종사자, 학계 등 전문가 대상 초점집단면접 실시
4단계	자료 분석 및 종합 수렴	⇨	· 수집된 자료 분석 및 기술 분석을 통한 정책과제 발굴 및 논의
5단계	분석·집필	⇨	· 조사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집필

[그림 1 -1] 연구 수행 절차

다. 용어의 정의

□ 교육취약계층

-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이라 함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거나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기 어려운 계층으로 경제적, 정치적, 심리적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집단을 의미하며, 법률적 근거에서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개념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사용됨(사회복지용어 대백과사전)
- 취약계층의 범위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경제사회적 배제집단, 노동시장에서의 배제집단, 가시적인 특징을 보유한 취약계층, 정치적·종교적·경제적 이유로 인한 한시적인 취약계층 등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되기도 함(나영선, 2003; 이지혜 외, 2004). 대체로 저소득층, 저학력층, 중고령 취업자, 장기실업자, 영세기업 근로자, 장애인, 전과기록 보유자, 수용자,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근로자 등을 일컫기도 함
- 교육취약계층은 낮은 교육 훈련 수준과 숙련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 주변부로 내몰리는 잠재적으로 모든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음(이지혜 외, 2004). 대체로 학습 참여 기회가 부족하여 학습동기와 교육적 성취가 낮은 집단이라 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저학력 계층은 우리나라 성인 중에서 “중졸 이하의 학력을 소지하고 상대적으로 추가적인 교육 훈련의 요구가 있지만 기회 제한성, 재정적 요인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나영선, 2003)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므로 교육취약계층은 모든 취약집단을 포함하면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에의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음(이지혜 외, 2004)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은 교육성취도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2003년부터 시범 운영되어 주요 정책으로 자리 매김 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에서 정책 대상으로 삼았음
- 당시 교육성취도의 불평등 문제를 다루면서 콜맨보고서(The Coleman Report, 1966)로부터 학생의 동기가 학습에 중요하다는 통찰을 제공받고, 학교 뿐 아니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가정이 학생성취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함

-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은 취약계층 부모를 둔 아동·청소년이거나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에의 참여기회가 취약하고, 학습동기가 부족하여 학업 성취도가 낮은 아동·청소년 모두를 지칭하여 사용하고자 함. 즉, 학교 내에 속해 있으나 학습동기가 부족하여 학업 성취도가 낮거나 학교 밖에 있어 정규교육 활동에의 참여 기회가 제한된 아동·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함

II.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실태

1.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특성
2.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지역 환경 및 실태

II.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실태

1.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특성

가. 아동·청소년의 인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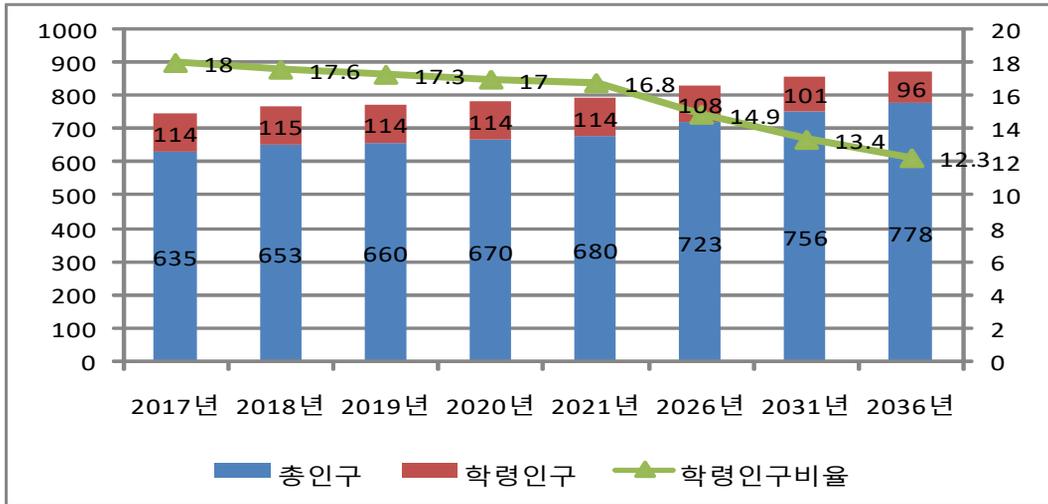
□ 아동·청소년 인구 추이

- 2020년 제주지역 학령인구는 11만 4천명으로 전체 인구 67만 대비 17%를 차지함
- 연령대별로 보면 6~11세 초등학교령 인구 4만2천명(6.3%), 12~14세 중학교령 인구 2만1천명(3.1%) 15~17세 고등학교령 인구 2만1천명(3.1%), 18세~21세 대학학령 인구 3만1천명(4.6%)임
- 학령인구 추이를 보면 2026년도 총인구 72만3천명 대비 10만8천명으로 14.9%, 2031년 총 인구 75만 6천명 대비 10만 1천명으로 13.4%, 2036년 총 인구 77만8천명 대비 9만6천명으로 12.3%로 계속 감소 추이가 전망됨

〈표 II-1〉 학령인구 추이

(단위: 천명, %)

연도	총인구 (천명)	학령인구 (6~21세)		초등학교 (6~11세)		중학교 (12~14세)		고등학교 (15~17세)		대학교 (18~21세)	
		천명	%	천명	%	천명	%	천명	%	천명	%
2017	635	114	18.0	40	6.3	20	3.1	24	3.8	30	4.7
2018	653	115	17.6	42	6.4	20	3.1	22	3.4	31	4.7
2019	660	114	17.3	42	6.4	20	3.0	21	3.2	31	4.7
2020	670	114	17.0	42	6.3	21	3.1	20	3.0	31	4.6
2021	680	114	16.8	43	6.3	21	3.1	20	2.9	30	4.4
2026	723	108	14.9	38	5.3	22	3.0	21	2.9	26	3.6
2031	756	101	13.4	32	4.2	18	2.4	22	2.9	29	3.8
2036	778	96	12.3	37	4.8	16	2.1	16	2.1	26	3.3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역통계(보고서) 2019.6.

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구성 및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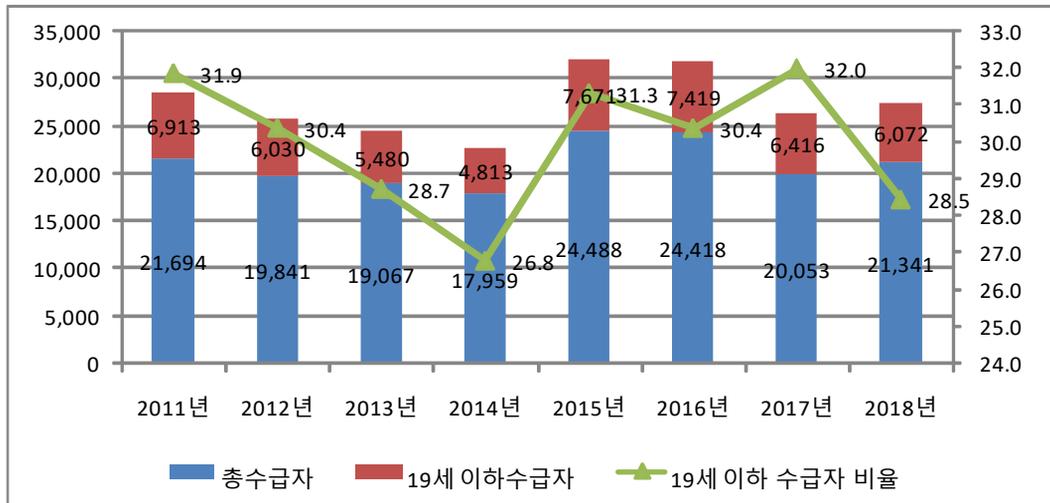
□ 연령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2018년 기준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21,341명으로 이 중 19세 이하 수급자는 6,072명으로 전체 수급자 대비 28.5%를 차지함
- 2011~2018년까지 19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을 보면 2011~2012년도 31% 대에서 2013~2014년도 27%대로 감소, 2015~2017년 30%대 상승, 2018년도 28.8%로 감소 추세로 해마다 증감이 반복되는 현상을 보임
- 19세 이하 수급자와 연관성이 높은 30~49세 연령대 수급자 비율은 2011년도 4,519명(20.8%)으로 가장 높았다가 점점 감소하여 2018년도에는 3,112명(14.6%)으로 비율이 6% 정도 감소함
- 반면, 50~69세 사이 수급자 비율은 2011년 21.6%로 가장 낮은 비율에서 점점 증가하여 2018년에는 28.5%까지 상승하여 7% 정도 상승함

〈표 II-2〉 연령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단위: 명, %)

연도	총 수급자	19세 이하		20~29세		30~49세		50~69세		70세 이상	
		명	%	명	%	명	%	명	%	명	%
2011	21,694	6,913	31.9	1,318	6.1	4,519	20.8	4,682	21.6	4,262	19.6
2012	19,841	6,030	30.4	1,249	6.3	3,920	19.8	4,485	22.6	4,157	21.0
2013	19,067	5,480	28.7	1,270	6.7	3,663	19.2	4,595	24.1	4,059	21.3
2014	17,959	4,813	26.8	1,282	7.1	3,348	18.6	4,657	25.9	3,895	21.7
2015	24,488	7,671	31.3	1,450	5.9	3,686	15.1	5,381	22.0	4,300	17.6
2016	24,418	7,419	30.4	1,350	5.5	3,233	13.2	5,330	21.8	4,086	16.7
2017	20,053	6,416	32.0	1,255	6.3	2,963	14.8	5,373	26.8	4,046	20.2
2018	21,341	6,072	28.5	1,280	6.0	3,112	14.6	6,092	28.5	4,785	22.4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9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보고서 2019.12.

□ 학업중단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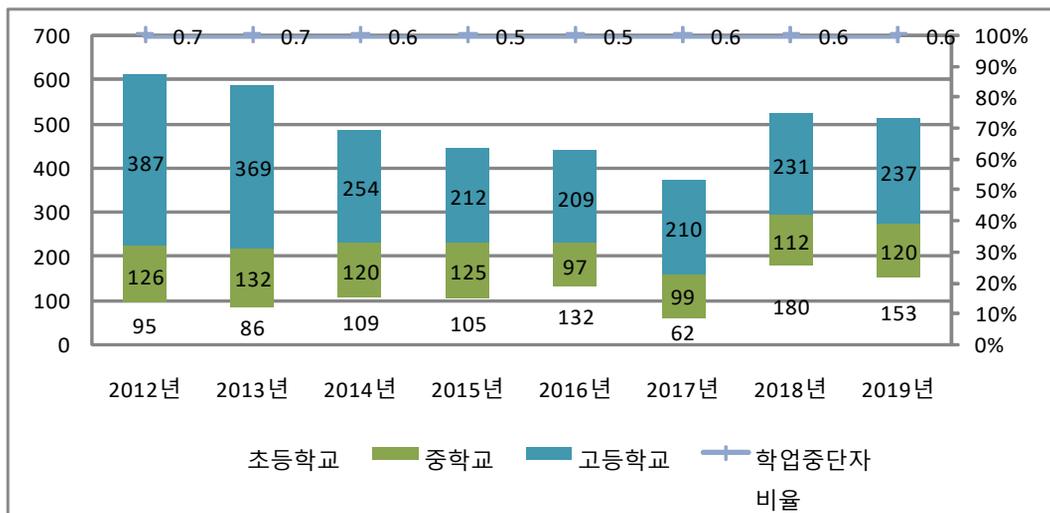
- 2019년 기준 학업중단자는 513명으로 전체학생의 0.7%를 차지하고 초등학교 156명(0.4%), 중학생 120명(0.6%), 고등학교 237명(1.2%)로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월등히 높음
- 2012~2019 학업중단자 추이를 보면 학업중단자 수는 2012년 608명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부터 523명으로 조금 증가하였으나 전체 학생 수도 증가하여 학업중단 비율은 0.7%→0.6%로 감소하는 추세임
- 학교급별 추이를 보면 초등학교 중단비율일 2012년 0.2%→2019년 0.4%, 중학생 2012

년 0.5% →2019년 0.9%, 고등학생 2012년 1.6%→2019년 1.2%로 초·중학생 학업중단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표 II-3〉 제주지역 학업중단자 현황

(단위: 명, %)

연도	학업 중단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학생수		
		명	%	명	%	명	%	초등	중등	고등
2012	608	95	0.2	126	0.5	387	1.6	40,172	24,059	23,797
2013	587	86	0.2	132	0.6	369	1.6	38,235	23,887	23,713
2014	483	109	0.3	120	0.5	254	1.1	37,915	23,380	23,221
2015	442	105	0.3	125	0.6	212	0.9	38,164	22,051	22,984
2016	438	132	0.3	97	0.5	209	0.9	38,272	20,629	22,936
2017	471	62	0.4	99	0.5	210	0.9	38,901	19,603	22,422
2018	523	180	0.4	112	0.6	231	1.1	40,096	19,306	21,088
2019	513	153	0.4	120	0.6	237	1.2	41,068	18,899	19,707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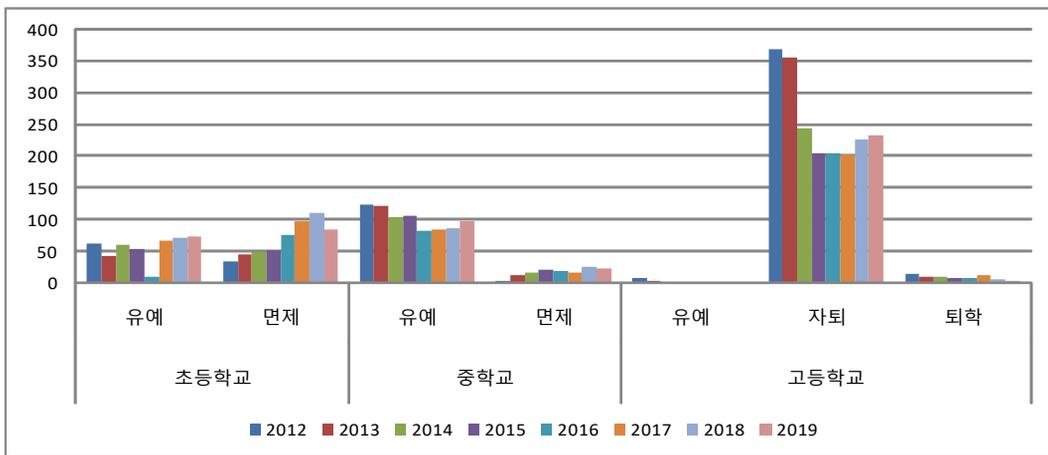
□ 학업중단 사유 현황

- 학업중단 사유를 보면 초등학생은 유예와 면제가 비슷한 수준으로 학업중단자가 늘어나고 있음
- 중학생은 면제보다 유예가 많지만 최근 2018~2019년도에는 면제 학생이 증가하고 있음
- 고등학교는 질병, 가사, 부적응 의한 자퇴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함

〈표 II-4〉 학업중단 사유 현황

(단위: 명)

연도	학업 중단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예	면제	유예	면제	유예	자퇴	퇴학
2012	608	62	33	123	3	6	367	14
2013	587	42	44	121	11	3	354	9
2014	483	60	49	103	17	1	243	10
2015	442	53	52	105	20	1	203	8
2016	438	8	74	80	17	0	203	6
2017	471	66	96	83	16	0	200	10
2018	523	71	109	87	25	1	225	5
2019	513	73	83	97	23	1	232	4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참조] 학업중단 사유 용어 정리

■ 초등학교/중학교

- 유예 : 재학하여 계속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한 자
 - 세부내용 : 질병, 발육부진, 장기결석, 미인정유학, 기타
- 면제 :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의거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한 자
 - 세부내용 : 질병, 해외출국, 기타

■ 고등학교

- 자퇴 : 고등학교에서 개인 또는 가정사정으로 학생의 바람에 의하여 학적을 포기한 자
 - 세부내용 : 질병, 가사, 부적응(학업관련/대인관계/학교규칙/기타), 해외출국, 기타
- 퇴학 : 고등학교에서 징계 등 학칙에 의해 학적이 박탈된 자
 - 세부내용 : 품행(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요청/학칙위반에 따른 징계)
- 유예(특수교육대상자만 해당) : 초/중학교와 동일
- 면제(특수교육대상자만 해당) : 초/중학교와 동일

□ 다문화학생 현황

- 2020년 기준 다문화학생은 2,259명으로 전체학생의 2.9%를 차지하고 초등학생 1,837명(4.5%), 중학생 307명(1.6%), 고등학생 115명(0.6%)로 초등학교에 다문화학생이 많이 분포되어 있음
- 2013~2020 다문화학생 추이를 보면 2013년 564명 0.7%에서 계속 증가하여 2020년에는 2,259명 4.5%로 3.8%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임
-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율도 매해 증가하고 있음

2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다문화 학생수는 13만 7225명으로 전년보다 1만 5013명 증가했다.

지난해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율은 1.03%를 기록했다. 1.17%를 기록한 2017년보다는 나아졌지만 2014년, 2015년, 2016년보다는 오히려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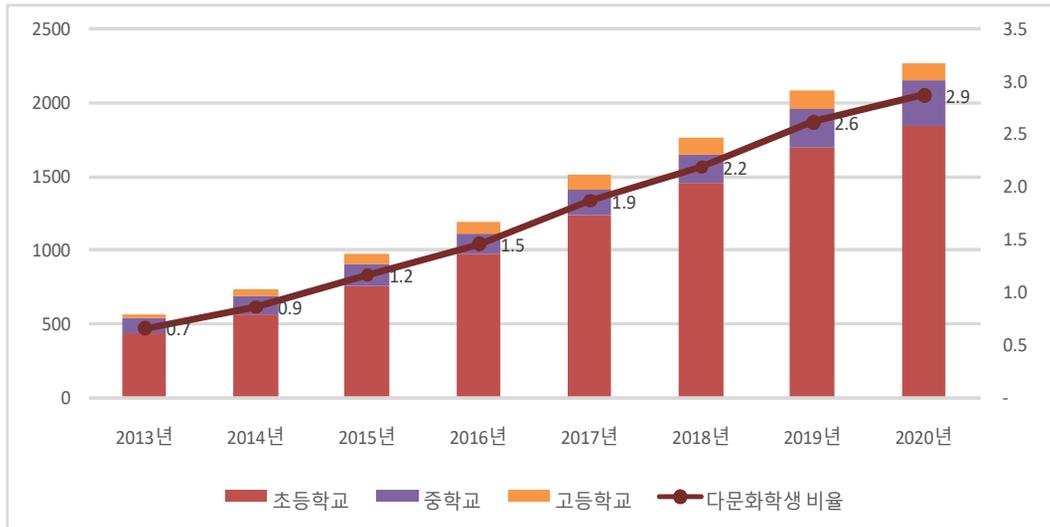
초·중·고 가운데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은 것은 1.34%를 보인 중학교다. 0.73%로 조사된 중학교 전체 학생의 학업중단율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학업문제, 왕따 등 대인관계, 질병, 유학, 출국 등이 학업중단 원인으로 분석된다.

※ 출처 : 2019.11.25, 교육부 보도자료, 서울신문 기사 일부 발췌

〈표 II-5〉 다문화학생 현황

(단위: 명, %)

연도	다문화 학생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학생수		
		명	%	명	%	명	%	초등	중등	고등
2013	564	431	1.1	102	0.4	31	0.1	38,235	23,887	23,713
2014	727	555	1.5	126	0.5	46	0.2	37,915	23,380	23,221
2015	967	757	2.0	146	0.7	64	0.3	38,164	22,051	22,984
2016	1,190	968	2.5	138	0.7	84	0.4	38,272	20,629	22,936
2017	1,509	1,238	3.2	166	0.8	105	0.5	38,901	19,603	22,422
2018	1,760	1,455	3.6	194	1.0	111	0.5	40,096	19,306	21,088
2019	2,079	1,690	4.1	261	1.4	128	0.6	41,068	18,899	19,707
2020	2,259	1,837	4.5	307	1.6	115	0.6	40,575	19,468	18,679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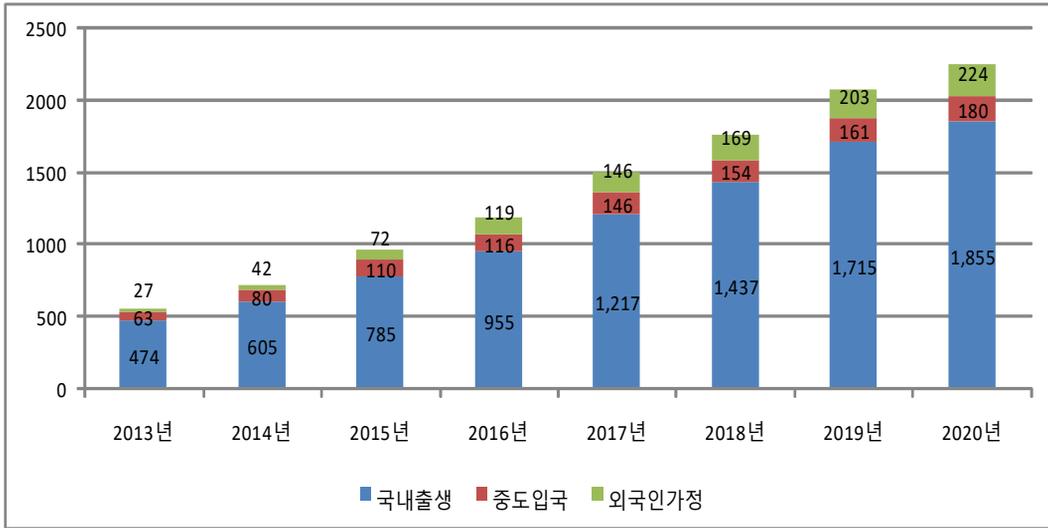
□ 다문화학생 유형

- 2020년 기준 다문화학생은 2,259명으로 전체학생의 2.9%를 차지하고 초등학교생 1,837명(4.5%), 중학생 307명(1.6%), 고등학생 115명(0.6%)로 초등학교에 다문화학생이 많이 분포되어 있음
- 2013~2020 다문화학생 추이를 보면 2013년 564명 0.7%에서 계속 증가하여 2020년에는 2,259명 4.5%로 3.8% 증가한 가파른 추세를 보임

〈표 II-6〉 다문화학생 유형

(단위: 명, %)

연도	다문화 학생수	국내출생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명	%	명	%	명	%
2013	564	474	84.0	63	11.2	27	4.8
2014	727	605	83.2	80	11.0	42	5.8
2015	967	785	81.2	110	11.4	72	7.4
2016	1,190	955	80.3	116	9.7	119	10.0
2017	1,509	1,217	80.6	146	9.7	146	9.7
2018	1,760	1,437	81.6	154	8.8	169	9.6
2019	2,079	1,715	82.5	161	7.7	203	9.8
2020	2,259	1,855	82.1	180	8.0	224	9.9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지역 환경 및 실태

가.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의 지역 여건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 분야 지원사업 현황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분야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운영 주체인 도청(일반행정)과 도교육청(교육행정) 단위로 학교와 지역사회 2개로 분류할 수 있음
- 학교에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이 지원되며 주로 학교 내에서 학습 및 문화, 심리 관련 활동 등이 이루어짐
-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보호시설 등 아동·청소년 대상 사회복지관련 기관에서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는데 보호와 양육 관련 활동보다는 교육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약함. 한편 교육지원 전문서비스 기관인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2017년 이후 민선 6기, 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 설치·운영되고 있음

〈표 II-7〉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 분야 지원사업 현황

연번	사업명	주 내용	운영 및 문의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습, 문화, 심리 등 종합적인 교육복지 프로그램 제공	교육청/학교
2	지역아동센터 지원	아동보호, 교육기능 정서지원, 문화서비스 등	지역아동센터 읍면동주민센터
3	초등돌봄교실	단체활동 프로그램, 숙제 및 독서 지도, 급·간식 지원 등	해당 초등학교
4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지원 등	행정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	언어발달정도 평가 후 대화, 읽기, 언어발달 촉진교육 제공	행정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6	인지발달 및 학습지원	성장기 인지발달과 학습능력 제고를 제공하는 서비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보호시설 장애인거주 시설 장애인재활시설 등
7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방과후 강좌 수강료 지원	읍면동주민센터, 해당학교
8	특기적성지원	기초학습지원, 보충학습 등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제공하는 서비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9	청소년인문학운영	자아존중감 및 진로개척 지원 인문학 상설 프로그램 운영	제주시청소년 수련관
10	진로지도 및 상담	진로지도 및 상담	청소년보호시설 청소년상담기관 아동관련기관

* 출처 : 제주복지넷[복지서비스] 재정리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현황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도내 153개가 있으며 아동 대상은 지역아동센터가 66개소로 가장 많으며 전체의 43%를 차지함
- 아동 대상 기관은 주로 돌봄과 보호,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상당수이며 아동학대 관련 기관도 분류되어 있음
- 청소년 대상 기관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이 가장 많으며 청소년 관련 기관은 청소년활동과 상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련관, 지원센터 등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음

〈표 II-8〉 제주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현황(2020.6월 기준)

연번	기관분류	기관 수	주 대상
1	지역아동센터	66	아동
2	아동양육시설	5	
3	아동보호기관	2	
4	아동공동생활가정	4	
5	아동보호전문기관	2	
6	아동관련 기관 및 단체	7	
7	청소년보호시설	6	청소년
8	청소년상담기관	3	
9	청소년지원기관	1	
11	청소년단체	21	
12	청소년문화의집	21	
13	청소년수련관	3	
1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9	
15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3	
	계	153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제주복지넷 자료 재작성

□ 지역아동센터 이용 현황

- 지역아동센터 이용 현황을 보면 제주지역은 2015년도는 신고정원 1,984명 중 1,857명이 이용하여 신고인원 대비 93.6%가 참여하였고 2016년도는 신고대비 89.4%로 이용률이 다소 떨어짐
- 전국 통계는 2015년 신고인원 대비 이용 인원이 91.6%[^], 2016년도는 90.1%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용함
- 반면 2019년말 기준(65개소) 제주지역 지역아동센터의 신고 정원은 1818명이고, 이용자는 1,688명으로 신고대비 92.8%로 나타남(제주지역아동센터 지원단, 2020)
- 제주지역 지역아동센터 수는 2015년 68개소에서 2016년 66개소, 2019년은 1개소가 휴원하여 65개소였으나 2020년 6월에 재개소하여 66개소임

〈표 II-9〉 지역아동센터 이용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 분	2015 제주지역	2015 전국	2016 제주지역	2016 전국	비고
센터 수	68	4,102	66	4,104	
신고 정원	1,984	119,746	1,857	118,4741	
이용자 수	1,857	109,661	1,718	106,668	
평균이용자수	27.3	26.7	26.0	26.2	
정원대비 이용자 비율	93.6	91.6	89.4	90.1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9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보고서 201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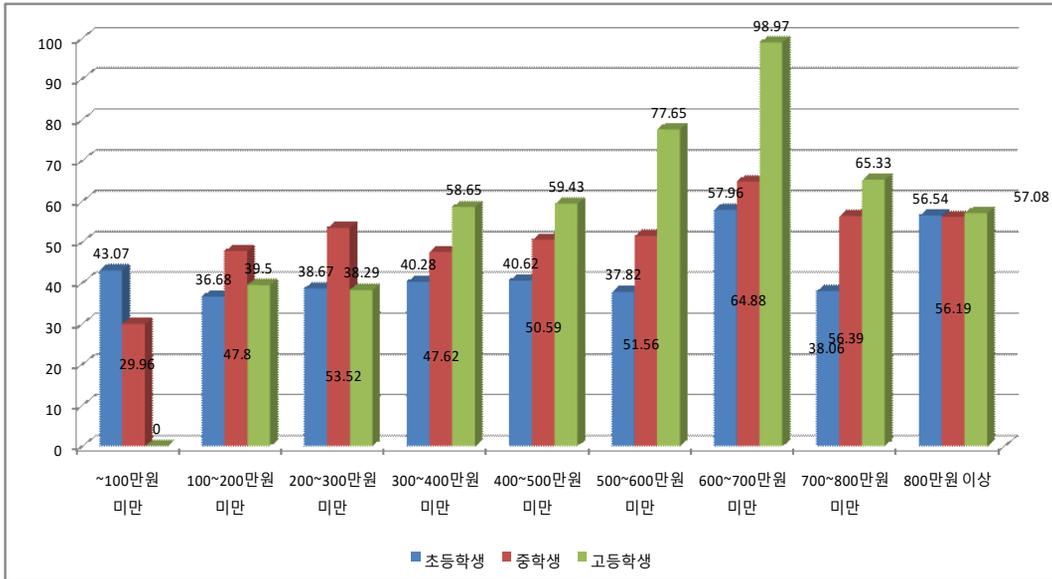
□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 현황

-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 현황을 보면 300만원 이하 소득수준에서 중학생 사교육비가 가장 높으며 초등과 고등학생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비슷함
- 300만원~500만원 미만 소득수준에서는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순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많으며 3그룹 모두 40~59만원 수준의 사교육비를 지출함
- 500만원 이상 소득 수준에서는 고등학생 사교육비 지출이 많아지고 있으며 800만원 이상 소득수준에서는 초, 중, 고등학생 모두 비슷한 수준의 사교육비가 지출 됨
- 소득수준 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매우 심하며 100만원 미만 소득수준에서는 고등학생 사교육비는 제로이며 중학생 사교육비도 초등학생보다 적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II-10〉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 현황

(단위: 만원)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00만원 미만	43.07	29.96	-
100~200만원 미만	36.68	47.80	39.50
200~300만원 미만	38.67	53.52	38.29
300~400만원 미만	40.28	47.62	58.65
400~500만원 미만	40.62	50.59	59.43
500~600만원 미만	37.82	51.56	77.65
600~700만원 미만	57.96	64.88	98.97
700~800만원 미만	38.06	56.39	65.33
800만원 이상	56.54	56.19	57.08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9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보고서 2019.12.

3. 요약 및 시사점

□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특성

- 2020년 제주지역 학령인구는 114,000명으로, 전체 인구 67만 대비 17%를 차지함.
- 제주지역 학령인구인 아동·청소년 114천명(2020년 기준) 대비 제주지역 19세 이하 수급권자는 6,072명(2018년 기준)으로 5.3%의 비중을 차지함
- 학업중단자는 2019년 기준 513명으로 전체학생의 0.7%를 차지하고 초등학생 156명(0.4%), 중학생 120명(0.6%), 고등학생 237명(1.2%)로 고등학생 학업 중단율이 월등히 높음. 학업중단 사유는 초등학생은 유예와 면제가 비슷한 수준이나 중학생은 면제보다 유예가 많고, 고등학생은 질병, 가사, 부적응에 의한 자퇴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함
- 다문화학생은 2020년 기준 2,259명으로 전체학생의 2.9%를 차지하고 초등학생 1,837명(4.5%), 중학생 307명(1.6%), 고등학생 115명(0.6%)로 초등학교에 다문화학생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2013년 564명 이후 계속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임. 전국적으로 2018년 기준으로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율이 1.03%를 기록하고 있어 유의해야 할 대상임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지역 환경 및 실태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분야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운영 주체인 도청(일반행정)과 도교육청(교육행정) 단위로 학교와 지역사회 2개로 분류할 수 있음. 학교에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이 지원되며 주로 학교 내에서 학습 및 문화, 심리 관련 활동 등이 이루어짐
-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보호시설 등 아동·청소년 대상 사회복지관련 기관에서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는데 보호와 양육 관련 활동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함. 한편 2017년부터 교육지원 전문서비스 기관인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도내 152개가 있으며 아동 대상은 지역아동센터가 66개소로 가장 많으며 전체의 43%를 차지함. 아동 대상 기관은 주로 돌봄과 보호,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상당수이며 아동학대 관련 기관도 분류되어 있음
- 청소년 대상 기관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이 가장 많으며 청소년 관련 기관은 청소년활동과 상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련관, 지원센터 등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지역아동센터 이용 현황을 보면 제주지역은 2015년도는 신고정원 1,984명 중 1,857명이 이용하여 신고인원 대비 93.6%가 참여하였고, 2016년도는 신고대비 89.4%로 이용률이 다소 떨어졌으나 2019년말 기준 92.8%로 올라감. 제주지역 지역아동센터 수는 2015년 68개소에서 2016년 66개소, 2020년 현재 66개소임
- 사교육비 지출 현황을 보면 2019년 기준으로 300만원 이하 소득수준의 중학생 사교육비가 53.52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초등(38.67만원)과 고등학생(38.29만원) 사교육비 지출수준이 비슷함. 500만원 이상 소득 수준에서는 고등학생(77.65만원) 사교육비 지출이 많아지고 있으며 800만원 이상 소득수준에서는 초, 중, 고등학생 모두 56만원 이상의 비슷한 사교육비가 지출 됨. 반면 100만원 미만 소득수준에서는 고등학생 사교육비는 제로이며 중학생(29.96만원) 사교육비도 초등학생(43.07만원)보다 적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바와 소득수준 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매우 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Ⅲ. 국내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1.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 법과 업무
2. 중앙부처 교육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지원 정책 현황
3.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교육 지원 정책 현황

Ⅲ. 국내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1.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법과 업무

가.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법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법(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취약계층의 교육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음

□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기본법」에서 교육취약계층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교육 및 홍보 등(제8조의2), 학교교육 등과의 연계(제48조),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제48조의2) 등의 조항에서 교육취약계층 교육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음

○ 청소년기본법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
- ③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 ③ 생략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全人的)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청소년복지지원법

-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교육취약계층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상담 및 교육(제13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제18조),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의 실시 등(제19조) 등의 조항에서 교육취약계층 교육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음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3조(상담 및 교육)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및 교육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족 및 보호자가 제1항의 상담 및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제19조(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의 실시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의 비행·일탈을 예방하고 가정·학교·사회 생활에 복귀 및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 본인,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따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이 보호지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18.>

- 1. 생략
- 2.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 ② 보호지원은 해당 청소년이 정상적인 가정·학교·사회 생활에 복귀 및 적응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서 상담·교육·자원봉사·수련·체육·단체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개정 2018. 12. 18.>
- ③ ~ ④ 생략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취약계층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제3조), 교육지원(제9조), 자립지원(제11조) 등의 조항에서 교육취약계층 교육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 ③ 생략

제9조(교육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생략

제11조(자립지원)

- ① 생략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생략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에서 교육취약계층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금지행위(제17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제37조), 자립지원(제38조),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제43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제52조) 등의 조항에서 교육취약계층 교육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음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 ⑤ 생략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

제17조(금지행위)

- 1~5 생략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11 생략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② ~ ③ 생략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5 생략

② 생략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제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 5 생략

③ 생략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2., 2017. 10. 24., 2019. 1. 15.>

1 ~ 7 생략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 11 생략

② 생략

③ 제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생략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 5 생략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 교육취약계층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장애아동의 권리(제4조), 문화·예술 등 복지지원(제26조) 등의 조항에서 교육취약계층 교육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음

<p>○ 장애아동 복지지원법</p> <p>제4조(장애아동의 권리)</p> <p>① ~ ② 생략</p> <p>③ <u>장애아동은 인성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u></p> <p>④ ~ ⑤ 생략</p> <p>⑥ <u>장애아동은 의사소통 능력, 자기결정 능력 및 자기권리 옹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u></p> <p>제26조(문화·예술 등 복지지원)</p> <p><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복지지원 외에 문화·예술·스포츠·교육·주거 등의 영역에서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u></p>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취약계층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목적(제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등의 조항에서 교육취약계층 교육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음

<p>○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p> <p>제1조(목적)</p> <p><u>이 법은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p> <p>①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복지·교육·문화 등의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p>② ~ ③ 생략</p> <p>제6조(기본계획의 수립)</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12. 2.></p> <p>1.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p>

2 ~ 4 생략
② 생략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교육취약계층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의2) 등의 조항에서 교육취약계층 교육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 ②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5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 ② 생략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교육취약계층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제10조), 등의 조항에서 교육취약계층 교육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2. 1.>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2015. 12. 1.>
- ④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

□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교육취약계층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제17조의2),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제17조의7) 등의 조항에서 교육취약계층 교육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음

<p>○ 한부모가족지원법</p> <p>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p> <p>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생략</p> <p>③ 생략</p> <p>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 16.)</p> <p>제17조의7(아동·청소년 보육·교육)</p> <p>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p>

□ 교육기본법

- 「교육기본법」에서 교육취약계층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학습권(제3조), 교육의 기회균등(제4조) 등의 조항에서 교육취약계층 교육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음

<p>○ 교육기본법</p> <p>제3조(학습권)</p> <p>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제4조(교육의 기회균등)</p> <p>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p> <p>② 생략</p>
--

□ 평생교육법

- 「평생교육법」에서 교육취약계층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제5

조) 등의 조항에서 교육취약계층 교육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음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 ④ 생략

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본 장에서는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를 주로 관장하는 중앙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중심으로 검토함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는 인구정책실 산하 아동권리과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과장 1명, 행정사무원 3명, 주무관 4명, 민간전문가 1명, 공무원 1명 총 10명의 인력으로 구성됨
- 업무는 (빈곤)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지역아동센터·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담당함

□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는 청소년가족정책실 산하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자립지원과, 학교밖청소년지원과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음
- 우선 청소년활동진흥과는 과장 1명, 사무관 3명, 주무관 6명, 전문위원 1명 총 11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었고, 업무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방과 후 활동프로그램의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함
- 다음으로 청소년자립지원과는 과장 1명, 사무관 2명, 주무관 5명 총 8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었고, 업무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보호·상담·자립 등에 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가출 등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함

- 학교밖청소년지원과는 과장 1명,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주무관 4명 총 8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었고, 업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상담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함

2. 중앙부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현황

가.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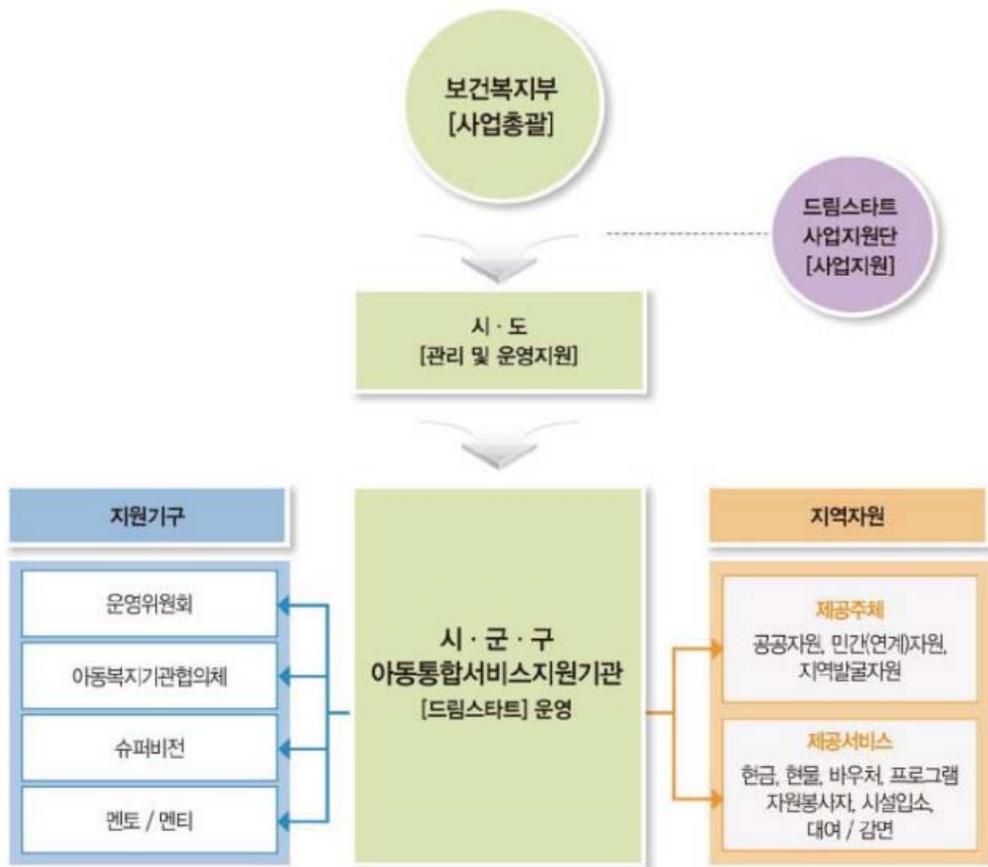
□ 드림스타트

- 취약계층의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 추진배경
 - 가족해체에 따른 가족기능 약화 및 사회양극화 등에 따른 아동 빈곤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됨(빈곤 가정 아동은 부적절한 양육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건강한 성장 발달 저해)
 - 빈곤 가정 아동에 대한 선제적 사회투자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함(빈곤 가정 아동에 대한 조기투자를 통해 빈곤의 대물림 단절 및 인적자본 축적으로 향후 사회비용 절감효과 기대, 빈곤 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는 빈곤 가정의 사회통합에 기여하여 미래적 가치 창출 가능)
 -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모든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보건·복지·보육(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사전 예방적·밀착형 통합 서비스를 통한 아동의 공평한 기회보장)
- 사업대상

- 대상은 0세(임산부) ~ 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이며, 만 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을 포함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 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을 원칙으로 함

○ 사업내용

-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함
- 인적조사 및 사정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를 파악하여 보건, 복지, 보호,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함
-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관리함



* 출처 : 보건복지부(2019)

[그림 III-1] 드림스타트 추진체계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적 성장을 지원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임. 즉, 교육취약 학생들이 직면한 교육기회, 교육과정, 교육결과에서의 격차를 줄이고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학생에게 필요한 다각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임

○ 추진배경

- 소득분배 구조 악화와 취약계층 확대 경향에 대처(1990년대 중반 이후 소득불평등 확대에 따른 중산층 감소 및 빈곤층 증가, 국제결혼가정 및 북한이탈 주민 등 신취약계층이 늘어남)
- 지역·학교별 계층 분화 및 교육적 성취에 대한 계층 영향력 증가(소득과 학력에 따라 지역 내 거주지 분화현상 발생, 동일 지역 내에서도 학교별 교육여건 격차 발생, 학생의 지적, 정서적 성취에 대한 가정배경 영향력 증가)
- 교육기회 불평등 문제 개선 및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정책 필요(계층 간 소득격차 심화, 가정기능 약화 등이 초래하는 다양한 교육격차 문제에 대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 대처, 가정배경과 관계없이 자신의 잠재력 계발을 위한 공적 지원)

○ 사업대상

- 대상은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임
- 우선지원대상은 1순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자녀, 법정 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 한부모가정 자녀, 2순위는 각 지원 사업 별 중위소득 50~135%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 3순위는 담임교사(또는 교육복지사)가 추천한 대상자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선정된 학생임

○ 사업내용

- 사업학교에서 대상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함
- (학습)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함. 예시) 일대일 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 (문화 체험)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을 실시함. 예시)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 (심리, 심성)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함. 예시)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 (복지)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를 구축함. 예시) 치과, 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 출처 :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2019)

[그림 III-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전달체계

나.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 추진배경

- 1980년대부터 빈곤지역을 중심으로 공부방이라는 이름 아래, 저소득층 아동에게 교육·문화·복지에 이르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왔음. 공부방은 지속된 빈곤, 저소득 부모의 맞벌이로 인한 육아문제, 가족해체로 인한 한부모 세대 증가와 같은 상황들로 인해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지역 아동들에게 학습지도, 문화활동, 인성교육과 같은 생활지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함(한국교육개발원, 2012)
- 2004년 정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정책 추진을 목표로 공부방 등 기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전국에 지역아동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역아동을 위한 종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 이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지역아동센터(구, 공부방)’를 아동복지시설로 정의하고, 전국 244개 공부방에 대한 운영비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을 시작함
- 이와 같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법제화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895개소에서 2018년 4,211개소로 급증했고, 지역사회에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적인 전달체제로 확립된 상태임(국회입법조사처, 2019)

○ 사업대상

- 돌봄취약아동: 선정기준에 따른 소득, 가구특성, 연령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의 아동 또는 돌봄특례에 해당하는 아동
- 일반아동: 연령기준을 만족하는 아동. 다만, 동시 입소신청 시 가구특성기준에 해당하는 아동은 연령기준만 만족하는 아동보다 이용순위를 우선함
- 이용아동 등록: 시설별 신고정원의 80%이상은 돌봄취약아동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은 20%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 다만, 시군구청장은 지역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다음의 범위 내에서 임의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일반아동 등록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음.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 벽지 지역은 40%, 그 외 지역은 30%임

○ 사업내용

- 지역아동센터는 사회적 돌봄(방과 후 돌봄 등)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 인지, 사회성 발달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자원을 확보,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및 연계하고 지역네트워크를 통

하여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지망을 강화하는 사업을 함

- 운영시간은 월~금요일을 포함하여 주 5일, 1일 8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해야 함(공휴일 제외)
- 서비스 영역은 보호(생활, 안전), 교육(학습, 특기적성, 성장과 권리), 문화(체험활동, 참여활동), 정서지원(상담, 가족지원), 지역사회연계(홍보, 연계)로 구분되며, 프로그램은 각 영역에 따라 일상생활관리, 위생건강관리, 급식지도, 생활안전지도, 숙제지도, 인성교육, 자치회의 및 동아리활동, 캠프, 여행, 아동 상담, 보호자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표 III-1〉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영역 및 프로그램

영역	세부영역	세부프로그램	프로그램 예시 (시설별 선택 운영)
보호	생활	일상생활관리	센터생활적응지도, 일상생활지도, 일상예절교육, 부적응 아동지도 등
		위생건강관리	위생지도, 건강지도 등
		급식지도	급식지도, 식사예절교육 등
	안전	생활안전지도	저녁돌봄 등
		안전귀가지도	안전귀가지도, 생활안전지도 등
		5대안전의무교육	교육안전 실종유괴예방, 약물오남용예방, 재난대비, 성폭력예방 등
교육	학습	숙제지도	숙제지도, 학교생활관리 등
		교과학습지도	수준별 학습지도, 온라인교육(IPTV 학습 등), 학습부진아 특별지도 등
	특기적성	예체능활동	미술, 음악, 체육지도 등
		적성교육	진로지도, 적성교육(독서, 요리, 과학 등) 등
	성장과 권리	인성·사회성교육	인성교육, 사회성교육 등
	자치회의 및 동아리 활동	자치회의, 동아리 활동 등	
문화	체험활동	관람·견학	공연 및 연극 관람, 박물관 견학 등
		캠프·여행	체험활동, 캠프 및 여행 등
	참여활동	공연	공연 등
		행사(문화/체육 등)	전시회, 체육대회 등
정서지원	상담	연고자 상담	부모 및 가족 상담, 연고자 상담 등
		아동 상담	아동 상담 등
		정서지원 프로그램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
	가족지원	보호자 교육	보호자 교육 등
		행사·모임	부모 소모임, 가정 방문 등
지역사회 연계	홍보	기관홍보	기관홍보 등
	연계	인적 연계	자원봉사활동, 인적결연후원, 후원자 관리 등
		기관 연계	지역조사와 탐방, 전문기관 연계 복지단체 연계 등

*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2019)

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서비스를 담당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등을 기반으로 방과 후 홀로 방치되기 쉬운 저소득·맞벌이·한부모 등 돌봄취약계층 청소년(초 4학년~중 3학년)에게 체험활동·학습 지원·급식·상담 등 종합적인 교육·복지·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정책지원사업임
- 이를 통해 취약계층청소년의 학습 및 체험활동 기회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더불어 가정의 사교육비 및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음
- 추진배경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05년 ‘방과후 청소년 생활지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46개소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2006년부터(100개소) 전국 단위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음
 - 지역특성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2008년에는 농산어촌형을, 2011년에는 장애형과 다문화형 등 신규 운영모형을 개발·운영하는 한편, 2016년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이었던 기존의 참여대상을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였고, 2018년에는 기존의 취약계층 중심 사업에서 보편적 복지서비스로 확장하기 위하여 맞벌이 가정 청소년을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함
 - 최근에는 양적 성장과 더불어 사업의 질적 성장을 위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적 측면에서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음.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의융합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2018년 10개소 시범운영, 2019년 전국 확대), 2019년에는 청소년이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정보연계 및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진로 체험형 방과후아카데미’를 개발하여 시범운영(9개소)하였고, 성평등, 다양성·다문화 감수성 등 민주시민의식 역량 개발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고 있음(여성가족부, 2019a)
- 사업대상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 4학년 ~ 중등 3학년) / 운영기관에 따라 교급 상이 / 지자체별로 지역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대상 학년을 선택(지역 수요에 따라 예비 4학년도 참여 가능(3학년 10월부터))

대상구분	지원대상
우선순위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2자녀 이상 가정·맞벌이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기타 지원대상	학교(교장·교사), 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 출처 : 여성가족부(2019b)

○ 사업내용

- 운영기간은 1월 ~ 12월, 일 4시수, 주 5~6일 운영(일요일, 공휴일 휴일 권장)
- 주중활동(월~금) : 1주 20시수 이상(급식 5시수 의무, 그 외 프로그램의 편성은 기관 자율 편성) *단, 급식시수 30분~1시간 내 탄력운영 가능
- 주말활동 : 월 1회 5시수 이상(급식 포함)
- * 단, 주말체험활동(월1회)외 주말운영은 운영일수에 미반영

〈표 III-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내용	
체험활동	주중 체험활동	- 강습형태가 아닌 체험활동 위주로 청소년들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예술체험활동, 과학체험활동, 직업개발활동, 봉사활동, 리더십개발활동 등) - 주말체험활동과정 운영 시 외부활동 권장 - 지역사회 참여활동
	주말 체험활동 (월 1회 급식포함 5시수)	
	지역사회 참여활동	
학습지원	보충학습 지원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숙제, 보충학습지도, 독서지도 등의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
	교과 학습	전문 강사진의 교과학습 중심의 학습 지원
역량강화	진로개발 역량 프로그램 (진로체험)	- 강습형태가 아닌 전문적인 체험활동으로 운영 - 청소년 주도의 프로젝트(PBL) 방식의 프로그램 운영 권장
	창의·융합 프로그램	- 역량강화 중점 프로그램은 연간 60시수 이상 의무 편성
자기주도활동	주중자기개발활동과정 (주2시수 이상)	-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활동(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등)
	주말자기개발활동과정 (필요시 1회당 2시수 이상)	- 각 운영기관에서 자유롭게 편성하여 운영하는 과정 - 실무자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프로그램
특별지원	청소년캠프(방학), 부모(보호자) 교육, 초청인사 특별강의, 발표회 등	
생활지원	급식, 상담, 건강관리, 생활일정 관리(메일링서비스) 등의 생활지원	

* 출처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0)

라. 꿈드림(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여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 ‘꿈드림’은 ‘꿈=드림(Dream)’, ‘꿈을 드림’(‘드리다’의 명사형)이라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드리겠다는 의미임
- 추진배경
 -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사업인 두드림·해밀 사업을 운영하여 왔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5.5.29.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두드림·해밀 사업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확대·변경되면서 2015년부터 전국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지정하여 운영하였고, 2019년 총214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 사업대상
 - 대상연령 9세부터 24세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초·중학교 3개월 이상 결석,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미진학 청소년, 학업중단 숙려 대상 등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포함함
- 사업내용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훈련 지원, 자립지원, 건강검진, 기타서비스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하고 있음

〈표 Ⅲ-3〉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내용
상담지원	청소년 심리, 진로, 가족관계, 친구관계 등
교육지원	학업동기 강화 및 학업능력 증진 프로그램 진행,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 지원, 대학 입시 지원, 학업중단 숙려상담, 취학관리 전담기구 사례관리, 복교지원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훈련 지원	직업탐색·체험 프로그램 제공,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취업훈련 연계지원(내일이룸 학교, 취업성공패키지, 비즈쿨 등)
자립지원	자기계발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초 소양교육 제공
건강검진	10대 특성에 맞춘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본인부담 없음), 건강생활 관리 지원, 체력관리 지원
기타서비스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등

* 출처 : 꿈드림 홈페이지(2020. 11.22 검색)

마. 청소년쉼터

-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 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
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을 지원
- 추진배경
 - 1991년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된 후 1992년 최초로 청소년쉼터가 설치되었고, 2004
년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제정(2005년 2월 시행)됨으로써 청소년쉼터의 법적 설치근
거가 마련되었으며, 2006년부터 청소년쉼터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일시쉼터, 단기쉼
터, 중장기쉼터로 그 유형을 구분하고, 종사자 워크숍 및 역량강화 연수, 청소년쉼터주
간 운영 등을 실시함(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8)
- 사업대상
 - 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이지만, 쉼터입소대상 선정 시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우선 하되 그러하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
해서는 청소년안전망 또는 유관기관 연계 등 적절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사업내용
 - 청소년쉼터의 주요업무로는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가출청소년의 상담·
선도·수련활동,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가출청소년의 사례관리, 청
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지원(아웃리치)활동,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에 관한
활동,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과 연계 협력 강화, 청소년전화 1388과 청소년상담복지센
터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및 보호서비스 제공 사업을 하고 있음
 - 청소년쉼터는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 구분하여 각 쉼터의 기능을 달리하고
있음

〈표 Ⅲ-4〉 청소년쉼터의 종류 및 기능

구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기간	24시간 이내 일시보호 (최장 7일까지 연장 가능)	3개월 이내 단기보호 (최장 9개월까지 연장 가능)	3년 이내 중장기보호 (필요시 1년 단위 연장 가능)
이용 대상	일반청소년, 거기생활청소년	가출 청소년	자립의지가 있는 가출청소년

핵심 기능	일시보호 및 거리상담지원 (아웃리치)	심리정서 상담지원 사례관리를 통한 연계	심리정서 상담지원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지원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 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가출 청소년 구조 발견, 청소년쉼터와 연결 -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출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 서비스 및 예방활동 전개 - 의식주 및 의료 등 보호서비스 제공 - 가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가출 청소년분류, 연계·의뢰 서비스 제공 등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환형, 가족형, 자립형, 치료형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위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유동지역)	주요도심별	주택가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원
비고	숙소, 화장실의 경우 필히 남·여용 분리 운영	반드시 남·여용 쉼터를 분리 운영하여야 함	

* 출처 : 여성가족부(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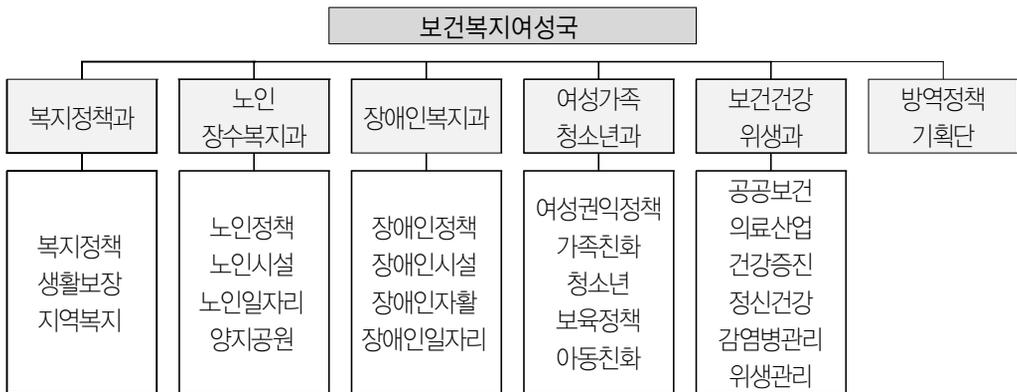
3.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현황

가.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담당 조직

□ 제주특별자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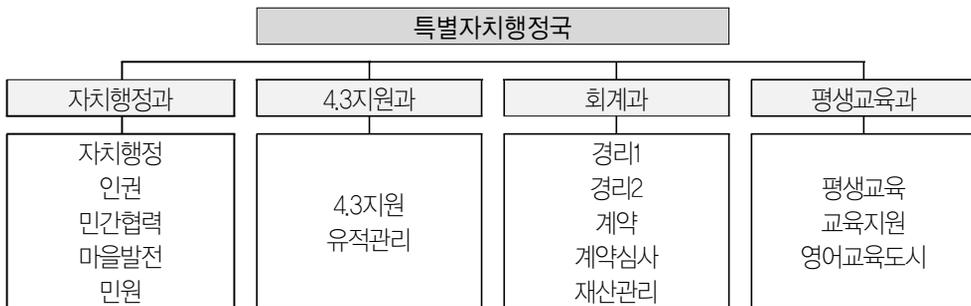
-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담당조직은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 여성가족청소년과와 특별자치행정국 산하에 평생교육과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음
- 우선 여성가족청소년과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여성권익정책팀은 팀장1명, 주무관 4명 총 5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부모가족 지원 및 복지시설 지원 업무, 조손가족 지원 사업 등의 교육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 가족친화팀은 팀장1명, 주무관 3명 총 4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거점센터 운영 지원 등의 교육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 청소년팀은 팀장1명, 주무관 2명 총 3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출 청소년 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등의 교육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 아동친화팀은 팀장1명, 주무관 2명 총 3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지역아동센터 업무 등의 교육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그림 Ⅲ-3] 제주특별자치도청 보건복지여성국 조직도

- 다음으로 평생교육과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평생교육팀은 팀장1명, 주무관 4명 총 5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기주도학습센터 지원 등의 교육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 교육지원팀은 팀장 1명, 주무관 2명 총 3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교육청 관련 지원 업무와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제주꿈바당 학습바우처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그림 Ⅲ-4] 제주특별자치도청 특별자치행정국 조직도

□ 제주도

- 제주시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담당조직은 복지위생국 산하에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음
- 우선 주민복지과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복지자원관리팀은 팀장1명, 주무관 4명 총 5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소득층 교복비, 간병비,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등의 교육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 아동지원팀은 팀장1명, 주무관 6명, 통합사례관리인력 6명, 지역아동센터 파견 아동복지교사 25명 총 42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관리 지원 사업,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요보호아동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등의 교육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 다음으로 기초생활보장과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생활보장팀은 팀장1명, 주무관 6명 총7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소년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자립지원 등의 교육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 다음으로 여성가족과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가족지원팀은 팀장1명, 주무관 3명 총4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의 교육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 청소년팀은 팀장1명, 주무관 2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인력 8명 총 11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소년쉼터 지원 및 운영 관리,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지원 및 운영 관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 운영 지원 등의 교육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 서귀포시

- 서귀포시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담당조직은 복지위생국 산하에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와 자치행정국 산하에 평생교육지원과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음
- 우선 주민복지과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같음

- 기초생활보장팀은 팀장1명, 주무관 3명 총 4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자녀교복비, 저소득층 유료 간병비, 김정고시학습비 지원 등의 교육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 다음으로 여성가족과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가족지원팀은 팀장1명, 주무관 3명 총4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한부모(조손)가족지원사업 추진 등의 교육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 청소년팀은 팀장1명, 주무관 4명 총 5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밖 청소년) 및 쉼터 지원, 가정 밖 청소년 진로탐색사업,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지원 등의 교육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 아동지원팀은 팀장1명, 주무관 3명 공무원 1명, 지역아동센터 파견 아동복지교사 11명 총 16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드림스타트 운영관리,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의 교육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담당조직은 정책기획실 산하에 안전복지과와 교육국 산하에 미래인재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학생건강증진추진단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음

○ 우선 안전복지과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학생복지팀은 사무관 1명, 주무관 5명, 교육복지사 1명 총 7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난치병학생 교육력제고 지원 사업,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민간위탁 운영,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제주형 교육복지학교 훈디거넌팀 운영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 다음으로 미래인재교육과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평생교육팀은 사무관 1명, 주무관 2명 총 3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음
- 방학후학교팀은 장학사 2명, 주무관 2명 총 4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소득층자녀 자유수강권 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 민주시민교육과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학교생활팀은 장학관 1명, 장학사 2명, 주무관 2명, 지방전문경력관 1명, 학생상담사 4명 총 10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업중단숙려제, 고등학생 재입학 적응력교육 운영, 학교 내 대안교실(행복교실) 운영,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은 단장 1명, 장학사 1명, 전문의 1명, 학습심리지원관 2명, 전문상담교사 6명, 주무관 1명, 실무수습 1명 총 13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습부진 학생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구성, 학습부진 세부사업 운영지원, 학업중단숙려제 상담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지원을 담당하고 있음



[그림 III-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도

나. 제주특자치도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중심으로

□ 추진 배경

- 민선 6기 공약사업을 시작하여 민선 7기까지 이어짐
-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 설립취지는 도민에게 다양한 교육에 관한 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 교육지원체계 구축 및 도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함(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민선 6기 「사교육비 부담 줄이는 자기주도학습지원」, 「진로·적성·창의·리더십 등 비(非)교과 프로그램 지원」, 「학습지도전문가 양성·배치」 공약과 민선 7기 「어린이도서관과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 「코딩, 드론 등 자기주도학습센터 미래교육과정 강화」 공약으로 구체적 실천과제 제시함

□ 사업 대상

- 주 대상은 아동·청소년이며 관련 있는 학부모, 교사, 지역기관 관계자 등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함

□ 기능

- 스스로 학습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교육환경 조성 및 지원
- 대상별 특수성을 고려한 자기주도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 및 교육과정 설계
- 이용자의 접근성은 높이고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자기주도학습 배움터 및 네트워크 구축

□ 사업 내용

-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진로, 적성 및 인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학습지도전문가 양성 배치

-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복합문화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내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 운영
-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자기주도학습컨설팅, 학습역량강화, 창의인성, 진로설계, 학습지도전문가 양성, 복합문화사업 6개 영역 19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 함
-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창의인성, 학습캠프, 진로진학, 창의융합, 자기주도학습, 부모교육,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과정 등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표 Ⅲ-5〉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교육과정

영역		교육과정	프로그램 예	
학생 과정	자기주도 학습 컨설팅	유형1(소그룹)	소그룹 맞춤형 컨설팅	
		유형2(학급단위)	학급단위(집단)학습 전략 교육	
		유형3(집중과정 캠프)	학습전략 집중 교육	
	학습 역량 강화	자기관리	북아트, 롤모델만들기 등	
		의사소통	토론교육, 질문법 등	
		정보활용	비주얼씹킹, 미디어리터러시 등	
		전환기 교육*	예비중학생, 예비고등학생 준비교실	
	창의 인성	창의인성	오감인성놀이,감정풍선, 언어놀이 등	
		미래교육	SW융합교육	SW교육(코딩, AI등), SW진로교육(페스티벌) 등
			창의과학	과학놀이터, 제주화산(지질)교육 등
		지역사회이해	4.3교육, 제주건축이야기, 전래놀이 등	
	진로 설계	전환기 교육*	예비성인준비교육	
		진로인식	자기이해, 일과직업, 진로탐색, 진로설계 교육	
		진로체험	꿈책갈피·커리어플래너· 꿈배지 만들기 등	
	지도사 과정	학습 지도자 양성	지역특화	생생원도심, 4.3과 다크투어리즘 등
기본과정			자기주도지도사/진로교육지도사 양성과정	
심화과정			자기주도지도사/진로교육지도사 심화과정	
시민·학생 과정	복합 문화	보수과정	자기주도지도사/진로교육지도사 보수과정	
		학부모(시민)교육	학부모교육, 시민특강	
		특별사업	토닥토닥한마당, 학습동아리 운영 등	

□ 운영 방식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지자체 직접 운영 또는 전문기관 위탁운영이 가능하며 제주시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위탁운영을, 서귀포시는 서귀포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음

〈표 III-6〉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방식

구분	공기관 위탁 대행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지자체 직영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개념	도 산하 공공기관이 사무를 위탁하여 책임 운영	도(행정시)가 사업소의 형태로 직접 운영
근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제14조(사업소)
성격	특정업무의 위·수탁	사업소(직영센터)
경영비용	출연금+공기관대행사업비	자체예산
경영자	공공기관 책임(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도지사-행정시장(서귀포시장)
업무감독	- 위탁사무에 대한 수시감사 - 한시적 사전 승인 및 협의	행정조직에 적용되는 범위
장점	- 기관장 및 담당자의 전문성 - 기관 특성에 따른 특화 가능하고 접근이 용이함 - 기존 기관 연계 및 사업 지속	- 공공성 확보 - 예산·회계의 투명성 확보 - 경영책임 명확성
단점	- 기관 자체 전문인력 확보 부족 - 기존 조직개편 어려움, 추가 인력 배치 필요 - 충분한 예산 지원 확보 어려움	- 인사교류로 전문성, 경영 노하우 결여 - 도민의 요구에 대한 신속적인 대응성 약화 - 조직추가 및 정원증성 부담

* 출처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립·운영 방안 정책연구 보고서(2015) P. 9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정 사용.

□ 취약계층 교육 지원

○ 찾아가는 자기주도학습 배움터 운영

-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 취약계층 학생 이용시설과 읍면지역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 등을 찾아가는 학습배움터로 지정하여 센터 내 운영 교육을 찾아가는 교육으로 동시에 운영함
- 제주시는 28개 배움터, 서귀포시는 13개 배움터와 협약을 하여 자기주도학습컨설팅 및 창의과학 교육 등 센터 교육 프로그램을 배움터에서 운영함

○ 지역아동센터 등 찾아가는 교육 활성화

- 배움터로 협약된 기관 외에도 센터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기관 및 읍면 학교 등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함

- 2020년 제주시 센터인 경우 찾아가는 교육이 340개 프로그램(전체 프로그램의 67%), 7,839명(전체 참여인원의 87%)로 읍면 및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이 활발하게 운영 되고 있음

○ 교육청 협력 기초학습부진 학생 학습컨설팅 지원

- 심각해지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청과 연계하여 기초학습부진 및 학습동기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컨설팅을 운영함
-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운영 중인 학습컨설팅 콘텐츠를 교육청의 예산으로 읍면 학교 및 기초학습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교육취약계층을 위한 지자체-교육기관 협력 모델을 만들

○ 다문화, 학교밖청소년 등 특정 계층을 위한 교육내용 협력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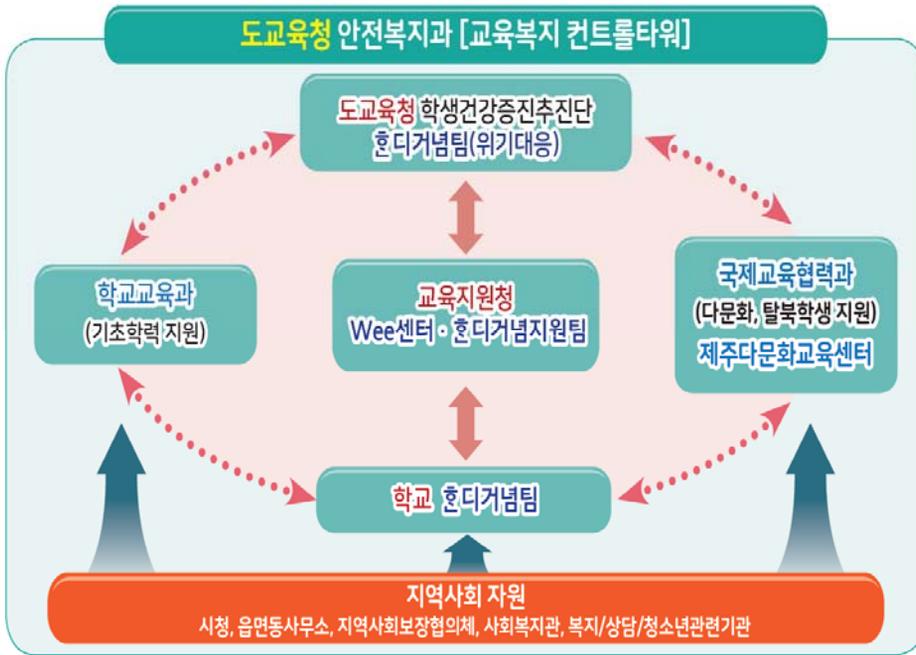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을 찾아가는 배움터로 협약하여 맞춤형 특별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교육 내용을 설계 하는 노력을 함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교육적 전문성을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대상에 맞는 교육지원을 고민하는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함

다. 제주특자치도교육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 지원 계획 중심으로

□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0년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 지원 계획을 통해 정서위기 지원, 기초학력 향상, 취약계층(다문화·탈북·저소득) 교육복지 통합 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단위학교별 혼디거넌팀 구성 및 지원 기능 강화와 정서위기, 기초학력, 취약계층(다문화, 탈북, 저소득) 교육복지 담당부서 간 분기별 업무 협의 정례화를 실시하고 있음



[그림 Ⅲ-6] 2020년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지원 추진체계

- 단위학교별 교육복지실 기능 확대 및 학생 깊이보기를 통한 위기학생 조기발굴을 통해 학생 유형별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음

정서위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인력) 채용 - 심리치료비, 상담비, 진단검사비, 강사비 지원 - 학생건강증진추진단 전문의 마음건강 상담 의뢰 등
기초학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임교사 개별지도, 외부강사 활용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학생 공감 프로젝트 운영 - 교재비, 상담비,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지원 - 학생건강증진추진단 학습심리지원관 평가 의뢰 등
다문화 학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임교사 개별지도 - 교재 학습지원 멘토링 운영(멘토링,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운영, 제주다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신청 등
탈북학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지원 멘토링 및 진로프로그램 운영(멘토링, 진로교육비 지원), 개인상담 등
취약계층 교육복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긴급교육복지 지원(현물· 현금), 장학금 지원, 지역기관 자원 연계 등

- 이 외에도 취약계층 학생지원을 포함한 학생복지 사업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표 Ⅲ-7>과 같음

〈표 III-7〉 학생복지 사업 안내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교육급여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초·중·고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고등학생 교과서 대금 및 수업료(입학금 포함)
고등학교 교과서 구입비 지원	-도내 고등학교	고등학생 교과서대 실비
학기중 토·공휴일 학생 중식비 지원	-결식우려학생	-학기중 토·공휴일 학생 중식비 지자체 전출 -초·중·고 1인 1식 단가 5,000원 부식 배달 ※ PC유지보수 지원 : 장애발생 시 가정방문 수리(용역)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PC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인터넷통신비, PC유지보수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PC지원: 가구당 1대 -인터넷통신비 지원: 가구당 1회선(유해차단서비스 포함) -PC유지보수 지원: 장애발생 시 가정방문수리(용역)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저소득층 가정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난민 인정자, 탈북학생 -다자녀 가정의 자녀(세자녀 이상, 첫째부터 지원)	-초·중·고 방과후학교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
교복비 지원	-도내 중·고·특수학교 1학년 신입생	-학교주관 교복구매제도를 통해 학생에게 '현물'로 교복 지급
고등학교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저소득층 가정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난민 인정자, 탈북학생, 다자녀 가정의 자녀(세자녀 이상, 첫째부터 지원)	-고등학교 수학여행비 1인당 40만원 이내 실비 -고등학교 수련활동비 1인당 실비
고등학교 저소득층 석식비 지원	-저소득층 가정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난민 인정자, 탈북학생	-고등학교 석식 급식비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졸업앨범비 지원	-저소득층 가정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난민인정자, 탈북학생 -다자녀 가정의 자녀(세자녀 이상, 첫째부터 지원)	-초·중·고 1인당 졸업앨범비 실비 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지원	-정서위기/기초학력부진/취약계층(다문화, 탈북, 저소득) 등 복합적 위기요인으로 인해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	-단위학교별 훈디거넌팀(교육복지지원조직) 운영 -단위학교별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 -지역자원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민간위탁)	-도내 거주 하며 검정고시 준비 및 진로모색을 위한 비영리 관련 시설 이용 중인 학교 밖 청소년	-교재비: 1인당 25만원 이내 실비 -식비: 1일 1식 8천원 이내 실비 -현장체험학습비: 1인당 40만원 이내 실비
누리과정비 지원	-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만 3세~5세 유아	-유아학비: 공립유치원 월 6만원, 사립유치원 월 24만원 -보육료: 어린이집 월 24만원 -방과후과정비: 공립유치원 5만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7만원
장애유아 교육비 지원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장애유아	-누리과정비 이외 학부모부담금 월 10만원 이내 실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저소득층 유아(국민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	-누리과정비 이외 학부모부담금 월 10만원 이내 실비

취약계층 우수인재 육성사업(꿈사다리 장학제도)	-학업의지가 높고 성장 잠재력을 가진 저소득층 중·고교생(12명)	-중학생 월 30만원, 고등학생 월 40만원 지원
혼디희망 난치병 학생 지원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원 또는 재정적 중인 난치병 유아 및 학생 ※ 난치병: 암, 심·뇌혈관, 희귀질환	-연 300만원 한도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사업 소요경비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2020)

4. 요약 및 시사점

가. 국내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요약 및 시사점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관련법과 업무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법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Ⅲ-8〉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법의 특징

법	특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있어 학교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명시하고 있음.
청소년 복지지원법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주배경청소년(다문화가족 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 시책 마련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아동복지법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도 있으며, 자립에 필요한 교육의 지원과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아동은 인성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빈곤아동이 교육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문화예술 교육지원법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음
다문화 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 적응에 따른 교육지원대책 마련에 대한 내용과 보육 및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한부모 가족지원법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보육 및 교육을 실시함에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교육기본법	모든 국민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음
평생교육법	모든 국민(장애인 포함)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과 관련된 업무는 여러 중앙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주된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임

□ 중앙부처와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의 특징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III-9〉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의 특징

지원 정책	특 징
드림스타트 (보건복지부)	임산부를 포함한 0~12세(초등학생 이하, 만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을 포함) 저소득 아동 및 가정 중 드림스타트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개별적 욕구에 맞는 보건, 복지, 보호,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교육부)	교육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적 성장을 지원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녀, 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법정 한부모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함
지역아동센터 (보건복지부)	사회적 돌봄(방과 후 돌봄 등)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 인지, 사회성 발달의 기회를 제공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여성가족부)	방과 후 홀로 방치되기 쉬운 저소득·맞벌이·한부모 등 돌봄취약계층 청소년(초4~중3 학년)에게 체험활동·학습지원·급식·상담 등 종합적인 교육·복지·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정책지원 사업임
꿈드림(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상담지원·교육지원·직업체험 및 직업 교육훈련지원, 자립지원, 건강검진, 기타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
청소년쉼터 (여성가족부)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 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 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을 지원

□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관련 업무 담당 조직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포함)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들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 지원 정책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자기주도학습 배움터를 만들어 취약계층 관련 기관 및 읍면지역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음.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아동·청소년 및 학부모, 교사, 지역기관 관계자 등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 내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교육지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 운영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기초학습 부진 해소를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교육기관의 협력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음
-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기관은 돌봄이 주 기능이지만, 학습적 요구와 필요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 지원 정책은 2020년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 지원 계획을 통해 정서위기 지원, 기초학력 향상, 취약계층(다문화·탈북·저소득) 교육복지 통합 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단위학교별 혼디거넌팀을 구성하고 교육복지실 기능 확대를 통해 위기학생을 발굴하여 학생 유형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취약계층 학생지원을 포함한 학생복지 사업(저소득층 교육정보화지원,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민간위탁), 취약계층 우수인재 육성사업(꿈사다리 장학제도)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음

나. 정부·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시사점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은 부처별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긍정적인 면으로는 우선 돌봄과 교육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있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돌봄과 더불어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두 번째로는 소외 될 수 있는 특정 영역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도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임. 주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꿈드림(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과 가출청소년(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쉼터는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아쉬운 점으로는 우선 교육지원 대상인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대부분 동일하다는 점임. 물론 부처별로 이중 또는 중복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업대상 대부분 동일함. 학교 밖청소년을 지원하는 꿈드림과 가출청소년(가정 밖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쉼터 사업을 제외하고는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 아동을 우선 대상으로 함
- 두 번째로는 사업 내용의 유사성 및 중복성을 띄고 있음.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운영 부처만 다를 뿐 돌봄, 급식 제공,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학습 및 교육 지원 등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또한 대상 또한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 내용과 지원 대상이 유사하다보니 각각의 사업이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세 번째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취약계층 지원 관련 사업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음. 하지만 최근 학력 및 정서 장애를 지닌 아동을 포함하는 등 대상을 확대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취약계층을 다문화·탈북·저소득층 대상에 집중하고 있다는 아쉬운 점이 있음
- 정리하면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 지원 정책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각 기관의 입장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이중 또는 중복 지원 형태를 띄고 있어 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이 필요함
- 다문화가정 학생의 급격한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 증가 등 예상 되는 사회적 환경에 대비한 교육콘텐츠 개발 및 적용, 일반화 보급을 위한 교육전문기관이 필요하며, 지자체-교육청-지역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공공성을 갖춘 아동·청소년 교육 전문기관이 필요함

- 교육청은 모든 학생을 고른 학습성취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학업성취 미도달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지역기관은 교육적 고민과 실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함
- 도청이 지원하는 지역사회기관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 지원정책들이 민·관이 함께 상호협력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나, 도교육청이 시행하는 교육복지사업은 ‘제주형 교육복지’사업을 통해 학교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연계·협력하여 교육복지 실현을 도모하고 있음. 한편 교육복지사업은 개별 학교(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별 운영형태 및 실태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학교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개별 학교 간의 조정, 개별 학교 컨설팅 등의 지원이 요구됨. 이를 위해 교육복지사업과 연계된 지역사회 허브센터의 설립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IV.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 지원 요구 분석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IV.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 지원 요구 분석

1. 조사 개요

가. 조사 설계 및 방법

- 조사 대상자는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기관 2020년 기준 이용자(아동·청소년) 200명 및 관계자 100명, 총 300명을 계획하였고, 실제 아동·청소년 202명, 관계자 101명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됨
- 표집 방법은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기관 현황자료를 근거로 기관유형,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비례할당 표집 하였음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표본 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pm 6.83\%p$ 이고,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기관 관계자의 표본 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pm 5.67\%p$ 임
- 본 연구의 설문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2020년 10월 29일~11월 15일 사이에 전문 조사업체를 통해서 수행되었음

나. 조사 내용

- 설문지는 김경애 외(2014), 이해영 외(2011), 한만길 외(2008), 허미연 외(2012)의 조사 내용을 참고로 연구진이 문항을 추가하여 구성함
- 본 연구를 위한 조사 내용은 <표 IV-1>과 같음(<부록 1> 참조)

〈표 IV-1〉 조사 내용

구분	조사내용	설문 번호	문항 수	
아 동 · 청 소 년 용	기본 정보	· 성별, 나이, 학교 재학여부, 가족관계	1~4	4
	기관 이용 정보	· 이용 중 지역기관	5	2
	사교육 참여 실태	· 학원 / · 개인(그룹)과외 / · 학습지 / · 유료 인터넷 강의 · 수강 여부, 수강 기간	6	2
	교육 참여의 애로사항	· 공부하거나 다양한 교육 받으려 할 때의 애로사항	7	5
	참여한 교육의 도움 정도	· 교육의 중요 정도(교육과정 분류: 5개)	8	5
		· 교육의 우선 순위(교육과정 분류: 5개)	9	5
		· 교육의 도움 정도(교육과정 분류: 5개)	10	5
	지역기관 교육 여건	· 지역기관 교육환경(공간, 교구, 냉난방, 도서 등)	11	6
	가정교육 실태	· 가정 내 교육 실태 (학습관리, 학습지도, 문화예술활동 유무, 온라인 학습 환경)	12	4
	적합한 교육 방법	· 교육방법(7분류)	13	7
지역사회 교육요구	· 지역사회 교육 개선 사항 (교육 요구 제안 제도, 학습공간, 새로운교육과정, 무료 교육 확대, 스스로 학습 여건)	14	5	
온라인 학습 참여 확대의 어려움	· 온라인 학습 참여방법의 불편, 온라인 학습환경의 불충 분, 집중 및 이해력 부족	15	3	
관 계 자 용	소속 기관 정보	· 기관 유형, 소재지, 기관 이용대상자	1~3	4
	소속 기관 역할	· 기관 주요 역할(5분류)	4	5 (우선순위)
	기관의 교육활동 비중	· 기관의 교육활동 비중	5	우선순위
	기관 이용 아동청소년의 교육 실태	· 기관 이용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상황(6분류)	6	5
	지역기관 교육실태	· 교육 중요 정도(교육과정 분류: 5개)	7	5
		· 교육 우선 순위(교육과정 분류: 5개)	8	5
	지역기관 교육 여건	· 지역기관 교육환경(공간, 교구, 냉난방, 도서 등)	9	6
	적합한 교육 방법	· 교육방법(7분류)	10	7
	교육 운영 여건	·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애로사항 (정보, 기획, 강사수급, 학습공간, 예산, 노트북 등 교육 자재)	11	6
	학력격차 해소 방안	· 학력격차 해소 노력 방법 (학교와 지역사회 지원, 교육기회 제공확대, 온라인 학 습 지원, 학습 조력사 양성·지원, 학습코칭 및 컨설팅 지원)	12	5
지역사회에의 요구사항	· 아동청소년의 교육의 질 높이기 위한 개선 사항 (전문교육기관, 제안 제도, 학습공간, 협업체제, 종사자 연수, 교구 지원, 도외 교육 지원)	13	6	
응답자 일반적 사항	· 성별, 연령, 학력, 현 업무의 근무경력	14~17	4	

다. 설문조사 대상자 특성

□ 아동·청소년 응답자

- 아동·청소년 응답자는 총 202명이며, 여자청소년이 54.7%(110명) 남자 청소년이 45.2%(91명)임. 연령대별로는 ‘12세 이상 ~ 13세 미만’이 32.8%로 가장 많음
- 학교 재학 상황은 초등학교 재학중인 청소년이 전체의 57.2%로 가장 많음
- 거주가족은 ‘부모가 있는 가정’이 전체의 60.0%로 가장 많음. ‘한부모 가정’이 전체의 30%로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 현재 이용하고 있는 지역사회기관은 ‘지역아동센터’가 66.8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함.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11.4%로 다음 순으로 나타남

〈표 IV-2〉 아동·청소년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전체		
	빈도	%	
성별	여성	110	54.7
	남성	91	45.3
	합 계	202	100.0
연령	11세 이하	49	24.4
	12세 이상 ~ 13세 이하	66	32.8
	14세 이상 ~ 15세 이하	43	21.4
	16세 이상 ~ 17세 이하	25	12.4
	18세 이상 ~ 19세 이하	10	5.0
	20세 이상	8	4.0
	합 계	201	100.0
재학학교	초등학생	115	57.2
	중학생	58	28.9
	고등학생	9	4.5
	학교밖청소년	13	6.5
	대학생	6	3.0
	합 계	201	100.0
거주가족	부모 가정	120	60
	한부모 가정	60	30
	조손 가정	6	3

	형제자매 가정	5	2.5
	기타	9	4.5
	합 계	200	100.0
이용하고 있는 지역사회기관	지역아동센터	141	66.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24	11.4
	청소년 문화의집/청소년수련원	17	8.1
	대안청소년교육기관	8	3.8
	꿈드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0	4.7
	청소년 쉼터	10	4.7
	드림스타트	1	0.5
	합 계	211	100.0

□ 아동·청소년 교육지원기관 관계자 응답자

- 아동·청소년 교육지원기관 관계자 응답자는 총 101명이며, 여성 80.2%(81명) 남성 19.8%(20명)임. 연령대별로는 ‘50세 이상 ~ 59세 미만’이 31.7%로 가장 많음
- 학력은 ‘대졸 이상’이 전체의 95.0%로 가장 많음
- 근무기간은 ‘5년 미만’이 전체의 36.6%로 가장 많음. ‘10년이상~ 15년 미만’, ‘5년이상 ~ 10년 미만’이 각각 27.7%, 24.3% 순으로 비슷한 비중을 나타냄
- 이용대상자는 ‘초등학생’ 39.3%, ‘중학생’ 32.7%, ‘고등학생’ 14.2% 순으로 나타남
- 현재 직업 유무에서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51.1%임
- 현재 소속기관은 ‘지역아동센터’가 67.3%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함.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11.9%로 다음 순으로 나타남
- 소속기관 소재지를 살펴보면, ‘제주시 동지역’이 4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다음으로 ‘서귀포 동지역’ 22.8%로 나타남. ‘제주시’ 지역 61.4%, ‘서귀포’ 지역 38.6%로 나타남

〈표 IV-3〉 아동·청소년 교육지원기관 관계자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전체	
		빈도	%
성별	여성	81	80.2
	남성	20	19.8
	합 계	101	100.0
연령	29세 이하	17	16.8
	30세 이상 ~ 39세 이하	20	19.8
	40세 이상 ~ 49세 이하	23	22.8
	50세 이상 ~ 59세 이하	32	31.7
	60세 이상	9	8.9
	합 계	101	100.0
최종학력	고졸이하	5	5.0
	대졸이상	96	95.0
	합 계	101	100.0
근무기간	5년미만	37	36.6
	5년이상 ~ 10년 미만	25	24.8
	10년 이상 ~ 15년 미만	28	27.7
	15년 이상 ~ 20년 미만	6	5.9
	20년 이상	5	5.0
	합 계	101	100.0
이용대상자	초등학생	83	39.3
	중학생	69	32.7
	고등학생	30	14.2
	학교밖청소년	14	6.6
	기타	15	7.1
	합 계	211	100.0
소속기관	지역아동센터	68	67.3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2	11.9
	청소년 문화의집/청소년수련원	6	5.9
	대안청소년교육기관	3	3.0
	꿈드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4	4.0
	청소년 쉼터	6	5.9
	청소년문화카페	2	2.0
	합 계	101	100.0
소속기관소재지	제주시 동지역	47	46.5
	제주시 읍면지역	15	14.9
	서귀포시 동지역	23	22.8
	서귀포시 읍면지역	16	15.8
	합 계	101	100.0

2. 조사 결과

가.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 요구 설문조사 결과

- 학교교육 외에 받고 있는 교육(사교육) 참여 현황
- 지역사회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사교육 수강여부, 개인과외 과목, 학습지과목, 유료 인터넷 강의 과목에 관한 수강 여부를 알아보았음
- 지역사회 기관을 이용하면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전체의 50.2%로 나타남
- 학원에서 가장 많이 수강하는 과목은 수학(36.6%), 영어(29.6%)가 전체의 66%로 나타났고, 예체능 학원을 수강하는 청소년은 전체의 21.1%로 나타남
- 개인과외과목을 살펴본 결과 개인과외 과목은 영어(29.8%), 수학(28.1%), 국어(19.3%) 순으로 나타남. 국어 과목에 대한 과외가 영어와 수학보다 많은 편임
- 구독하고 있는 학습지는 수단이 전체의 49.4%로 대상자의 절반 가량이 수학과목 학습지를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영어(18.5%), 국어(16.0%) 순으로 나타남

〈표 IV-4〉 응답자의 학교교육 외에 받고 있는 교육 참여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	
		빈도	%
사교육 수강여부	없음	100	49.8
	있음	101	50.2
	합 계	201	100.0
학원 수강 과목	국어	4	5.6
	영어	21	29.6
	수학	26	36.6
	사회	2	2.8
	과학	3	4.2
	예체능	15	21.1
	합 계	71	100.0
	개인과외 과목	국어	11
영어		17	29.8
수학		16	28.1
사회		4	7.0

IV.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 지원 요구 분석

	과학	6	10.5
	예체능	3	5.3
	합 계	57	100.0
학습지 과목	국어	13	16.0
	영어	15	18.5
	수학	40	49.4
	사회	6	7.4
	과학	6	7.4
	예체능	1	1.2
	합 계	81	100.0
	유료 인터넷 강의 과목	국어	14
영어		17	23.6
수학		15	20.8
사회		11	15.3
과학		13	18.1
예체능		2	2.8
합 계		72	100.0

□ 학교교육 외에 받고 있는 교육(사교육) 참여 기간 특성

- 지역사회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원, 과외, 학습지 등 사교육을 할 때 일주일 단위로 학원 이용횟수, 1회당 교육 이용시간 등을 자세히 알아봄
- 일주일 단위로 학원을 이용하는 횟수를 살펴본 결과 주 5일 동안 매일 학원을 다니는 청소년이 전체의 32.0%로 가장 많고, 1회당 이용시간은 1시간이상~2시간 이하로 수업을 받는 청소년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3%로 나타남
- 일주일간 개인과외 이용횟수는 1회가 37.5%로 가장 많고, 2회가 29.2%로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개인과외 1회 이용시간은 전체의 54.1%가 1시간 이상 2시간 이하로 과외 수업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일주일간 학습지 이용횟수는 주1회가 전체의 41.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5회 학습지 수업도 전체의 34.9%로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학습지 1회 평균 이용시간은 1시간 이상 ~2시간 이하로 수업을 받는 경우가 65.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표 IV-5〉 응답자의 학교교육 외에 받고 있는 교육 참여 기간 특성

(단위 : 명, %)

구분		전체		구분		전체	
		빈도	%			빈도	%
일주 일간 학원 이용 횟수	1회	10	20.0	일주 일간 학습지 이용 횟수	1회	18	41.9
	2회	7	14.0		2회	4	9.3
	3회	10	20.0		3회	3	7.0
	4회	4	8.0		4회	0	0
	5회	16	32.0		5회	15	34.9
	6회	2	4.0		6회	1	2.3
	7회	1	2.0		7회	2	4.7
	합 계	50	100.0		합 계	43	100.0
학원 평균 1회 이용 시간	1시간 이하	3	6.0	학습지 1회 평균 이용 시간	1시간 이하	5	11.6
	1시간 이상 ~ 2시간 이하	26	53.0		1시간 이상 ~ 2시간 이하	28	65.1
	2시간 이상 ~ 3시간 이하	11	22.4		2시간 이상 ~ 3시간 이하	5	11.6
	3시간 이상 ~ 4시간 이하	5	10.2		3시간 이상 ~ 4시간 이하	1	2.3
	5시간 이상	4	8.2		5시간 이상	4	9.3
	합 계	49	100.0		합 계	43	100.0
일주 일간 개인 과외 이용 횟수	1회	9	37.5	일주 일간 인터넷 강의 이용 횟수	1회	4	21.1
	2회	7	29.2		2회	1	5.3
	3회	4	16.7		3회	3	15.8
	4회	2	8.3		4회	1	5.3
	5회	1	4.2		5회	5	26.3
	6회	1	4.2		6회이상	5	26.4
	합 계	24	100.0		합 계	19	100.0
개인 과외 1회 이용 시간	1시간 이하	1	4.2	인터넷 강의 1회 이용 시간	1시간 이하	1	5.6
	1시간 이상 ~ 2시간 이하	25	54.1		2시간 이하	13	72.3
	2시간 이상 ~ 3시간 이하	7	29.1		3시간 이하	1	5.6
	3시간 이상 ~ 4시간 이하	3	12.6		4시간 이하	3	16.7
	합 계	24	100.0		합 계	18	100.0

□ 스스로 공부하기와 교육 참여시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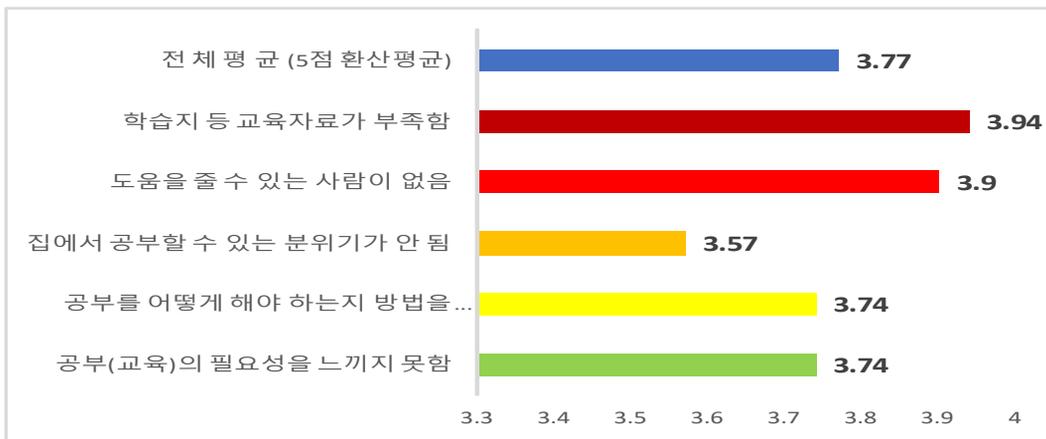
- ‘스스로 공부하거나 다양한 교육을 받으려고 할 때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이 5점 만점에 3.77점으로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나타냄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습지 등 교육 자료가 부족함’ 영역이 평균 3.94로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인지하고 있음. 뒤이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이 평균 3.90,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음’이 각각 평균 3.74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학습에 대한 의지나 교육 여건이 부족한 상황임

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V-6〉 스스로 공부하기와 교육 참여시 애로사항

(단위 : 평균, 표준편차)

내용	구분	
	M	SD
공부(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3.74	1.10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음	3.74	1.14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됨	3.57	1.18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음	3.90	1.12
학습지 등 교육자료가 부족함	3.94	1.03
전 체 평 균 (5점 환산평균)	3.77	1.11



[그림 IV-1] 스스로 공부하기와 교육 참여시 애로사항

□ 교육 영역별 중요성 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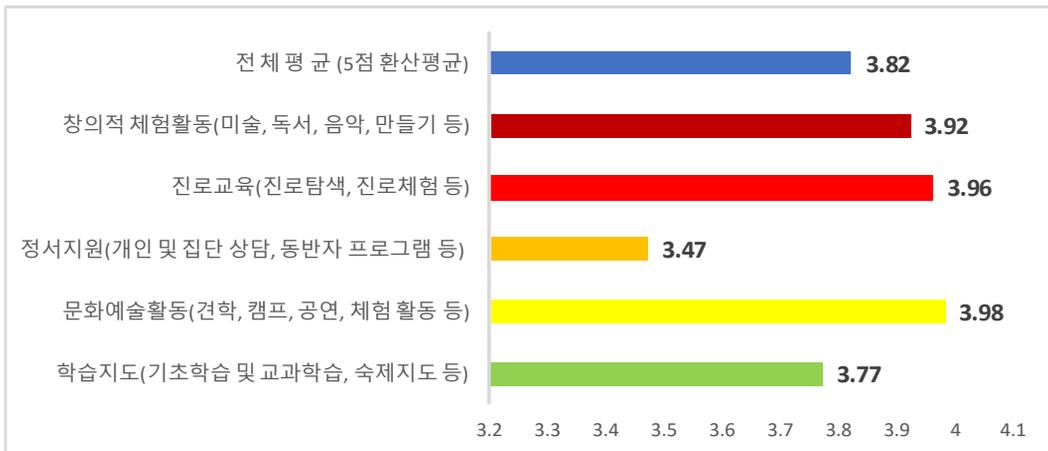
- ‘교육영역별 중요성’을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이 5점 만점에 3.82점으로 교육 중요성은 ‘보통’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예술활동(견학, 캠프, 공연, 체험 활동 등)’영역에서 평균 3.98로 교육의 중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진로교육(진로탐색, 진로체험 등) 영역에서 평균 3.96의 중요도를 나타냄
- 뒤이어 ‘창의적 체험활동(미술, 독서, 음악, 만들기 등)’이 평균 3.92, 학습지도(기초학습 및 교과학습, 숙제지도 등)이 3.77 순으로 나타남

- 교육지원기관의 관계자들이 인지하는 교육의 중요성 보다 기관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더 높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7〉 교육 영역별 중요성 인식 정도

(단위 : 평균, 표준편차)

내용	구분	
	M	SD
학습지도(기초학습 및 교과학습, 숙제지도 등)	3.77	0.96
문화예술활동(견학, 캠프, 공연, 체험 활동 등)	3.98	0.92
정서지원(개인 및 집단 상담, 동반자 프로그램 등)	3.47	1.01
진로교육(진로탐색, 진로체험 등)	3.96	0.94
창의적 체험활동(미술, 독서, 음악, 만들기 등)	3.92	1.02
전 체 평 균 (5점 환산평균)	3.82	0.97



[그림 IV-2] 교육영역별 중요성 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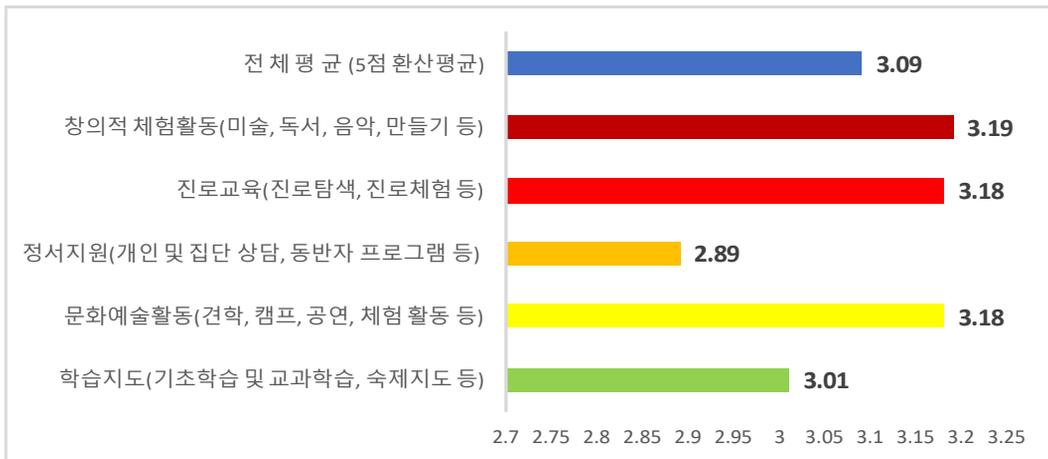
- 영역별 교육 제공에 대한 시급성 인식 정도
- ‘영역별 교육 제공의 시급성’ 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이 5점 만점에 3.09점으로 소속기관의 아동·청소년들이 인식하는 ‘교육 제공의 시급성 정도는 ’3점-보통이다’ 수준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창의적 체험활동(미술, 독서, 음악, 만들기 등)’이 평균 3.19점으로 가장 시급한 교육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뒤이어 ‘진로교육(진로탐색, 진로체험 등)’, ‘문화예술활동(견학, 캠프, 공연, 체험활동)’이 동일하게 평균 3.18 순으로 나타남. 다음

은 학습지도(기초학습 및 교과학습, 숙제지도 등)이 3.01이고, 정서지원(개인 및 집단 상담, 동반자 프로그램 등)이 2.89로 제일 낮게 나타남

〈표 IV-8〉 영역별 교육 제공에 대한 시급성 인식 정도

(단위 : 평균, 표준편차)

내용	구분	
	M	SD
학습지도(기초학습 및 교과학습, 숙제지도 등)	3.01	0.91
문화예술활동(견학, 캠프, 공연, 체험 활동 등)	3.18	1.01
정서지원(개인 및 집단 상담, 동반자 프로그램 등)	2.89	0.93
진로교육(진로탐색, 진로체험 등)	3.18	0.91
창의적 체험활동(미술, 독서, 음악, 만들기 등)	3.19	1.08
전 체 평 균 (5점 환산평균)	3.09	0.96



[그림 IV-3] 영역별 교육 제공에 대한 시급성 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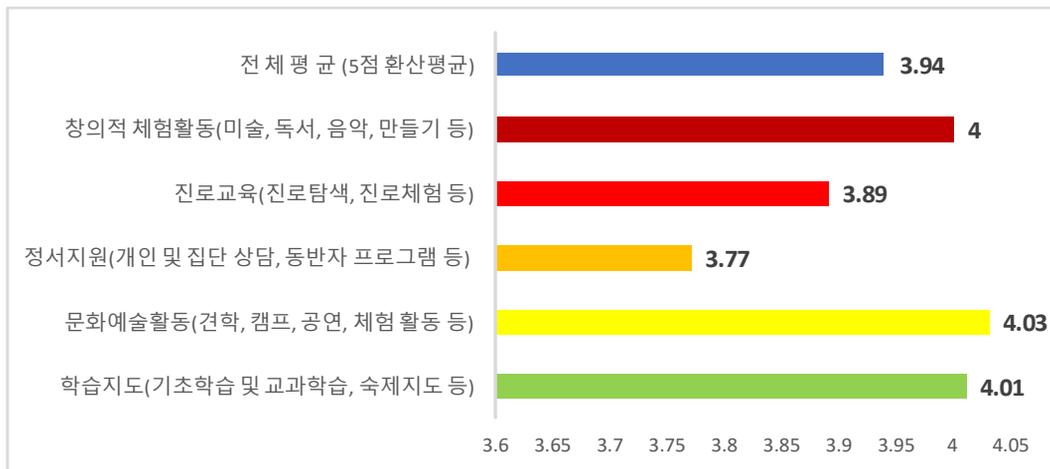
□ 학교 외 지역사회기관의 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

- ‘학교 외 지역사회기관의 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이 5점 만점에 3.94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예술활동(견학, 캠프, 공연, 체험활동)’ 영역에 대한 평가가 평균 4.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습지도(기초학습 및 교과 학습, 숙제지도 등) 영역이 평균 4.01로 다음으로 높이 평가됨. 그 다음으로 ‘창의적 체험활동(미술, 독서, 음악, 만들기 등)’이 평균 4.00 순으로 나타남

〈표 IV-9〉 학교 외 지역사회기관의 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

(단위 : 평균, 표준편차)

내용	구분	
	M	SD
학습지도(기초학습 및 교과학습, 숙제지도 등)	4.01	0.86
문화예술활동(견학, 캠프, 공연, 체험 활동 등)	4.03	0.94
정서지원(개인 및 집단 상담, 동반자 프로그램 등)	3.77	0.99
진로교육(진로탐색, 진로체험 등)	3.89	0.90
창의적 체험활동(미술, 독서, 음악, 만들기 등)	4.00	0.97
전 체 평 균 (5점 환산평균)	3.94	0.93



[그림 IV-4] 학교 외 지역사회기관의 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

□ 지역사회 기관의 교육환경 만족도

- ‘내가 다니는 지역사회 기관의 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 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이 5점 만점에 평균 4.26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임
- 세부적으로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들은 ‘냉·난방시설이 좋음’ 영역이 평균 4.39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음. 이어 ‘책상, 의자 등 교육 받을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있음’이 평균 4.35, ‘기관내 언제든지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있음’이 평균 4.30 순으로 나타남

〈표 IV-10〉 지역사회 기관의 교육환경 만족도

(단위 : 평균, 표준편차)

내용	구분	
	M	SD
아동·청소년의 학습지도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함	4.21	0.87
기관 내 언제든지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있음	4.30	0.84
책상, 의자 등 교육받을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있음	4.35	0.80
컴퓨터 등 멀티미디어 교육 장치가 충분함	4.03	0.96
냉난방 시설이 좋음	4.39	0.76
학습 도움 책이나 읽을 만한 책이 많음	4.29	0.91
전 체 평 균 (5점 환산평균)	4.26	0.85



[그림 IV-5] 지역사회 기관의 교육환경 만족도

□ 가정에서의 교육 지원 현황

- ‘가정의 교육 지원에 대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이 5점 만점에 평균 3.39점으로 ‘보통’ 수준을 조금 넘어서는 응답을 나타냄
- 이는 살펴본 소속 기관의 만족도에 비해 낮은 만족도임. 소속기관의 교육환경이 가정에 서보다 아동·청소년들의 교육지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 세부적으로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온라인 학습을 잘 받을 수 있게 컴퓨터, 인터넷, 설치 등이 잘 되어 있음’ 영역이 평균 4.05로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가족(부모님)이 나의 숙제 지도 및 학습 지도를 해줌’영역이 평균 2.95 점으로 ‘보통’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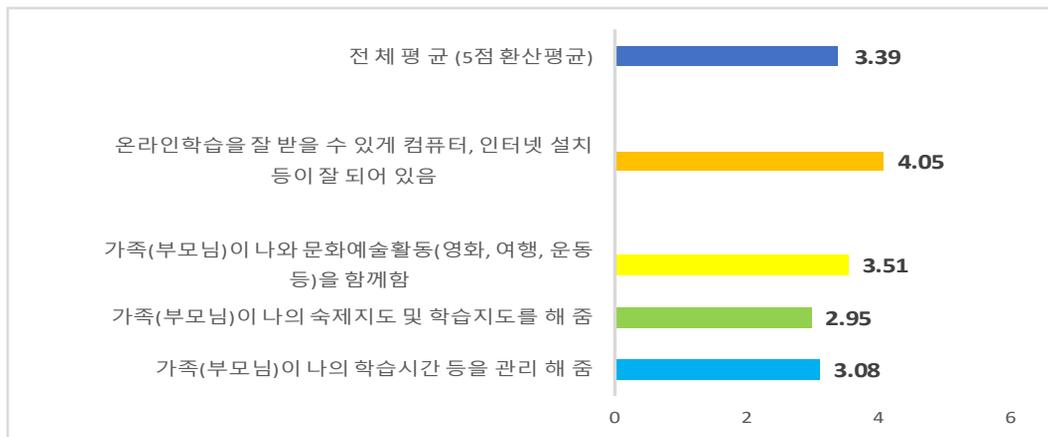
에 미치지 못하는 만족도를 보임

- 그리고 ‘가족(부모님)이 나와 문화예술활동(영화, 여행, 운동 등)을 함께 함’ 영역이 평균 3.51, 다음이 ‘가족(부모님)이 나의 학습시간 등을 관리해 줌’이 3.08 순으로 만족도 수준을 나타냄

[표 IV-11] 가정에서의 교육 지원 현황

(단위 : 평균, 표준편차)

내용	구분	
	M	SD
가족(부모님)이 나의 학습시간 등을 관리 해 줌	3.08	1.23
가족(부모님)이 나의 숙제지도 및 학습지도를 해 줌	2.95	1.22
가족(부모님)이 나와 문화예술활동(영화, 여행, 운동 등)을 함께 함	3.51	1.19
온라인학습을 잘 받을 수 있게 컴퓨터, 인터넷 설치 등이 잘 되어 있음	4.05	1.06
전 체 평 균 (5점 환산평균)	3.39	1.17



[그림 IV-6] 가정에서의 교육 지원 현황

□ 교육방법에 대한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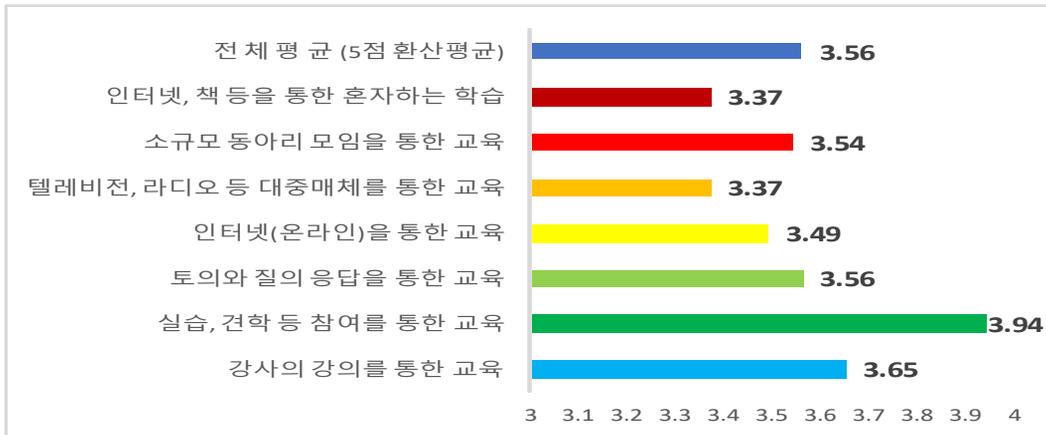
- ‘교육방법에 대한 적합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이 5점 만점에 평균 3.56점으로 조사대상자들이 아동·청소년의 교육의 적합도 정도를 ‘보통’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습, 견학 등 참여를 통한 교육’영역이 평균 3.94으로 교육의 적합도에 있어 가장 높게 인지하고 있음. 이어서 ‘강사의 강의를 통한 교육’이 평균 3.65,

‘토의와 질의 응답을 통한 교육’이 평균 3.56 순으로 나타남. 특히, ‘인터넷, 책 등을 통한 혼자하는 학습’, ‘텔레비전, 라디오 등 대중 매체를 통한 교육 방법은 각 평균 3.37로 비교적 낮은 교육의 적합도를 나타냄

〈표 IV-12〉 교육방법에 대한 적합도

(단위 : 평균, 표준편차)

내용	구분	
	M	SD
강사의 강의를 통한 교육	3.65	0.89
실습, 견학 등 참여를 통한 교육	3.94	0.91
토의와 질의 응답을 통한 교육	3.56	0.99
인터넷(온라인)을 통한 교육	3.49	1.01
텔레비전,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	3.37	1.01
소규모 동아리 모임을 통한 교육	3.54	1.01
인터넷, 책 등을 통한 혼자하는 학습	3.37	1.09
전 체 평 균 (5점 환산평균)	3.56	0.98



[그림 IV-7] 교육방법에 대한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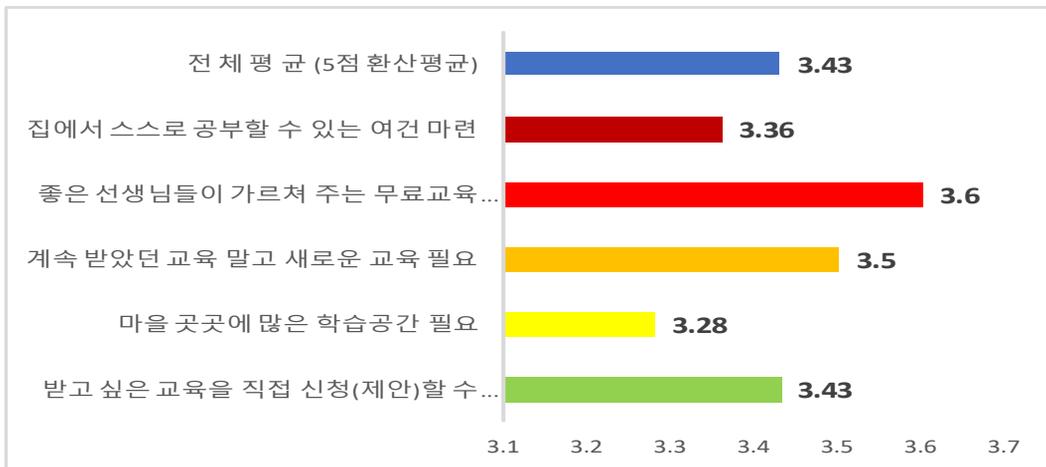
- 학교 외에서 필요한 교육을 편리하게 받기 위한 여건
- ‘학교 외에서 필요한 교육을 편리하게 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를 살펴본 결과 평균 5점 만점에 평균 3.43점으로 조사대상자들이 아동·청소년의 교육의 적합도 정도를 ‘보통’ 수준보다 높게 인지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좋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무료 교육 많이 개설’영역이 평균

3.60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계속 받았던 교육 말고 새로운 교육 필요’ 영역이 평균 3.50으로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음. 좋은 선생님들의 좋은 교육과 새로운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받고 싶은 교육을 직접 신청(제안) 할 수 있는 제도’가 평균 3.43, ‘집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마련’ 3.36, ‘마을 곳곳에 많은 학습공간 필요’가 3.28 순으로 나타남

〈표 IV-13〉 학교 외에서 필요한 교육을 편리하게 받기 위한 여건

(단위 : 평균, 표준편차)

내용	구분	
	M	SD
받고 싶은 교육을 직접 신청(제안)할 수 있는 제도	3.43	0.91
마을 곳곳에 많은 학습공간 필요	3.28	0.97
계속 받았던 교육 말고 새로운 교육 필요	3.50	0.91
좋은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무료교육 많이 개설	3.60	0.91
집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마련	3.36	0.95
전 체 평 균 (5점 환산평균)	3.43	0.93



[그림 IV-8] 학교 외에서 필요한 교육을 편리하게 받기 위한 여건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온라인 학습 참여 확대에 따른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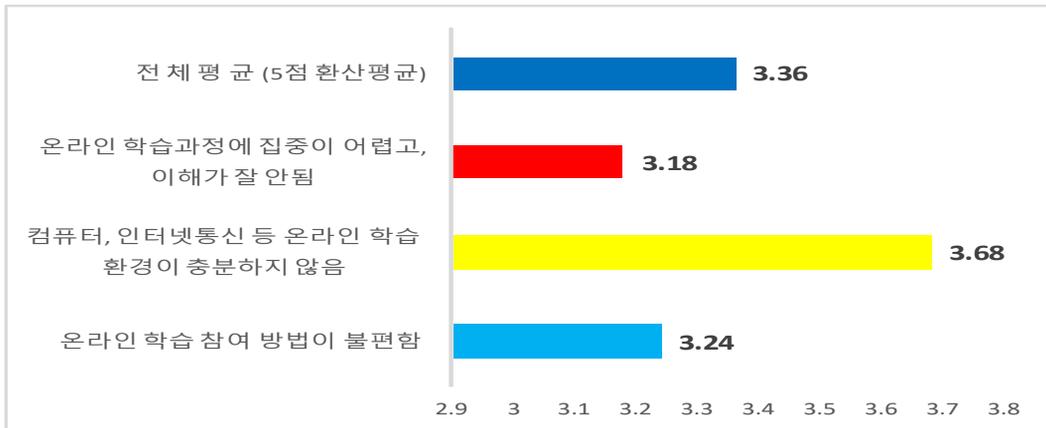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온라인 학습 참여 확대에 따른 어려움’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평균 5점 만점에 평균 3.36점으로 ‘3점-보통이다’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컴퓨터, 인터넷 통신 등 온라인 학습 환경이 충분하지 않음’ 영역이 평균 3.66으로 가장 어려움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 온라인 수업의 확대에 온라인 수업을 위한 기반 시설의 보급 확대가 시급함을 알 수 있음
- 뒤이어 ‘온라인 학습 참여 방법이 불편함’ 영역이 평균 3.24, ‘온라인 학습 과정이 집중하기 어렵고 이해가 잘 안됨’ 영역이 평균 3.18 순으로 나타남. 이와 같이 ‘온라인 학습 과정에 집중이 어렵고, 이해가 잘 안됨’의 문제보다 온라인 학습 환경의 불충분이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학습 환경이 좀더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V-14〉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온라인 학습 참여 확대에 따른 어려움

(단위 : 평균, 표준편차)

내용	구분	
	M	SD
온라인 학습 참여 방법이 불편함	3,24	1,22
컴퓨터, 인터넷통신 등 온라인 학습 환경이 충분하지 않음	3,68	1,11
온라인 학습과정에 집중이 어렵고, 이해가 잘 안됨	3,18	1,21
전 체 평 균 (5점 환산평균)	3,36	1,18



〔그림 IV-9〕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온라인 학습 참여 확대에 따른 어려움

- 아동청소년 특성에 따른 조사결과 분석
- 응답한 아동·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속 기관의 아동·청소년 교육에 대한 전반적 경향의 차이를 살펴봄($p < .05$). 일반적 특성은 조사 대상자의 ‘성별’, ‘연령’, ‘재학

중 학교’, ‘거주가족’, ‘학교 외 지역사회기관’등 5개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봄. 아동·청소년 교육에 따른 전반적 경향은 ‘다양한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문제점’, ‘교육의 중요성’, ‘아동·청소년 교육의 시급한 교육정도’, ‘지역사회에서 받는 교육 평가’, ‘지역사회 기관의 환경평가’, ‘가정내 환경평가’, ‘교육 방법의 적합성’, ‘편리하게 교육을 받기 위한 교육 방법’ 등을 살펴봄

- 그 결과 응답한 아동·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5개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대부분의 설문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p < .05$). 다만 응답한 아동·청소년들의 몇 가지 변수가 되는 특성은 교육지원을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스스로 공부하거나 다양한 교육을 받으려고 할 때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영역에서는 5개 영역 공통적으로 ‘여성’, ‘11세 이하’, ‘초등학생’, ‘형제자매 가족’, ‘지역아동센터’와 ‘꿈드림’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스스로 공부하거나 다양한 교육을 받으려고 할 때 애로사항’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게 나타남. 따라서 응답한 아동·청소년들의 이러한 변수는 앞으로 교육지원 기관의 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매우 고려되어야 할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음

〈표 IV-15〉 스스로 공부하기와 교육참여시 애로사항

(단위 : 평균, 편차)

구분		①	②	③	④	⑤
성별	여성	3.81(1.05)	3.83(1.13)	3.64(1.13)	3.94(1.12)	4.05(0.93)
	남성	3.66(1.15)	3.63(1.15)	3.48(1.24)	3.85(1.13)	3.79(1.12)
연령	11세 이하	4.10(1.06)	4.31(0.89)	3.76(1.21)	4.22(1.15)	4.39(1.04)
	12세 이상 ~ 13세 이하	3.77(1.04)	4.08(0.93)	3.79(1.13)	4.03(1.03)	4.00(1.02)
	14세 이상 ~ 15세 이하	3.63(1.00)	2.95(1.19)	3.49(1.16)	3.77(1.13)	3.77(1.02)
	16세 이상 ~ 17세 이하	3.40(1.15)	3.28(1.02)	3.08(1.03)	3.36(1.11)	3.56(0.96)
	18세 이상 ~ 19세 이하	3.30(1.49)	3.50(1.50)	3.10(1.44)	3.50(1.35)	3.80(1.03)
	20세 이상	3.50(1.06)	3.38(0.74)	3.13(1.24)	3.63(0.74)	3.50(0.75)
재학 학교	초등학생	3.91(1.06)	4.17(0.92)	3.77(1.16)	4.11(1.09)	4.12(1.03)
	중학생	3.53(1.08)	3.00(1.17)	3.36(1.11)	3.67(1.09)	3.72(0.98)
	고등학생	3.22(1.20)	3.44(1.33)	3.00(1.11)	3.11(1.16)	3.33(1.11)
	학교밖청소년	3.85(0.98)	3.69(0.75)	3.38(1.19)	3.69(1.10)	3.62(0.87)
	대학생	3.00(1.41)	3.00(1.26)	2.83(1.72)	3.50(1.37)	4.00(0.89)
거주 가족	부모 가정	3.80(1.08)	3.72(1.13)	3.52(1.19)	3.93(1.12)	3.89(1.10)
	한부모 가정	3.73(1.07)	3.88(1.12)	3.63(1.19)	3.87(1.22)	4.12(0.88)
	조손 가정	4.00(1.09)	3.67(1.21)	3.67(1.36)	3.83(0.98)	3.67(1.03)
	형제자매 가정	3.80(1.30)	4.20(0.83)	4.00(1.73)	4.40(0.89)	4.40(0.89)
	기타	2.78(1.20)	3.00(1.32)	3.56(0.72)	3.44(0.72)	3.33(0.70)

IV.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 지원 요구 분석

학교 외 지역 사회 기관	지역아동센터	3.82(1.07)	3.87(1.13)	3.62(1.21)	4.00(1.11)	4.03(1.03)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3.79(1.02)	3.62(0.96)	3.58(1.21)	3.79(1.31)	3.87(1.07)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3.64(1.16)	3.47(1.23)	3.41(1.27)	3.82(1.01)	3.82(0.95)
	대안청소년교육기관	3.25(1.38)	3.37(1.06)	2.75(1.16)	2.87(0.99)	3.25(1.16)
	꿈드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4.00(1.05)	3.50(1.17)	3.30(1.25)	4.00(1.05)	3.90(0.73)
	청소년 쉼터	2.54(1.21)	2.90(1.22)	3.45(1.12)	3.36(1.12)	3.27(1.10)

*p<.05, **p<.01, ***p<.001

- ①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 ②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음
- ③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가 안됨
- ④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음
- ⑤ 학습지등 교육 자료가 부족함

- ‘영역별 교육의 시급성 인식 정도’에서도 공통적으로 ‘여성’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영역별 교육의 시급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학교밖 청소년’이 세 영역, 즉 ⑤ 창의적 체험 활동(미술, 독서, 음악, 만들기 등), ② 문화예술활동(견학, 캠프 공연, 체험, 활동 등), ③ 정서지원(개인 및 집단상담, 동반자 프로그램 등)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교육의 시급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 외 지역사회기관의 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에서도 공통적으로 ‘여성’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기관은 5개 영역, 즉 ① 학습지도(기초학습 및 교과학습, 숙제지도 등), ② 문화예술활동(견학, 캠프 공연, 체험, 활동 등), ③ 정서지원(개인 및 집단상담, 동반자 프로그램 등), ④ 진로교육(진로 탐색, 진로체험 등), ⑤ 창의적 체험 활동(미술, 독서, 음악, 만들기 등)에서 고루 제공받은 교육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남
- ‘지역사회 기관의 교육환경 만족도’에 대해서도 5개 영역, 즉 ① 아동 청소년의 학습지도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함, ② 기관내 언제든지 학습에 도움을 줄 선생님이 있다, ③ 책상, 의자 등 교육받을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있다, ④ 컴퓨터 등 멀티미디어 교육 장치가 충분함, ⑤ 냉 난방 시설이 좋다, ⑥ 학습 도움 책이나 읽을 만한 책이 많다 에서 ‘여성’집단이 남성집단에 비해 교육환경 만족도 평가가 높게 나타남. 또 꿈드림(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 기관의 교육환경 만족도 평가에서 3개의 영역, ③ 책상, 의자 등 교육받을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있다, ① 아동 청소년의 학습지도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함, ④ 컴퓨터 등 멀티미디어 교육 장치가 충분함에서 가장 높게 평가함

- ‘코로나와 관련하여 온라인 학습 참여 확대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서 여성, 14세이상 ~15세 이하, 중학생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평균값이 높게 나타남. 특히 대체로 ② 컴퓨터 인터넷 통신 등 온라인 학습 환경이 충분하지 않음이 ① 온라인 학습 참여 방법이 불편함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IV-16〉 코로나 19 관련 학습참여 확대에 따른 어려움

(단위 : 평균, 편차)

구분		①	②	③
성별	여성	3.24(1.18)	3.80(1.03)	3.21(1.20)
	남성	3.25(1.27)	3.54(1.19)	3.14(1.23)
연령	11세 이하	3.35(1.23)	3.51(1.15)	3.24(1.19)
	12세 이상 ~ 13세 이하	3.30(1.33)	3.82(1.16)	3.55(1.23)
	14세 이상 ~ 15세 이하	3.37(1.09)	3.95(1.02)	2.86(1.20)
	16세 이상 ~ 17세 이하	3.04(1.09)	3.60(0.81)	2.76(0.97)
	18세 이상 ~ 19세 이하	2.50(1.26)	3.20(1.22)	2.70(1.33)
	20세 이상	3.00(1.06)	3.00(1.30)	3.38(1.06)
재학 학교	초등학생	3.32(1.28)	3.69(1.16)	3.42(1.22)
	중학생	3.36(1.05)	3.90(0.98)	2.90(1.11)
	고등학생	3.11(0.92)	3.11(0.78)	2.78(1.09)
	학교밖청소년	2.62(1.38)	3.77(0.83)	2.92(1.38)
	대학생	2.17(0.75)	2.17(1.16)	2.50(1.04)
거주 가족	부모 가정	3.24(1.22)	3.64(1.18)	3.18(1.18)
	한부모 가정	3.18(1.30)	3.78(0.97)	3.30(1.28)
	조손 가정	3.67(1.03)	4.00(0.89)	3.00(1.09)
	형제자매 가정	3.20(1.09)	4.00(1.00)	2.20(1.30)
	기타	3.33(1.00)	3.00(1.22)	3.11(1.26)
학교 외 지역 사회 기관	지역아동센터	3.37(1.24)	3.73(1.13)	3.28(1.23)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3.00(1.14)	3.83(1.00)	3.08(1.05)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3.29(0.98)	3.64(0.86)	3.00(1.06)
	대안청소년교육기관	2.75(1.28)	3.25(1.38)	3.00(1.41)
	꿈드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30(1.25)	3.50(0.97)	2.60(1.26)
	청소년 쉼터	3.36(1.12)	3.27(1.27)	3.18(1.32)

*p<.05, **p<.01, ***p<.001

- ① 온라인 학습 참여 방법이 불편함
- ② 컴퓨터 인터넷 통신등 온라인 학습 환경이 충분하지 않음
- ③ 온라인 학습 과정에 집중이 어렵고, 이해가 잘 안됨

나. 아동·청소년 교육지원기관 관계자의 조사 결과

□ 기관의 역할

- ‘소속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1순위에서는 ‘방과후 돌봄(부모 대리적 보호자 역할)’이 67.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건강한 문화 공간의 역할’ 10.9%, ‘정서 및 사회적 발달 지원’ 8.9% 순으로 나타남. 2순위, 3순위에서는 ‘정서 및 사회적 발달 지원’이 44.6%, 2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V-17〉 기관의 역할

(단위 : 명, %)

	1순위		2순위		3순위	
	명	%	명	%	명	%
방과후 돌봄(부모 대리적 보호자역할)	68	67.3	7	6.9	6	5.9
정서 및 사회적 발달 지원	9	8.9	45	44.6	27	26.7
학업성취 및 학습지도	3	3.0	20	19.8	24	23.8
보호와 상담 역할	7	6.0	18	17.8	26	25.7
건강한 문화공간의 역할	11	10.9	10	9.9	17	16.8
가정 및 사회복귀	1	1.0	0	0.0	0	0.0
동아리 활동 및 네트워크 사무국	1	1.0	1	1.0	1	1.0
사회복귀	1	1.0	0	0.0	0	0.0
청소년의 주도적 창의적 체험활동	0	0.0	1	1.0	1	1.0
합 계	101	100.0	101	100.0	101	100.0

□ 기관이 운영 중인 교육활동 비중

- ‘기관이 운영 중인 교육활동 비중’에 대하여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1순위에서는 ‘학습지도(기초학습 및 교과학습, 숙제지도 등)’가 45.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정서지원(개인 및 집단 상담, 동반자 프로그램)’15.8%, ‘창의적 체험활동(미술, 독서, 음악, 만들기 등)’ 14.9%, ‘문화예술활동(견학, 캠프, 공연, 체험활동 등)’ 13.9% 순으로 나타남
- 2순위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미술, 독서, 음악, 만들기 등)’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남. ‘문화예술활동(견학, 캠프, 공연, 체험활동 등)’이 25.7%, ‘학습지도(기초학습 및 교과학습, 숙제지도 등)’가 17.8% 순으로 나타남

- 3순위에서는 ‘문화예술활동(견학, 캠프, 공연, 체험활동 등)’이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V-18〉 소속 기관이 운영 중인 교육활동 비중

(단위 : 명, %)

	1순위		2순위		3순위	
	명	%	명	%	명	%
학습지도(기초학습 및 교과학습, 숙제지도 등)	45	44.6	18	17.8	11	10.0
문화예술활동(견학, 캠프, 공연, 체험활동 등)	14	13.9	26	25.7	32	31.7
정서지원(개인 및 집단상담, 동반자 프로그램)	16	15.8	16	15.8	24	23.8
진로교육(진로탐색, 진로체험 등)	6	5.9	12	11.9	6	5.9
창의적 체험활동(미술, 독서, 음악, 만들기 등)	15	14.9	29	28.7	28	27.7
기본 생활습관(예절, 위생, 안전 등)	1	1.0	0	0.0	0	0.0
놀이	1	1.0	0	0.0	0	0.0
동아리 활동 및 네트워크사무국	1	1.0	0	0.0	0	0.0
일새생활(인성, 예절) 교육	1	1.0	0	0.0	0	0.0
학습 숙려, 바리스타 특강 외 인문학 관련 강좌 개설	1	1.0	0	0.0	0	0.0
합 계	101	100.0	101	100.0	10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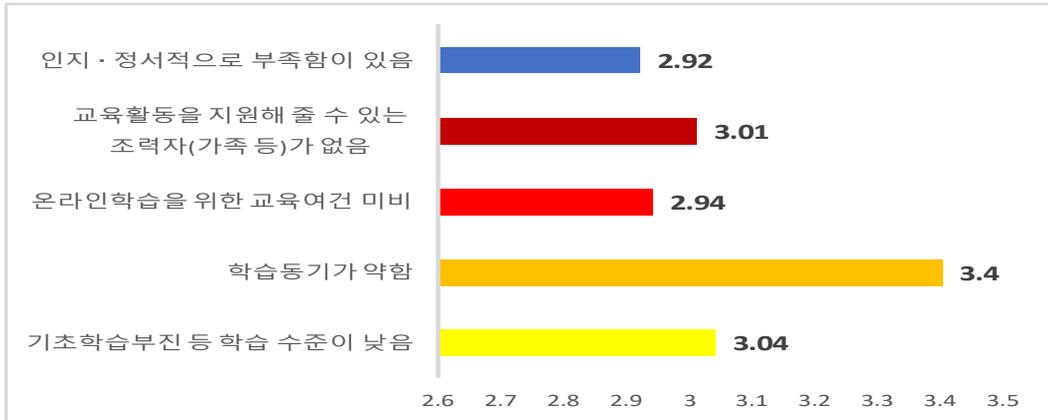
□ 기관 이용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상황

- 기관의 관계자들에게 ‘소속 기관 이용 아동·청소년의 교육상황 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이 5점 만점에 3.06점으로 보통이다’ 수준을 나타냄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관계자들은 ‘학습동기가 약함’ 영역에서 교육상황이 가장 좋지 않다고 인지하고 있음. ‘학습동기가 약함’이 평균 3.40(0.93), ‘기초학습부진 등 학습 수준이 낮음’이 평균 3.04(0.86), ‘교육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력자(가족 등)가 없음’이 평균 3.01(1.05) 순으로 나타남

〈표 IV-19〉 소속 기관 이용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상황

(단위 : 평균, 표준편차)

내용	구분	
	M	SD
기초학습부진 등 학습 수준이 낮음	3.04	0.86
학습동기가 약함	3.40	0.93
온라인학습을 위한 교육여건 미비(컴퓨터 구비 및 활용법 숙지 부족 등)	2.94	1.02
교육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력자(가족 등)가 없음	3.01	1.05
인지·정서적으로 부족함이 있음	2.92	0.88
전 체 평 균 (5점 환산평균)	15.3(3.06)	



[그림 IV-10] 소속 기관 이용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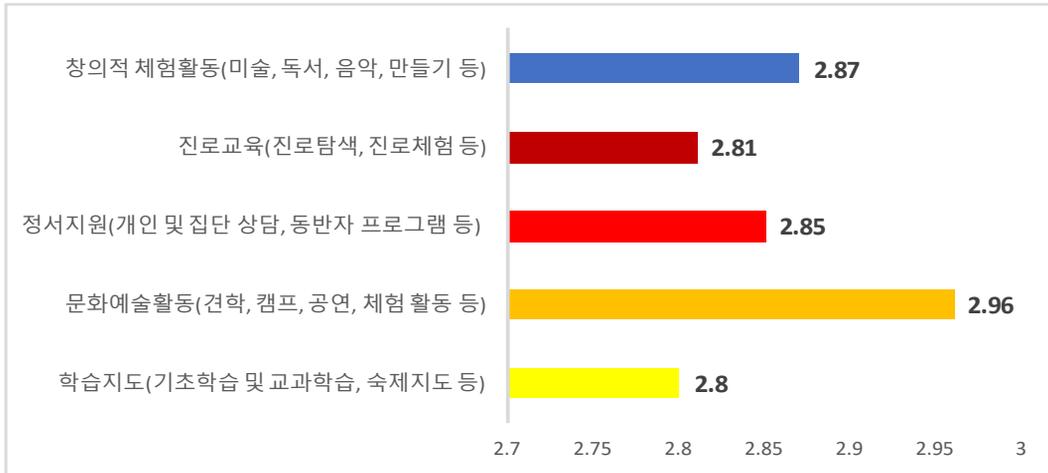
□ 기관 이용 아동·청소년의 교육 영역별 중요성 인식 정도

- 소속 기관 이용 ‘아동·청소년의 교육 영역별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이 5점 만점에 2.49점으로 소속기관의 관계자들이 아동·청소년의 교육 중요도를 ‘보통이다’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관계자들은 ‘문화예술활동(견학, 캠프, 공연, 체험 활동 등)’ 영역에서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음(평균 2.96, 0.19). ‘3점-보통이다’ 수준에 미치지 못함
- 뒤이어 ‘창의적 체험활동(미술, 독서, 음악, 만들기 등)’이 평균 2.87(0.33), ‘정서지원(개인 및 집단 상담, 동반자 프로그램 등)’이 평균 2.85(0.38), ‘학습지도(기초학습 및 교과 학습, 숙제지도 등)’이 2.80(0.49) 순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IV-20〉 기관이용 아동 청소년의 교육 중요도

(단위 : 평균, 표준편차)

내용	구분	
	M	SD
학습지도(기초학습 및 교과학습, 숙제지도 등)	2.80	0.49
문화예술활동(견학, 캠프, 공연, 체험 활동 등)	2.96	0.19
정서지원(개인 및 집단 상담, 동반자 프로그램 등)	2.85	0.38
진로교육(진로탐색, 진로체험 등)	2.81	0.39
창의적 체험활동(미술, 독서, 음악, 만들기 등)	2.87	0.33
전 체 평 균 (5점 환산평균)	14.29(2.86)	



[그림 IV-11] 기관 이용 아동·청소년의 교육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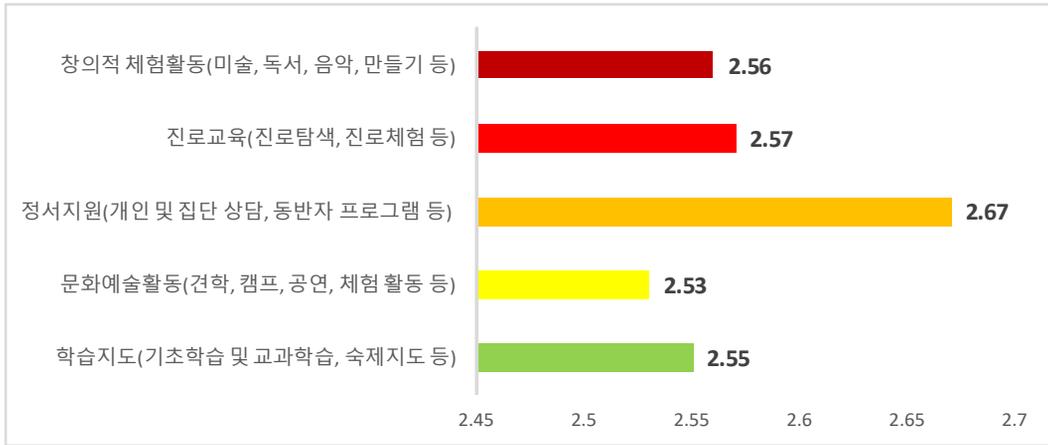
□ 기관 이용 아동·청소년위한 시급한 교육 인식 정도

- 소속 기관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시급성’ 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이 5점 만점에 2.58점으로 소속기관의 관계자들이 아동·청소년의 교육 시급성 정도를 ‘보통이다’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관계자들은 ‘정서지원(개인 및 집단 상담, 동반자 프로그램 등)’ 영역이 평균 2.67(0.53)으로 가장 시급한 교육이라고 인지하고 있음. 하지만 ‘3점-보통이다’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임. ‘정서지원(개인 및 집단 상담, 동반자 프로그램 등)’이 평균 2.67(0.53), ‘진로교육(진로탐색, 진로체험 등)’이 평균 2.57(0.57), ‘학습지도(기초학습 및 교과학습, 숙제지도 등)’이 평균(2.55, 0.6) 순으로 나타남

<표 IV-21> 기관이용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급한 교육 인식 정도

(단위 : 평균, 표준편차)

내용	구분	
	M	SD
학습지도(기초학습 및 교과학습, 숙제지도 등)	2.55	0.6
문화예술활동(견학, 캠프, 공연, 체험 활동 등)	2.53	0.55
정서지원(개인 및 집단 상담, 동반자 프로그램 등)	2.67	0.53
진로교육(진로탐색, 진로체험 등)	2.57	0.57
창의적 체험활동(미술, 독서, 음악, 만들기 등)	2.56	0.57
전 체 평 균 (5점 환산평균)	12.88(2.58)	



[그림 IV-12] 기관이용 아동 청소년을 위한 시급한 교육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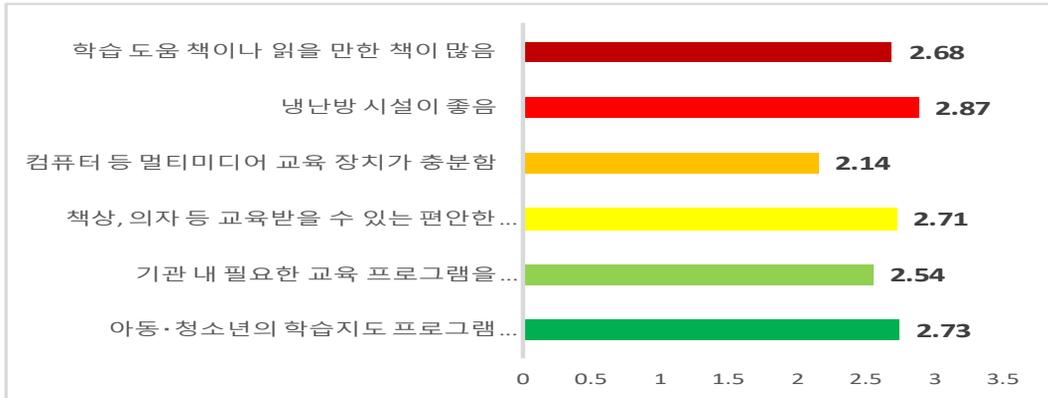
□ 기관의 교육환경 만족도

- 기관 관계자들에게 ‘소속 기관의 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이 5점 만점에 2.61점으로 소속기관의 관계자들이 아동·청소년의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정도를 ‘보통’ 수준보다 낮은 ‘그렇지 않다’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냄
- 세부적으로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관계자들은 ‘냉·난방시설이 좋음’영역이 평균 2.87(0.36)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음. 하지만 ‘보통’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만족 수준임. 뒤이어서는 ‘아동청소년의 학습지도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함’이 평균 2.73(0.58), ‘책상 의자 등 교육받을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있음’이 평균(2.71, 0.57)순으로 그 정도가 유사하게 나타남

〈표 IV-22〉 기관의 교육환경 만족도

(단위 : 평균, 표준편차)

내용	구분	
	M	SD
아동·청소년의 학습지도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함	2.73	0.58
기관 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되어 있음	2.54	0.67
책상, 의자 등 교육받을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있음	2.71	0.57
컴퓨터 등 멀티미디어 교육 장치가 충분함	2.14	0.79
냉난방 시설이 좋음	2.87	0.36
학습 도움 책이나 읽을 만한 책이 많음	2.68	0.58
전 체 평 균 (5점 환산평균)	15.67(2.61)	



[그림 IV-13] 아동·청소년의 교육환경 만족도

□ 기관의 교육방법에 대한 적합도

- 기관 관계자들에게 ‘소속 기관의 아동·청소년대상 교육 방법에 대한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이 5점 만점에 2.36점으로 소속기관의 관계자들이 아동·청소년의 교육의 적합도 정도를 ‘보통’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관계자들은 ‘실습, 견학 등 참여를 통한 교육’영역이 평균 2.89 (0.31)으로 교육의 적합도를 가장 높게 인지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3점-보통’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임
- 뒤이어 ‘강사의 강의를 통한 교육’이 평균 2.71(0.51), ‘소규모 동아리 모임을 통한 교육’이 평균 2.60(0.63) 순으로 나타남. 여기서 특이 사항은 ‘인터넷, 책 등을 통한 혼자하는 학습’영역은 평균 1.87(0.82)로 가장 낮은 교육의 적합도를 나타냄. 평균 2점이 되지 않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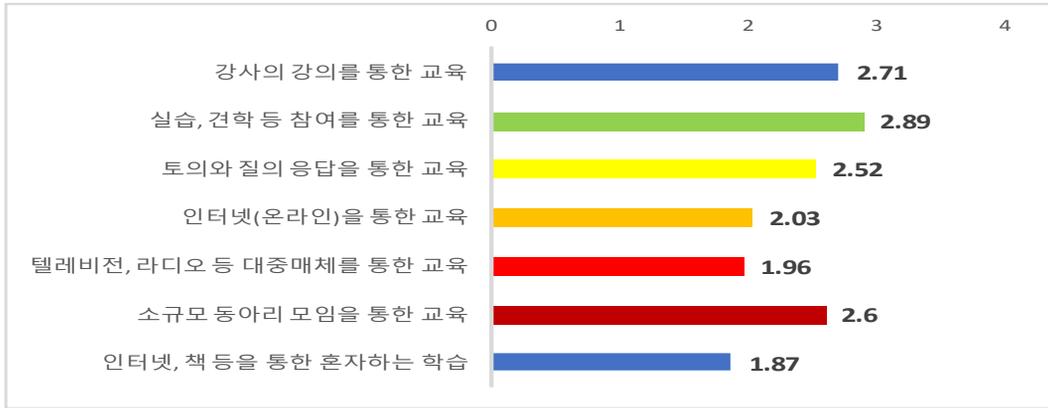
〈표 IV-23〉 기관의 교육방법 적합도

(단위 : 평균, 표준편차)

내용	구분	
	M	SD
강사의 강의를 통한 교육	2.71	0.51
실습, 견학 등 참여를 통한 교육	2.89	0.31
토의와 질의 응답을 통한 교육	2.52	0.68
인터넷(온라인)을 통한 교육	2.03	0.74
텔레비전,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	1.96	0.72
소규모 동아리 모임을 통한 교육	2.60	0.63

IV.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 지원 요구 분석

인터넷, 책 등을 통한 혼자하는 학습	1.87	0.82
전 체 평 균 (5점 환산평균)	16.58(2.38)	



[그림 IV-14] 기관의 교육방법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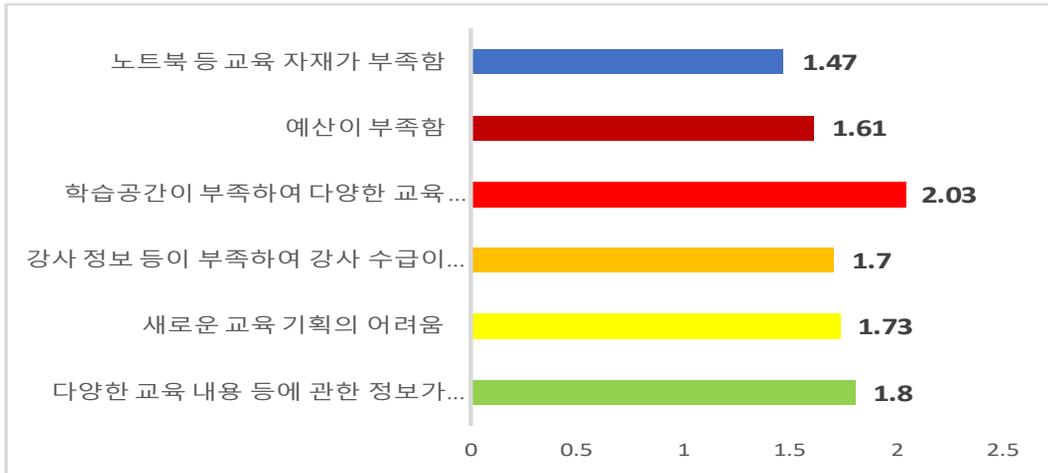
□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

- 기관 관계자들에게 ‘교육프로그램 운영할 때의 어려운 점’을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이 5점 만점에 1.72점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에 대해 낮게 인식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관계자들은 ‘학습공간이 부족하여 다양한 교육 운영이 어려움’영역이 평균 2.03(0.81)으로 프로그램 운영중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인지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애로사항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 뒤이어 ‘다양한 교육 내용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함’이 평균 1.8(0.72), ‘새로운 교육기회의 어려움’이 평균 1.73(0.78) 순으로 나타남

<표 IV-24>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

(단위 : 평균, 표준편차)

내용	구분	
	M	SD
다양한 교육 내용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함	1.8	0.72
새로운 교육 기획의 어려움	1.73	0.78
강사 정보 등이 부족하여 강사 수급이 어려움	1.7	0.76
학습공간이 부족하여 다양한 교육 운영이 어려움	2.03	0.81
예산이 부족함	1.61	0.7
노트북 등 교육 자재가 부족함	1.47	0.7
전 체 평 균 (5점 환산평균)	10.34(1.72)	



[그림 IV-15]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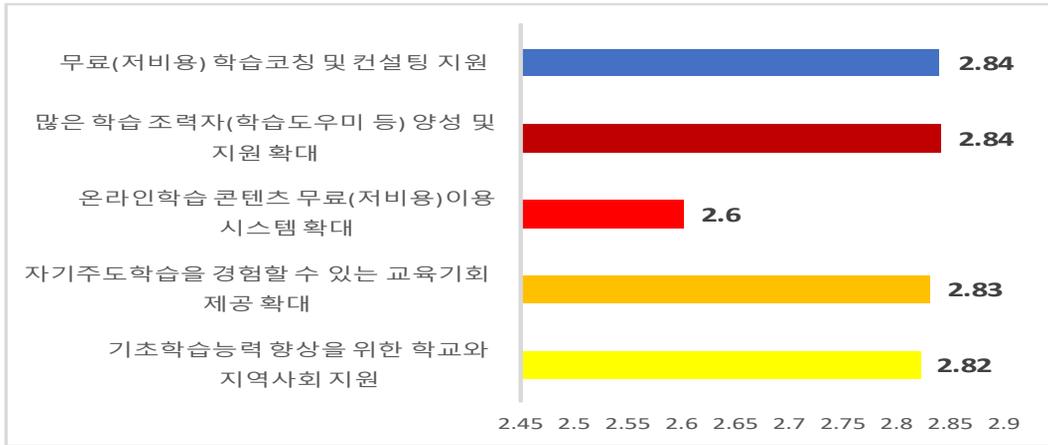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학력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요구도

- 기관 관계자들에게 ‘코로나 19로 인한 학력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요구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5개의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이 5점 만점에 2.79점으로 ‘3점-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요구도를 나타냄
- ‘온라인 학습 콘텐츠 무료(저비용) 이용 시스템 확대’ 영역을 제외한 4개 영역은 평균 2.84(0.39), 2.83(0.4), 2.82(0.4)로 거의 같은 수준을 나타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관계자들은 ‘많은 학습 조력자(학습 도우미 등) 양성 및 지원 확대’, ‘무료(저비용) 학습 코칭 및 컨설팅 지원’ 등 2개의 영역이 각각 평균 2.84(0.39)로 가장 높은 요구 수준을 나타냄. 하지만 ‘3점-보통이다’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요구 수준을 나타냄

<표 IV-25> 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요구도

(단위 : 평균, 표준편차)

내용	구분	
	M	SD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지원	2.82	0.4
자기주도학습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기회 제공 확대	2.83	0.4
온라인학습 콘텐츠 무료(저비용)이용 시스템 확대	2.6	0.56
많은 학습 조력자(학습도우미 등) 양성 및 지원 확대	2.84	0.39
무료(저비용) 학습코칭 및 컨설팅 지원	2.84	0.39
전 체 평 균 (5점 환산평균)	13.93(2.79)	



[그림 IV-16] 코로나 19로 인한 학력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요구

□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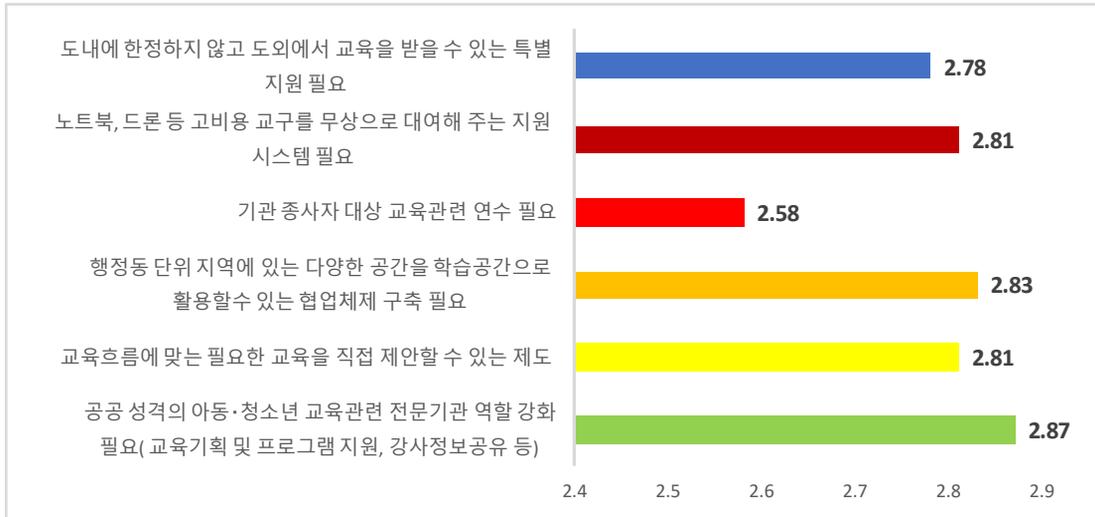
- 기관 관계자들에게 ‘아동·청소년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요사항’을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이 5점 만점에 2.78점으로 ‘3점-보통’수준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냄. ‘공공 성격의 아동·청소년 교육 관련 전문기관 역할 강화가 필요’ 영역이 평균 2.87(0.33)으로 필요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뒤이어 ‘행정동 단위 지역에 있는 다양한 공간을 학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협업체제 구축필요’가 평균 2.83(0.40), ‘교육 흐름에 맞는 필요한 교육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제도’와 ‘노트북, 드론 등 고비용 교구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지원시스템 필요’가 각각 평균 2.81(0.39) 순으로 나타남. 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관련 연구 필요가 가장 낮은 2.58(0.55)로 나타남

<표 IV-26>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요사항

(단위 : 평균, 표준편차)

내용	구분	
	M	SD
공공 성격의 아동·청소년 교육관련 전문기관 역할 강화 필요 - 교육기획 및 프로그램 지원, 강사정보공유 등	2.87	0.33
교육흐름에 맞는 필요한 교육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제도	2.81	0.39
행정동 단위 지역에 있는 다양한 공간을 학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협업체제 구축 필요	2.83	0.40
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관련 연수 필요	2.58	0.55

노트북, 드론 등 고비용 교구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지원 시스템 필요	2.81	0.39
도내에 한정하지 않고 도외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별 지원 필요	2.78	0.43
전 체 평 균 (5점 환산평균)	16.69(2.78)	



[그림 IV-17]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요사항

□ 기관 관계자 특성에 따른 조사결과 분석

- 응답한 기관 관계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속 기관의 아동·청소년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의 차이를 살펴봄($p < .05$).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근무기간’ 등 4개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봄. 아동·청소년 교육에 따른 전반적 경향은 ‘기관이용 아동·청소년 교육적 상황’, ‘기관 이용 아동·청소년의 교육 영역별 중요성 인식 정도’, ‘기관 이용 아동·청소년 위한 시급한 교육 인식 정도’, ‘기관의 교육환경 만족도’, ‘기관의 교육방법에 대한 적합도’,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학력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요구도’,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요사항’ 등을 살펴봄
- 그 결과 응답한 아동·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5개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대부분의 설문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p < .05$). 다만 응답한 기관 관계자의 몇 가지 변수가 되는 특성은 교육지원을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소속기간의 아동·청소년 교육적 상황에 대한 전반적 경향 차이에서는 공통적으로 ‘연령

40세 이상~49세 이하’, ‘고졸이하’, ‘근무기간 5년 이하’집단이 교육상황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게 나타남

〈표 IV-27〉 기관 이용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상황

(단위 : 평균, 편차)

구분		①	②	③	④	⑤
성별	여성	2.94 (0.88)	2.62 (0.96)	3.12 (0.99)	2.98 (1.07)	3.07 (0.86)
	남성	3.05 (0.78)	2.58 (0.76)	2.79 (1.13)	3.05 (1.02)	3.11 (0.99)
연령	29세 이하	3 (1.06)	2.65 (0.78)	3 (1.27)	2.82 (0.95)	3.29 (0.98)
	30세 이상 ~ 39세 이하	3.11 (0.56)	2.63 (0.76)	2.84 (0.83)	3 (1.0)	2.95 (0.91)
	40세 이상 ~ 49세 이하	3.09 (0.9)	2.78 (0.95)	3.26 (0.81)	3.09 (0.9)	3.3 (0.7)
	50세 이상 ~ 59세 이하	2.78 (0.75)	2.53 (0.98)	3.09 (1.17)	2.94 (1.24)	3.03 (0.82)
	60세 이상	2.89 (1.26)	2.33 (1.32)	3 (0.86)	3.22 (1.2)	2.56 (1.13)
학력	고졸이하	3.4 (0.54)	2.4 (0.89)	3.2 (0.83)	3.2 (0.83)	3.6 (0.89)
	대졸이상	2.94 (0.87)	2.62 (0.93)	3.05 (1.03)	2.98 (1.07)	3.05 (0.88)
근무 기간	5년미만	3.05 (0.91)	2.7 (0.96)	3.24 (0.98)	3.11 (0.87)	3.22 (0.82)
	5년이상 ~ 10년 미만	2.92 (0.75)	2.68 (0.74)	2.88 (1.26)	2.88 (1.16)	3.08 (1.07)
	10년 이상 ~ 15년 미만	2.93 (0.91)	2.56 (1.01)	3.04 (0.85)	2.89 (1.15)	3.04 (0.75)
	15년 이상 ~ 20년 미만	2.83 (0.75)	2.33 (1.03)	2.83 (1.16)	2.83 (1.32)	2.83 (0.98)
	20년 이상	2.8 (1.09)	2.2 (1.09)	3 (0.70)	3.4 (1.14)	2.6 (0.89)

*p<.05, **p<.01, ***p<.001

- ① 기초학습부진등 학습수준이 낮음
- ② 학습동기가 약함
- ③ 온라인 학습을 통한 교육여건 미비
- ④ 교육활동을 지원해 줄수 있는 조력자
- ⑤ 정서적으로 부족함이 있음

- ‘기관 이용 아동·청소년의 교육 영역별 중요성 인식 정도’에 대한 전반적 경향 차이에 서는 공통적으로 여성, 대졸이상 집단이 일관되게 높은 교육 중요도를 나타내었고, 근무 기간 ‘5년 미만’인 집단은 교육 영역별 중요성 인식 정도에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리고 ‘기관 이용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급한 교육 인식 정도’에 대한 전반적 경향 차 이에서는 공통적으로 대졸이상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아동·청소년 교육의 시급성을

더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관의 교육방법에 대한 적합도’에서는 여성이 실습 견학 등 참여를 통한 교육 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 영역에서 남성에 비해 높은 평균값을 나타냄. 연령은 60세 이상 집단이 온라인을 통한 교육 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 영역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냄. 대졸이상 집단이 고졸이하 집단에 비해 7개 영역에서 모두 높은 평균값을 나타냄. 특히 근무기간 20년 이상 집단이 소규모 동아리 모임을 통한 교육 영역에서 5점 만점에 4.8점이라는 높은 교육방법의 적합성을 나타냄

〈표 IV-28〉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방법 적합성

(단위 : 평균, 편차)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성별	여성	4.09 (0.78)	4.43 (0.66)	3.75 (1.01)	3.16 (0.95)	3.02 (0.82)	3.82 (0.89)	2.87 (1.13)
	남성	3.9 (1.02)	4.3 (0.73)	3.9 (0.85)	2.7 (1.12)	2.5 (1.1)	3.8 (0.76)	2.65 (1.22)
연령	29세 이하	4.17 (0.95)	4.41 (0.71)	4 (1.17)	2.82 (0.95)	2.82 (0.95)	3.76 (0.75)	2.88 (1.16)
	30세 이상 ~ 39세 이하	4.3 (0.65)	4.45 (0.6)	3.6 (1.14)	3 (1.25)	2.85 (0.95)	3.6 (0.94)	2.45 (1.23)
	40세 이상 ~ 49세 이하	4.13 (0.86)	4.65 (0.57)	3.82 (0.83)	3.21 (0.95)	2.82 (0.93)	3.78 (0.95)	2.95 (1.06)
	50세 이상 ~ 59세 이하	3.71 (0.77)	4.18 (0.73)	3.65 (0.9)	3.15 (0.98)	3.06 (0.87)	3.84 (0.8)	2.84 (1.16)
	60세 이상	4.33 (0.86)	4.44 (0.72)	4.11 (0.92)	3 (0.7)	3 (0.86)	4.44 (0.72)	3.22 (1.09)
학력	고졸이하	3.8 (1.09)	4.2 (0.83)	3.6 (1.14)	2.6 (1.51)	2.2 (0.83)	3.2 (0.83)	2.4 (1.51)
	대졸이상	4.07 (0.82)	4.41 (0.67)	3.79 (0.98)	3.09 (0.97)	2.95 (0.89)	3.85 (0.85)	2.85 (1.13)
근무기간	5년미만	4.05 (0.81)	4.37 (0.68)	3.62 (1.08)	3.13 (0.91)	2.83 (0.76)	3.64 (0.88)	2.78 (0.97)
	5년이상 ~ 10년 미만	4.08 (0.75)	4.48 (0.71)	3.84 (0.98)	2.72 (1.06)	2.84 (1.14)	3.52 (0.87)	2.48 (1.29)
	10년 이상 ~ 15년 미만	4.1 (0.87)	4.39 (0.68)	3.75 (0.84)	3.25 (1.04)	3.07 (0.81)	4.03 (0.74)	2.92 (1.24)
	15년 이상 ~ 20년 미만	4.16 (1.16)	4.5 (0.54)	4.5 (0.54)	3 (1.26)	3 (1.26)	4.33 (0.51)	3.66 (0.51)
	20년 이상	3.6 (0.89)	4.2 (0.83)	4 (1.22)	3.4 (0.54)	3 (0.7)	4.8 (0.44)	3.4 (1.14)

*p<.05, **p<.01, ***p<.001

- ① 강사 강의를 통한 교육
- ② 실습 견학등참여를 통한 교육
- ③ 토의와 질의 응답을 위한 교육
- ④ 온라인을 통한 교육

- ⑤ 텔레비전,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
- ⑥ 소규모 동아리 모임을 통한 교육
- ⑦ 인터넷 책등을 통한 혼자하는 학습

-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요사항’에 대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평균이 5점 만점에 2.78점으로 필요사항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을 나타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6개 전 영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필요사항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 29세 이하 집단과 근무기간 5년 미만집단이 ‘도내에 한정하지 않고 도외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별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제외한 5가지 영역에서 높은 평균값을 나타냄. 학력은 고졸이하집단이 6개 전 영역에서 높은 평균값을 나타냄

3. 요약 및 시사점

-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은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기관 현황자료에 근거하여 102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유형,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2020년 기준 이용자(아동·청소년) 200명 및 관계자 100명, 총 300명을 비례할당으로 표집을 계획하였고, 실제 아동·청소년 202명, 관계자 101명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됨. 아동·청소년대상에게는 학교 외 교육(사교육) 참여실태, 교육참여의 애로사항, 교육의 도움 정도, 지역 기관 교육 여건, 가정교육실태, 교육 방법, 교육요구, 온라인 참여 확대의 어려움 등을 조사하였음. 기관 관계자에게는 기관의 교육활동 비중, 아동·청소년의 교육 실태, 지역 기관 교육 여건, 교육 방법, 교육 운영 여건, 학력격차 해소방안, 지역사회에의 요구사항 등을 설문하였음. 이상에 대한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아동·청소년 및 교육지원기관 응답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과 시사점

- 응답한 아동·청소년들의 거주가족은 ‘부모가 있는 가정’이 전체의 60.0%, ‘한부모 가정’이 전체의 30%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 현재 이용하고 있는 지역사회기관은 ‘지역아동센터’가 66.8%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함.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11.4%로 다음 순으로 나타남. 이는 설문조사 대상 기관 103개 중 지역아동센터가 66개(64.0%)를 차지하는 정도와 유사한 결과임을 확인해 줌
- 기관 관계자들은 ‘대졸 이상’학력이 전체의 95.0%로 가장 많았고, 근무기간은 ‘5년 미만’이 전체의 36.6%, ‘10년이상~ 15년 미만’, ‘5년이상 ~ 10년 미만’이 각각 27.7%, 24.3% 순으로 비슷한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5년 이상 근무가 63.4%인 점은 대체로

업무관련 경력을 갖춘 관계자가 기관에 종사하고 있음을 의미함. 또한 주요 이용대상자는 ‘초등학생’ 39.3%, ‘중학생’ 32.7%, ‘고등학생’ 14.2% 순으로 나타남. 현재 소속기관은 ‘지역아동센터’가 67.3%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함.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11.9%로 다음 순으로 나타남

- 교육지원기관의 소재지를 살펴보면, ‘제주시 동지역’이 4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서귀포 동지역’ 22.8%를 차지함. 읍·면지역은 제주시, 서귀포시 통틀어 30.7%로 동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전체적으로 ‘제주시’ 61.4%, ‘서귀포시’ 38.6%임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학교교육 외에 받고 있는 교육(사교육) 참여 현황은 응답자 전체의 50.2%로 나타남. 학원에서 가장 많이 수강하는 과목은 수학(36.6%), 영어(29.6%)가 전체의 66%로 나타났고, 예체능 학원을 수강하는 아동·청소년은 전체의 21.1%로 나타남. 개인과외과목을 살펴본 결과 개인과외 과목은 영어(29.8%), 수학(28.1%), 국어(19.3%) 순으로 나타남. 국어 과목에 대한 과외가 의외로 많은 편임. 구독하고 있는 학습지는 수단이 전체의 49.4%로 대상자의 절반 가량이 수학과목 학습지를 구독하고 있고, 영어(18.5%), 국어(16.0%) 순으로 나타남
- 학교교육 외에 받고 있는 교육(사교육) 참여 기간은 주 5일 동안 매일 학원을 다니는 아동·청소년이 전체의 32.0%로 가장 많고, 1회당 이용시간은 1시간이상~2시간 이하로 아동·청소년 전체의 절반이 넘는 53%로 나타남. 개인과외 이용횟수는 1회가 37.5%, 2회가 29.2%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개인과외 1회 이용시간은 전체의 54.1%가 1시간 이상 2시간 이하로 과외 수업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학습지 이용횟수는 주1회가 전체의 41.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5회 학습지 수업도 전체의 34.9%로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학습지 1회 평균 이용시간은 1시간 이상~2시간 이하로 수업을 받는 경우가 65.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스스로 공부하거나 다양한 교육을 받으려고 할 때 애로사항’을 5개의 영역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이 5점 만점에 3.77점으로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나타냄. ‘학습지 등 교육 자료가 부족함’ 영역이 평균 3.94로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인식하고 있음. 이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이 평균 3.90,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음’이 각각 평균 3.74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학습에 대한 의지나 교육 여건이 부족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음

- ‘교육영역별 중요성’에 대해 전체 평균이 5점 만점에 3.82점으로 ‘보통’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 ‘문화예술활동(견학, 캠프, 공연, 체험 활동 등)’영역에서 평균 3.98, 다음은 진로교육(진로탐색, 진로체험 등) 영역에서 평균 3.96, 이어서 ‘창의적 체험활동(미술, 독서, 음악, 만들기 등)’이 평균 3.92, 학습지도(기초학습 및 교과학습, 숙제지도 등)이 3.77 순으로 ‘중요’ 수준의 높은 중요도를 나타냄. 이를 통해 교육지원기관의 관계자들이 인식하는 교육의 중요성 보다 기관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영역별 교육 제공의 시급성’ 인식 정도에서는 전체 평균이 5점 만점에 3.09점으로 소속기관의 아동·청소년들이 인식하는 ‘교육 제공의 시급성 정도는 ’3점-보통’ 수준으로 나타남. ‘창의적 체험활동(미술, 독서, 음악, 만들기 등)’이 평균 3.19점으로 가장 시급한 교육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뒤이어 ‘진로교육(진로탐색, 진로체험 등)’, ‘문화예술활동(견학, 캠프, 공연, 체험활동)’이 각각 평균 3.18 순으로 나타남. 다음은 학습지도(기초학습 및 교과학습, 숙제지도 등)이 3.01이고, 정서지원(개인 및 집단 상담, 동반자 프로그램 등)이 2.89로 제일 낮게 나타남. 이는 교육영역별 중요성에 대한 유사하게 중요도를 나타낸 반면, 영역별 교육 제공의 시급성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가장 우선 순위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공간에 한정된 원격 수업이 지속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학교 외 지역사회기관의 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이 5점 만점에 3.94점으로 ‘4점-그렇다’수준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문화예술활동(견학, 캠프, 공연, 체험활동)’ 영역이 평균 4.03으로 가장 높았고, 학습지도(기초학습 및 교과 학습, 숙제지도 등) 영역이 평균 4.01, 그 다음이 ‘창의적 체험활동(미술, 독서, 음악, 만들기 등)’이 평균 4.00 순으로 나타남. 대체로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내가 다니는 지역사회 기관의 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이 5점 만점에 평균 4.26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임. 아동·청소년들은 ‘냉·난방시설이 좋음’영역이 평균 4.39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음. 이어 ‘책상, 의자 등 교육 받을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있음’이 평균 4.35, ‘기관내 언제든지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

님이 있음'이 평균 4.30 순으로 나타남

- '가정의 교육 지원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이 5점 만점에 평균 3.39점으로 '3점- 보통'수준을 조금 넘어서는 응답을 나타냄. 앞서 살펴본 소속 기관의 만족도에 비해 낮은 만족수준을 나타냄. 소속기관의 교육환경이 아동·청소년들의 교육지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온라인 학습을 잘 받을 수 있게 컴퓨터, 인터넷, 설치 등이 잘 되어 있음' 영역이 평균 4.05로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반면에, '가족(부모님)이 나의 숙제 지도 및 학습 지도를 해줌'영역이 평균 2.95 점으로 '3점-보통'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족도를 보임. 그리고 '가족(부모님)이 나의 학습시간 등을 관리해 줌'이 3.08, '가족(부모님)이 나와 문화예술활동(영화, 여행, 운동 등)을 함께 함'영역이 평균 3.51로 다음으로 높은 만족도 수준을 나타냄
- '교육방법에 대한 적합정도'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이 5점 만점에 평균 3.56점으로, 조사 대상자들이 아동·청소년의 교육의 적합도 정도를 '보통'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음. '실습, 견학 등 참여를 통한 교육'영역이 평균 3.94으로 교육의 적합도에 있어 가장 높게 인지하고 있음. 이어서 '강사의 강의를 통한 교육'이 평균 3.65, '토의와 질의 응답을 통한 교육'이 평균 3.56 순으로 나타남. 특히, '인터넷, 책 등을 통한 혼자 하는 학습', '텔레비전, 라디오 등 대중 매체를 통한 교육 방법은 각 평균 3.37로 조금 낮은 교육의 적합도를 나타냄
- '학교 외에서 필요한 교육을 편리하게 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평균 5점 만점에 평균 3.43점으로 아동·청소년이 교육을 편리하게 받기 위한 여건 정도를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음. '좋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무료 교육 많이 개설'영역이 평균 3.60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계속 받았던 교육 말고 새로운 교육 필요' 영역이 평균 3.50으로, 유사한 평가를 받음. 좋은 선생님들의 좋은 무료 교육과 새로운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받고 싶은 교육을 직접 신청(제안) 알 수 있는 제도'가 평균 3.43, '집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마련' 3.36, '마을 곳곳에 많은 학습공간 필요'가 3.28 순으로 나타난 점도 유의할 필요 있음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온라인 학습 참여 확대에 따른 어려움'에 대하여 평균 5점 만점에 평균 3.36점으로 '보통'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음 '컴퓨터, 인터넷 통신 등 온라인 학습 환경이 충분하지 않음' 영역이 평균 3.66으로 가장 어려움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 온라인 수업의 확대로 온라인 수업을 위한 기반 시설을 보급 확대

가 시급함을 알 수 있음. 이어 ‘온라인 학습 참여 방법이 불편함’ 영역이 평균 3.24, ‘온라인 학습 과정이 집중이 어렵고 이해가 잘 안됨’ 영역이 평균 3.18 순으로 나타남. 이와 같이 ‘온라인 학습 과정에 집중이 어렵고, 이해가 잘 안됨’의 문제보다 온라인 학습 환경의 불충분이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학습 환경이 좀 더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아동·청소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속 기관의 아동·청소년 교육에 대한 전반적 경향의 차이는 대부분의 설문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p < .05$). 다만 응답한 아동·청소년들의 몇 가지 변수가 되는 특성은 교육지원을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스스로 공부하거나 다양한 교육을 받으려고 할 때 애로사항이 무엇인지’영역에서는 공통적으로 ‘여성’, ‘11세 이하’, ‘초등학생’, ‘형제자매 가족’, ‘지역아동센터’와 ‘꿈드림’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인식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교육지원 기관의 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매우 고려되어야 할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음
 - ‘영역별 교육의 시급성 인식 정도’에서도 공통적으로 ‘여성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영역별 교육의 시급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학교밖 청소년’이 세 영역, 즉 ⑤ 창의적 체험 활동, ② 문화예술활동, ③ 정서지원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교육의 시급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 외 지역사회기관의 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에서도 공통적으로 ‘여성’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기관은 5개 영역, 즉 ① 학습지도, ② 문화예술활동, ③ 정서지원, ④ 진로교육, ⑤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고루 제공받은 교육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남
 - ‘지역사회 기관의 교육환경 만족도’에 대해서도 5개 영역 ‘여성’집단이 남성집단에 비해 교육환경 만족도 평가가 높게 나타남. 또 꿈드림(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 기관의 교육환경 만족도 평가에서 3개의 영역, ③책상, 의자 등 교육받을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있다, ①아동 청소년의 학습지도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함, ④컴퓨터 등 멀티미디어 교육 장치가 충분함에서 가장 높게 평가함
 - ‘코로나와 관련하여 온라인 학습 참여 확대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서 여성, 14세이상~15세 이하, 중학생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평균값이 높게 나타남. 특히 대체로 ② 컴퓨터 인터넷 통신 등 온라인 학습 환경이 충분하지 않음이 ①온라인 학습 참여 방법이 불편함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교육지원기관 관계자의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소속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1순위에서는 ‘방과후 돌봄(부모 대리적 보호자 역할)’이 67.3%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건강한 문화 공간의 역할’ 10.9%, ‘정서 및 사회적 발달 지원’ 8.9% 순으로 나타나, 소속기관에 대한 역할이 돌봄에 집중되어 있음. 2순위, 3순위에서는 ‘정서 및 사회성 발달 지원’이 44.6%, 2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기관이 운영 중인 교육활동 비중’에 대하여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1순위에서는 ‘학습지도’가 45.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정서지원’ 15.8%, ‘창의적 체험활동’ 14.9%, ‘문화예술활동’ 13.9% 순으로 나타남
- ‘소속 기관 이용 아동·청소년의 교육상황 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이 5점 만점에 3.06점으로 ‘보통’ 수준을 나타냄. 관계자들은 ‘학습동기가 약함’ 영역에서 교육상황이 가장 좋지 않다고 인지하고 있음. ‘학습동기가 약함’이 평균 3.40, ‘기초학습부진 등 학습 수준이 낮음’이 평균 3.04, ‘교육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력자(가족 등)가 없음’이 평균 3.01 순으로 나타남
- 소속 기관 이용 ‘아동·청소년의 교육 영역별 중요도’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이 5점 만점에 2.49점으로, 소속기관의 관계자들이 아동·청소년의 교육 중요도를 ‘보통’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음. 관계자들은 ‘문화예술활동’ 영역에서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평균 2.96)하고 있으나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함. 뒤이어 ‘창의적 체험활동’이 평균 2.87, ‘정서지원’이 평균 2.85), ‘학습지도’가 2.80 순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소속 기관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시급성’ 정도에 대해서 전체 평균이 5점 만점에 2.58점으로 소속기관의 관계자들이 아동·청소년의 교육 시급성 정도를 ‘보통’ 수준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음. ‘정서지원’영역이 평균 2.67(0.53)으로 가장 시급한 교육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하지만 ‘3점-보통’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임. ‘정서지원’이 평균 2.67(0.53), ‘진로교육’이 평균 2.57(0.57), ‘학습지도’가 평균(2.55, 0.6) 순으로 나타남
- ‘소속 기관의 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평균이 5점 만점에 2.61점으로, 소속기관의 관계자들이 아동·청소년의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정도를 ‘보통’수준보다 낮은 만족도를 나타냄. 관계자들은 ‘냉·난방시설이 좋음’ 영역에서 평균 2.87의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

를 보임. 하지만 ‘보통’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만족 수준임. 뒤이어 ‘아동·청소년의 학습지도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함’이 평균 2.73, ‘책상 의자 등 교육받을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있음’이 평균 2.71 순으로 나타남

- ‘소속 기관의 아동·청소년대상 교육 방법에 대한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이 5점 만점에 2.36점으로 소속기관의 관계자들이 아동·청소년의 교육 적합도 정도를 ‘보통’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 관계자들은 ‘실습, 견학 등 참여를 통한 교육’ 영역이 평균 2.89로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보통’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임. 뒤이어 ‘강사의 강의를 통한 교육’이 평균 2.7, ‘소규모 동아리 모임을 통한 교육’이 평균 2.60 순으로 나타남. 특히 사항은 ‘인터넷, 책 등을 통한 혼자 하는 학습’영역은 평균 1.87, 평균 2점이 되지 않는 매우 낮은 교육방법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 ‘교육프로그램 운영할 때의 어려운 점’에 대해 전체 평균이 5점 만점에 1.72점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에 대해, 매우 낮은 인식도를 보이고 있음. 그런 가운데 관계자들은 ‘학습공간이 부족하여 다양한 교육 운영이 어려움’ 영역에 평균 2.03, 뒤이어 ‘다양한 교육 내용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함’이 평균 1.8, ‘새로운 교육기회의 어려움’이 평균 1.73 순으로 나타남
- ‘코로나 19로 인한 학력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요구도’에 대해 5개의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이 5점 만점에 2.79점으로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요구도를 나타냄. ‘온라인 학습 콘텐츠 무료(저비용)이용 시스템 확대’ 영역을 제외한 4개 영역은 평균 2.84, 2.83, 2.82로 거의 같은 수준을 나타냄. 관계자들은 ‘많은 학습 조력자(학습 도우미 등) 양성 및 지원 확대’, ‘무료(저비용) 학습 코칭 및 컨설팅 지원’ 등 2개 영역에서 각각 평균 2.84로 가장 높은 요구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아동·청소년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이 5점 만점에 2.78점으로, ‘보통’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필요성을 나타냄. ‘공공 성격의 아동·청소년 교육 관련 전문기관 역할 강화가 필요’ 영역이 평균 2.87(0.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행정동 단위 지역에 있는 다양한 공간을 학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협업체제 구축 필요’가 평균 2.83, ‘교육 흐름에 맞는 필요한 교육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제도’와 ‘노트북, 드론 등 고비용 교구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지원시스템 필요’가 각각

평균 2.81 순으로 나타남. 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관련 연구 필요가 가장 낮은 2.58로 나타남

- 기관 관계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속 기관의 아동·청소년 교육에 대한 전반적 경향의 차이는 대부분의 설문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p < .05$). 다만 응답한 기관 관계자의 몇 가지 변수가 되는 특성은 교육지원을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소속기관의 아동·청소년 교육적 상황에 대한 전반적 경향 차이에서는 공통적으로 ‘연령 40세 이상~49세 이하’, ‘고졸이하’, ‘근무기간 5년 이하’집단이 교육상황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게 나타남
 - ‘기관 이용 아동·청소년의 교육 영역별 중요성 인식 정도’에 대한 전반적 경향 차이에서는 공통적으로 여성, 대졸이상 집단이 일관되게 높은 교육 중요도를 나타냄. 근무기간 ‘5년 미만’인 집단은 교육 영역별 중요성 인식 정도에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관 이용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급한 교육 인식 정도’에 대한 전반적 경향 차이에서는 공통적으로 대졸이상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아동·청소년 교육의 시급성을 더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관의 교육방법에 대한 적합도’에서는 여성이 실습 견학 등 참여를 통한 교육 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 영역에서 남성에 비해 높은 평균값을 나타냄. 연령은 60세 이상 집단이 온라인을 통한 교육 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 영역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임. 대졸이상 집단이 고졸이하 집단에 비해 7개 영역에서 모두 높은 평균값을 나타냄. 특히 근무기간 20년 이상 집단이 소규모 동아리 모임을 통한 교육 영역에서 5점 만점에 4.8점이라는 높은 교육방법의 적합성을 나타냄
 -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요사항’에 대해 전체 평균이 5점 만점에 2.78점으로 필요사항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을 나타냄. 반면 6개 전 영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필요사항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 29세 이하 집단과 근무기간 5년 미만 집단이 ‘도내에 한정하지 않고 도외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별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제외한 5가지 영역에서 높은 평균값을 나타냄. 학력은 고졸이하 집단이 6개 전 영역에서 높은 평균값을 나타냄

V.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 지원 활성화 방안 모색

1. FGI 조사 개요
2. FGI 결과
3. 요약 및 시사점

V.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 지원 활성화 방안 모색

1. FGI 조사 개요

가. FGI 대상 및 기간

-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관련 정책 및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초점 집단 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하여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기관에서 수행되는 교육지원 여건과 참여 아동·청소년의 특성 및 교육에 대한 요구 등 교육 운영의 실태와 주요 장애요인 등을 분석하여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 효과성 제고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음
- 조사 대상자는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참여자, 지원 기관 관계자,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담당자 및 전문가, 아동·청소년 활동 지원 기관 관계자 등 3개 집단, 11명임
- 조사 대상의 특성 및 수집의견 영역에 따라서 <표 V-1>과 같이 구분하여 2020년 7월 2일에서 7월 3일 사이에 진행함

<표 V-1> 관계자 심층 면담 대상 및 일정

구분		대상 특성	일정
1그룹	아동·청소년 참여자	A.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7.2(목) 16:00
		B. 민간청소년학교 이용 경험자	
		C. 청소년쉼터 이용 경험자	
2그룹	아동·청소년 관계기관 집단	A. 지역아동센터 대표	7.2(목) 10:00
		B. 방과후아카데미 팀장	
		C.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팀장	
		D. 다문화 교육기관 대표	
3그룹	공공 및 민간지원기관 전문가 집단	A.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담당자	7.3(금) 14:00
		B. 도 교육청 교육복지 담당자	
		C. 초등학교 교육복지 담당교사	
		D. 청소년문화센터 대표	

나. FGI 방법 및 내용

□ 면접 방법

- 면접 방법은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3개의 대상별 특성에 따른 사전 질문지를 마련하고, 공개 토론(Open Discussion)을 활용하여 이루어졌음
- 공개 토론(Open Discussion)은 논의 방법이나 프로세스를 구조화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자들간에 스스로임없이 친숙하게 대화를 하며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법(kaner, Lind, Toldi, Fisk, & Berger, 2007)으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임

□ 주요 면접 내용

- 전문가 심층 면담 내용에는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의 효과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교육지원 현황과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함
-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의 효과성 증진과 활성화, 질적 제고를 위해 우선 시행이 필요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과제에 대한 전문가 초점 집단 면접(FGI) 질문을 통해 검토하여 정책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함
- 각 초점 집단별로 심층 면담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질적 자료를 내용분석의 방법에 따라 분석함. 즉 수집된 의견을 정리하여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활성화와 관련 주요 과제들에 대해 코딩(coding)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코딩된 내용을 면담 질문에 따라 상위 범주화한 후 이를 다시 하위범주로 구분함. 이를 정리하면 <표 V-2>와 같음

<표 V-2> 조사 내용

구 분	조사내용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참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에게 공부와 학교의 의미 · 청소년을 위한 지원기관에서 교육프로그램 특성 · 청소년 지원기관과 학교 교육의 차이 ·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와 장애요인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현황 및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관에서의 교육 지원 현황 및 과제 · 지원기관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특성 및 교육 여건 ·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와 과제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의 효과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 정책의 기본 특성 ·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 정책추진의 장애요인 ·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방향 ·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 정책의 성과와 발전 과제

2. FGI 조사 결과

가.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참여 현황

핵심 질문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 지원에 대한 기본 생각은 무엇인가?

참가자 정보

 참가자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 현) A 중학교 재학
 참가자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1 자퇴후 청소년학교 이용 경험자(약 3년 이용) • 현) A 대학교 재학
 참가자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3 자퇴후 청소년 쉼터 이용 경험자(약 3년 이용) • 현) 청소년 문화 활동가

□ 청소년에게 공부/학교란?

- Q. 공부란 무엇인가?
Q. 공부를 하는 이유와 목표는 무엇인가? 무엇에 중점을 두고 공부 하는가?

○ 진로: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를 위한 준비

(공부하면 떠오르는 것에) '진로'는 공부를 해야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어서 그렇게 적었다. '미래'는 공부를 해야지 미래가 어느 정도 보이기에 적었고.....(참가자 A)

미래의 꿈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가까이 가야 하는데.....(참가자 A)

공부를 평생 이어감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되어야만 그 전문성에 대한 보답으로 제가 사회에서 어떠한 위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참가자 B)

○ 상처: 기다림과 실망 그리고 탈출

저희 학교는 1학년 때 자율학기제를 했다. 하지만 시험이 없다보니 수행평가에 집중할 때가 더 많았다. 수행평가가 많아서 자율학기제가 아닌 것 같았다.(참가자 A)

졸업장을 얻기 위해서는 3년 동안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검정고시와 같은 다른 방법도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 3년 이상의 시간을 허비해서 아깝기도 했고,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애들만 밀어주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참가자 B)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아무래도 입시가 우선이었다. 성적에 따른 차별도 있었고…….(참가자 B)

사실 제가 중학생 때부터 자율학기제가 시작됐는데 기대가 굉장히 많았다. 어떤 것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많이 기대했었는데 현실은 단순히 학교 교육 정책상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참가자 B)

학교생활이 힘들지는 않았지만 제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환경이라고 느껴서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참가자 B)

공부 하려는 애들한테만 혜택을 주려는 게 보여서 공부에서 손을 놓게 되었다.(참가자 C)

선생님에 대한 실망감이 우선이었고, 학교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실망감도 컸다.(참가자 C)

학교 아이들이 무리지어서 사람들을 깔보는 게 싫었다. 제가 왕따를 당했었다. 여자 애들은 특히 자기들끼리 무리지어서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게 싫었다.(참가자 C)

○ 경쟁: 압박감과 좌절 그리고 의지와 의 싸움

뒤에서 더 잘해라하는 압박감이 커서 그 압박감에 의해서만 쫓아간다는 느낌이 든다.(참가자 A)

공부하다가 제가 좀 이기고 싶은 마음이 큰데 잘 못하거나 다른 애들보다 뒤처지는 것이 싫었다. 내가 못하니깐 짜증이 나기도 했고…….(참가자 A)

학교에서는 우열반과 일반학반을 가르치는 분위기가 달랐고, 그로 인한 압박이 강했다.(참가자 B)

의지를 갖고 공부를 해야만 계속 끌어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해도 주변에서 압박이 들어오거나 나 자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부담이 생기면 압박감이 생긴다.(참가자 B)

□ 청소년에게 센터란?

- Q. 센터에서 주로 참여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 Q. 학교 공부에 비해 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 Q. 센터에서 참여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감과 불만은 무엇인가?
- Q. 센터와 학교의 교육의 차이는 무엇인가?

○ 쉼터: 아늑하고 편안한 휴식의 공간

센터에서는 좀 더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학교에서는 살짝 불안감이 느껴졌다.(참가자 A)

사실 냉정하게 보면 학교에서 더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것 같다. 하지만 공부하는 것에서는 (센터가) 훨씬 편하다.(참가자 A)

청소년학교는 아무래도 자율적인 분위기다보니 공부를 하고 싶은 애들은 하고, 아닌 애들은 출석을 열심히 한다.(참가자 B)

○ 충전소: 부족함을 채워주는 생활형 복지의 공간

쉼터는 제 2의 가정이었고 집이었다.(참가자 C)

쉼터에서는 분기별로 의복이나 병원비도 지원해 줬고, 차량비로 용돈도 받고, 공적인 장소에 갈 때는 교통비도 지원 받았다.(참가자 C)

위생용품도 다 있어서 제가 사고 싶은 것이 있을 때만 사면 됐다. 심지어 그런 돈도 청소하면 용돈으로 주셨다. 이러한 점에서 걱정이 없다.(참가자 C)

○ 공작소: 색다른 경험 그리고 재도약을 꿈꾸는 모험의 공간

초등학생과 청소년이랑 같이 지내다보면 싸울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희가 초등학생 아이들을 챙겨주는 과정에서 책임감이 생겼다.(참가자 A)

꿈이 사회복지사라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배우고 경험해보고 싶다. 제가 센터에 들어가기 전부터 아이들을 좋아했다. 센터에 들어가면서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더 느껴져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었다.(참가자 A)

대학생 선생님들이 오시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다보니 학교선생님들보다 편하게 느껴진다.(참가자 A)

자원봉사로 온 대학생들은 현직 교사로서의 구체적인 교수법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방법을 가지고 와서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을 했다.(참가자 B)

청소년학교에서는 검정고시나 최저점수를 따서 자기 학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준다.(참가자 B)

그래도 쉽터 들어가서 제가 정말 많이 바뀔 수 있었다. 예전에는 인터뷰 같은 것도 할 생각을 못했고, 동아리 드는 것도 어려워했다.(참가자 C)

쉽터에서는 다양한 아이들 프로그램과 연합활동을 하고 있다.(참가자 C)

○ 사랑방: 진실한 대화가 오가는 만남의 광장

청소년학교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방향설계를 위해 있는 학교에서 지원을 받게 되었다. 아직은 스스로에게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참가자 B)

정말 소장님을 많이 의지했다. 사고 친 것도 수습해주시고, 여러모로 소장님께 죄송하고 감사하다.(참가자 C)

□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Q. 센터에서 새롭게 제공받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Q. 위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나 중요하며 얼마나 시급성을 요하는가?

○ 체험형 진로 프로그램

청소년학교에서도 직업 체험을 위해 현장 체험학습을 갔지만 솔직히 수박겉핥기로 느껴졌다.(참가자 B)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까지 부족했던 것 같다.(참가자 C)

○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취미활동

피아노를 배우는 것이 꿈이었다. 초등학교 때 피아노 반이 있었는데 동아리를 한 개 반 밖에 지원할 수밖에 없어서 컴퓨터만 6년을 공부했다. 이제는 피아노를 배워보고 싶다.(참가자 C)

○ 센터 적응을 위한 O/T 프로그램

미리 경험해본 사람들을 데려와서 낯설지 않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참가자 B)

□ 교육 프로그램 참여 시 주요 장애 요인은?

- Q. 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 Q. 어려움의 주된 원천은 무엇이며 현실적인 극복 방안은 무엇인가?

○ 해소되지 않는 갈등

(검정고시 학원, 시청소년 센터) 단체를 대상으로 한 선생님이 수업을 하니까 학생 개개인을 봐줄 수가 없다. 뒤쳐진 학생은 진도를 못 따라간 채 다음 수업에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버린다. 그래서 수업을 한 번 놓치면 힘들다. 그렇다고 계속 인강(인터넷 강의)으로만 들을 수도 없다. 제 경우에는 수업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계속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여쭙봤다.(참가자 B)

(지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검정고시 준비에 집중되어 있다는데) 동의한다. 검정고시 이후의 대학 입시, 취업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검정고시를 위한 지원에 치우치다보니 그 이후에 처치를 받는 것이 너무 힘들다.(참가자 C)

○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변 환경

그런데 그날 저녁에 쉼터 명함을 가져온 걸 부모님께 들켜서 심하게 맞았다.(참가자 C)
저와 어머니 사이에서 소장님이나 쉼터 선생님들이 많이 고생하셨다. 저희 어머니가 말투가 세고 억지가 심해서 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나면 진이 빠져있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기도 했다.(참가자 C)

나.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현황 및 실태

핵심 질문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학교밖 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종사하는 실무자로서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 지원에 대한 기본 생각은 무엇인가?

참가자 정보

 참가자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지역아동센터 대표
 참가자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방과후 아카데미 담당자
 참가자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팀장
 참가자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다문화교육연구기관 대표

□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공부/교육이란?

- Q.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공부/교육이란 무엇인가?
 Q.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공부/교육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삶 그 자체,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시간

저는 학습적인 것만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학습이 아닌가 한다.(참가자 A)

아이들이 잘 살기 위해서 잘 산다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아이

들에게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한다.(참가자 B)
아이들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공부라고 생각한다.(참가자 C)

○ 꿈과 희망을 키우는 여정

아이들이 학습적인 것에 먼저 다가서는 것보다 ‘어떻게 뭘 하면서 살지’라는, ‘내가 뭘 하면 좋을지’라는 것에 먼저 접근하고, 그 후에 학습의 필요성을 익히는 게 아이들에게도 좀 더 편하게 제시해 주는 게 아닌가 싶다.(참가자 B)

생각을 하게끔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적용시켜서 진행하고 있다. 자기 인생, 삶에 대해 고민해서 어디로 갈 것인지, 무엇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많이 생각하게 하고 있다.(참가자 B)

중·고등학교 학력조차 없으면 취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안다. 궁극적으로 학습이라는 게 학력을 취득하고 본인의 진로를 찾아가기 위한 것인데…….(참가자 C)

○ 삶의 에너지원으로서 자존감 함양

(교육은) 이들이 일탈이나 범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존감을 높여주거나 인성을 키워주는 과정이다.(참가자 D)

자존감을 세워주는 부분들에 가장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다.(참가자 A)

자존감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이들 중에는 어쩔 수 없는 가정환경으로 인해 내적인 힘이 약한 아이들이 많다. 그래서 본인의 내적인 힘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필수교육으로 운영하고 있다.(참가자 A)

교육 과정에서 자존감도 키워줘야 되고…….(참가자 B)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센터란?

- Q. 센터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 Q. 참여 아동·청소년의 특성, 교육적 요구, 교육 여건은 어떠한가?
- Q.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성격과 효과는 무엇인가?

○ 자기개발, 진로체험,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통한 자립 기반 확충

동아리 활동이라고 해서 초등부는 본인들 수준에 맞는 몇 개의 활동 중에 선택하게 하고, 청소년들은 나름의 동아리들을 확보해서 그 안에 선택해서 들어간다.(참가자 A)

청소년들이 있다 보니 진로와 관련해서 직업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확장하고 있다.
(참가자 A)

자기개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외부로 나가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참가자 B)

저희 기관은 통합적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본인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한다.(참가자 C)

자립 관련해서 직업훈련이라든지, 직업체험을 하고 있다.(참가자 C)

○ 학업 수행을 위한 사회적 안정망 구축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부는 조금씩 한다. 공부의 많은 부분을 담보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하고 있다.(참가자 A)

학업복귀 같은 경우 초중고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취득할 수 있게 한다. 학업중단 숙려상담을 통해서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검정고시 반 외에도 기초학력 반, 수능대비 반 등을 추가적으로 운영한다.(참가자 C)

다문화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안전망이다. 제주사회의 안전망을 제대로 갖추기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본다.(참가자 D)

○ 수혜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참여와 만족도 향상

저희 센터에 들어오면 꼭 해야 하는 교육들이 몇 가지 있다. 평화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일정하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게 한다. 그 외의 것들은 본인들이 선택하게 한다.(참가자 A)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많다. 아이들이 결정해서 아이들이 만든 프로그램들은 엉망이 되더라도 만족도가 높다.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 그래서 제가 그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된다. (참가자 B)

저희는 프로그램 운영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선호하는지 물어본다. 그 아이들이 충분히 본인이 원하는 바를 말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하면 결과가 원하지 않던 방향으로 나오더라도 받아들이고 스스로 잘 커간다.(참가자 C)

○ 지속적인 돌봄과 보살핌의 공간

저희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을 본다.(참가자 A)

저희가 짧게는 1년, 길게는 7년까지 만난다.(참가자 B)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에서 나오게 되면 친구들이 진짜 갈 데가 없다. 이 친구들이 지역아동센터에 가기엔 나이가 많아서... 안 가고 집에만 있고, 친구들 만나자니 친구들은 다 학교 가버려서, 센터로 자연스럽게 알아보게 된다.(참가자 B)

저희는 1년 과정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아이들이 학력을 취득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 학교를 가는 경우는 종결하고 그 외에는 24살까지 쪽 유지한다.(참가자 C)

□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 Q. 근무 기관에서 새롭게 추가하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 Q. 위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나 중요하며 얼마나 시급성을 요하는가?

○ 체험형 진로 프로그램

좀 더 나아가 잡 월드 같이 판에 막힌 프로그램 말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같이 됐으면 좋겠다. 한번만 가서 보는 게 직업체험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실습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장을 많이 보고 느끼면서 그 직군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참가자 A)

몇 년 전부터 아이들의 학년이 높아지면서 진로에 대해 접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전을 진로로 잡으면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데, 막상 제주도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참가자 B)

제주도는 아이들의 진로직업 지원체계가 체계적으로 된 경우가 별로 없다. 그런 것을 보완해야 어디서든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다.(참가자 B)

육지로 가면 다양한 게 많다. 그런데 제주도의 아이들은 혼자 제주를 벗어나는 것을 꺼려한다.....그래서 제주도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확충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참가자 C)

○ 1:1 개별 지원을 통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이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부모와의 소통이 제주 (다른)아이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 어휘능력이 부족하고, 자연스럽게 학습능력이 낮다. 그런데 이 다양한 아이들을 모두 1:1로 지원하는 것은 저희 기관의 역량으로는 힘들다.(참가자 A)

한창 공부에 대한 흥미도 생기고 성적도 오르던 중에 학원 지원이 끊기게 돼서 수소문해서 퇴임하신 자원봉사 선생님 1:1수업을 하면서 A고등학교에 들어갔다. 한 반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지원도 필요하지만, 1:1 기초학습을 해 줄 수 있는 강사진을 만들면 어떨까.(참가자 B)

다른 센터와 연결하면서 기초학습을 1:1로 매칭하는 프로그램을 해봤다. 그 아이가 평소 수학을 너무 어려워했는데 1:1 매칭을 하고나서 수학점수가 크게 올랐다.(참가자 C)

○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생활 적응 프로그램

지금은 한국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고, 문화적 충격이 크며, 전체주의적 혹은 공동체주의적 입장에서 개인주의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3가지 흐름이 공존하는 시기인 만큼 이런 내용도 잘 담아야 한다.(참가자 D)

지금까지는 이 교육철학이 맞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근대화 등 다양한 포스트 시대에 대해 말하듯 한국에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교육철학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참가자 D)

○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

대부분 교육자원봉사가 2~3월에 만나서 7월이면 종료된다. 3월 한 달은 친해지면서 시간이 다 가고, 이후에 라포 형성이 되고 교육적인 효과가 좀 나타나려고 하면 끝나버린다. 저희가 욕심을 부려서 최소한 1년은 해줘야 된다고 해도, 1년을 하겠다고 오는 학생들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면 좋겠다.(참가자 A)

기관에서 스스로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관리할만한 여력이 되지 않는다. 또 자원봉사는 그야말로 일회성이고, 본인들 시험기간에는 수업을 못하다보니 아카데미 아이들 시험 준비도 어려워진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체계를 만들면 좋겠다.(참가자 B)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코디네이터라고 청소년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학생을 배치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한다.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대학생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학습비를 지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참가자 B)

검정고시를 하게 되면 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자를 얼마나 끌고 가느냐에 이 사업의 성공여부가 달린다. 이 인프라를 찾는 게 어렵다.(참가자 C)

□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주요 장애 요인

Q. 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Q. 어려움의 주된 원천은 무엇이며 현실적인 극복 방안은 무엇인가?

○ 역할, 개념의 혼재

교육과 복지의 구분을 두부 자르듯이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르지 말아야 할 곳을 급갈라서 서로 역할들을 제한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다.(참가자 A)

교과에 대한 부분, 즉 학습은 학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그런데 다시 학습까지 지원하게 되었다. 저희가 학교 밖에서 해야 할 것들, 공부의 범위를 넓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은 다 혼재되어 있는 거다.(참가자 A)

‘아카데미’라고 해서 학원의 개념으로 많이 본다. 그런데 이거는 지역아동센터하고 똑같은 사업이다. 처음 국무총리직속산하기관에서 만든 기관이라서 퀄리티 있는 사업명을 붙이다 보니 ‘아카데미’가 들어갔고, 그 후에 잘못된 인식이 퍼진 것이다. ‘방과 후’에서 학교 수업 방과 후를 생각하시고, ‘아카데미’에서 학원을 생각하신다.(참가자 B)

‘취약계층’이란 단어는 경제에 부합하는 단어이다. 그런데 앞에 제주지역을 붙여서 취약계층이란 단어를 제주답게 개념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조금 더 가면 ‘위탁 청소년’도 있다. 이를 모두 취약계층으로 - 다른 개념을 사용하더라도 -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아동과 청소년이 됐으면 좋겠다.(참가자 D)

아이들을 어떤 인간으로 키울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있다면 역할 나눔도 되고, 그 역할 나눔 속에서 협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것이다. (참가자 A)

○ 기초학력 부진, 높지만 넘어야 할 벽

학교에서 애들이 교과과정을 따라가지 못해서 불행하더라.(참가자 A)

이런 아이들이 기초학력 부족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이 많다.(참가자 A)

아이들이 수업에 대해, 학습에 대해 어려워하는 것이 많아서….(참가자 C)

검정고시를 준비하려고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기초학력이 없다는 것이다.(참가자 C)

그 친구들을 대해 보면 학습에 대해 목마른 친구들이 많다.(참가자C)

○ 수혜 대상자: 폭넓은 연령층, 다양한 요구

저희는 방카처럼 다양한 아이들이 온다.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 가정은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분노조절 문제로 학원에서 배제 되는 아이들까지 온다.(참가자 A)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나 욕구도 굉장히 다양하고 아이들의 연령층도 폭넓다.(참가자 A)

지역아동센터도 대상 자체가 폭이 넓다. 교과학습은 학년별로 들어가야 한다. 저희도 강사를 쓰는데 5개 학년을 2시간동안 하려면 한 반에 배분되는 시간이 15분 정도밖에 되지 않게 된다.(참가자 B)

○ 교사 수급의 어려움: 전문성과 사명감을 요구하는 일

저임금의 일을 하다 보니 양질의 강사, 양질의 아동복지강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하는 것을 지켜보면 답답할 때가 많다.(참가자 A)

방과 후 아카데미 일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 일도 많고, 행정적인 부분도 많고, 요구가 많아서 그렇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주도는 물론 전국으로 가도 이 일에 오래 종사하는 선생님들이 많지 않다.(참가자 B)

사명감이 없으면 방과 후 아카데미 일을 못 한다고 하신다. 내가 이 직업을 통해 경제적인 부분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 일을 택한다면 절대 못한다.(참가자 B)

방과 후 아카데미 선생님들의 질도 문제이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 교수급 분들이 가르치고 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자리 잡기에는 아직도 멀었다.(참가자 D)

○ 비뚤어진 교육관, 복잡한 교육 환경

부모님과 이야기 하다보면 일단은 좋은 학교를, 인문계를 보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그럴듯한 직장을 가졌으면 하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한계에 부딪힌다. 이게 학부모 개인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 사회가 지나치게 학력위주로 돌아 가다보니 빚어지는 문제이기도 하다.(참가자 A)

특히 학부모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소리를 못 낸다.(참가자 A)

교육의 질이 한국은 경제와 맞물려 있다. 방과 후 아카데미를 늘리려고 하면 학원에

서 모두 들고 일어난다. 외국에서는 수영, 축구, 테니스, 플룻이나 피아노, 그림 등 과정을 모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한국에서 그렇게 다 되면 하면 학원들이 가만히 있겠는가(참가자 D)

부모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지 아이들 스스로 맞는 교육을 받는 경우는 없다. 교육청에서 진행되는 것 말고는 아이들을 데려오기 상당히 어렵다. 왜? 부모들이 기피하기 때문이다.(참가자 D)

학교도 학부모도 제주에서 우리 아이를 교육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 교육을 위해서는 어쨌든 육지에 보내야 한다, 육지에 있는 좋은 대학에 몇 명 들어가느냐, 학교는 이런 철학이다.(참가자 D)

학교 밖도 마찬가지이다. 부모들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많지, 아이들이 스스로 '나 학교 관두고 공부 더 할래'하는 친구는 몇 명 되지 않는다.(참가자D)

□ 그 밖의 다른 의견

Q. 그 밖에 다른 의견은 무엇인가?

○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 마련

이게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대상의 폭을 넓히는 것이 제대로 가는 것이다.(참가자 B)

현재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총 5학년을 운영하고 있다. 담당 선생님들은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도 말씀하신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고등학교 과정도 중요한데 이를 지원해주는 곳이 없다 보니 그렇다.(참가자 B)

도청·교육청이 청소년교육에 대해 협의하고 함께 지원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만약 이걸 기회로 해서 좀 더 그 벽이 좁혀지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겠지만…….(참가자 D)

○ 학부모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필요

제주도 취약계층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FGI를 취약계층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참가자 D)

다.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의 효과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핵심 질문 

-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교육청, 초중등학교, 교육복지업무, 자기주도학습센터 등)의 종사자로서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 지원에 대한 기본 생각은 무엇인가?

참가자 정보

 참가자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담당자
 참가자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교육청 교육복지 담당자
 참가자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초등학교 교사, 교육복지 교원동아리 소속
 참가자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청소년문화센터 대표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공부/교육의 의미

- Q.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공부/교육이란 무엇인가?
 Q.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공부/교육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인문학적 소양에 기반한 삶의 잣대 세워주기

그런 교육의 문제 중 하나는 기능적 역할만 한다는 것이다. 저는 이런 취약계층 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에 인문학 교육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예술일 수도 있다. 세상을 크게 보게 하고,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문학적 소양이다. 자기 삶에 대한 자부심, 자기결정

권,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하는 것이다.(참가자 D)

□ 교육 지원 정책의 기본 성격

- Q.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해) 근무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교육 정책은 무엇인가?
- Q. 위의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대상 아동/청소년의 특성, 교육적 요구, 교육 여건은 어떠한가?
- Q. 근무 기관에서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성격과 효과는 무엇인가?

○ 학습 활동 지원, 전방위적 돌봄 및 예산·장학 지원

제가 교육복지사라서 취약계층 아이들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야 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사례관리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다든가 부서 예산에서 긴급으로 지원해 달라, 가정방문을 통해 실태를 파악해서 월 10만 원 씩 최장 6개월 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는 것 밖에 없었다.(참가자 B)

도교육청에 와보니 고등학생 사례를 관리하는데 사업비 중에 장학금이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주는 ‘희망키움장학금’이라는 근로장학금이 있다.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학교들은 계속 추가예산을 신청한다. 저희가 긴급지원을 할 수 있게끔 공문을 내려 보내고, 그 이후에는 근로장학생을 많은 아이들이 신청하게 한다. 모든 학생들에게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가정상황을 파악하고 정말 필요한 아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참가자 B)

초등학교에서도 기초 기본교육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 예전에는 진단평가 수준에서 학습부진을 평가했지만 지금은 1:1 대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이들의 수준을 확인한다.(참가자 C)

최근에 담당선생님과 가정방문을 했을 때 심각한 사례를 발견했다. 저희는 학교 기관인 만큼 그 아이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참가자 C)

○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체계적 지원 노력

‘혼디거넌팀’에서 기초학력과 다문화·탈북·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유관부서끼리 지금은 청 내에서 같이 협의하고 있다.(참가자 B)

저희는 올해부터 교육복지실 명칭도 바뀌었다. 교육복지실이 'Wee클래스.교육복지실'로 통합되었다. 지역청에도 Wee센터 혼디거념팀으로 통합됐지만 아직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고…….(참가자 B)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 어느 기관에 연락해야 할지 알 수 있게 만들어서 배포를 했다.(참가자 B)

(A학교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팀에서 교실을 관찰하고, 아이가 도움이 필요한 아이인지 여부를 확인하면 교육청에서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었다. 이 아이는 잘된 케이스이다.(참가자 C)

청소년을 위한 법인 자체의 기본 취지는 교육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반 사업을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저희 기관의 임무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에 주력하고 있다.(참가자 D)

○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학생의 발굴과 지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뭘 지원해주려고 연락했다가 발굴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결국엔 드림스타트로 연계해달라고 해주셨는데 그 선생님도 깜짝 놀랐다고 한다. 조손 가정이었다고 한다. 그래도 이걸 통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가정 문제를 알게 되셨다.(참가자 B)

가정방문을 하지 않았으면 그 아이의 상황을 절대 알 수 없었을 사각지대였던 것이다. 취약계층으로 등록되지 않았고, 학교 출석율이 좋은 데다 자기표현도 잘 안하는 아이라 양전한테, 문제가 있는 아이가 아니었다.(참가자 C)

□ 새로운 교육 정책(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 | |
|---|
| <p>Q.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해)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할 때 새롭게 추가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무엇인가?</p> <p>Q. 위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나 중요하며 얼마나 시급성을 요하는가?</p> |
|---|

○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 청소년 자립 시스템 구축

이 아이들이 제대로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취업을 할 수도 있다. 자기 경력을 쌓을 수도 있고, 어렵더라도 창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자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이런 시스템이 정말로 필요한 시기이다.(참가자 D)

중 고등학생들 취약계층을 다룰 수 있는 기관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들 간의 상호 횡적인 연결이 필요하고, 그 아이들이 컸을 때 청년기에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숙제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인프라에는 인턴십도 있을 수 있고, 실질적인 체험교육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더 큰 내일센터’나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비롯한 각 사업체들이 지원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좀 더 진행되어야 한다.(참가자 D)

○ 시급하고 간절한 바람,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정신건강위원단이나 지역사회기관에 의뢰를 했지만 문제는 각 기관별로 하고 있는 영역이 다르다는 것이다. 여기서 원-스톱 시스템과 같이 통합될 필요성을 느꼈다. 원-스톱 시스템으로 의뢰를 하면 17개의 팀에서 환경적 지원 등을 하고 한 군데에서만 연락을 받을 수 있게끔 개선이 필요하다.(참가자C)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누구와 교류하는지는 잘 모른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으면 위급할 때 지역아동센터에 연락해서 아이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안에서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학교 밖에서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 간의 하나의 연락체계가 있다면 아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참가자C)

경기·전라에 좋은 모델이 있다. 모든 취약계층을 하나의 센터로 보고, 그 안에 도, 교육청, 지역사회 관계자를 한곳에 모아놓고 진행을 한다.(참가자C)

이처럼 기관 간에 연계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서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역할분담이 확실해지면 네트워크 부분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기관들 상호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환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참가자D)

통합적인 체계가 갖춰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센터들이 모여 연계하더라도 일관된 철학, 일관된 교육방향에 기반 한 종합 돌봄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참가자 D)

○ 단기간으로는 안 되는 일, 꾸준한 돌봄

저희 프로그램 자체는 일반적으로 짧게는 1달, 길게는 3개월 기간 내에 이루어진다. 그런데 3개월 사이에 큰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다.(참가자 A)

단지 매칭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아이들을 케어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정착하는지도 확인한다. 이 아이들은 여전히 성년이 되더라도 여전히 돌봄이 필

요하다.(참가자 D)

이런 시스템(통합적 지원)이 청년기까지 쫓 이어지기만 해도 충분하다. 초등학생 때 부터 성장기를 거쳐, 청년까지 누적만 되어도 우리나라의 교육적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움직임은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참가자 D)

□ 교육 지원 정책 추진 시 주요 장애 및 애로 사항

- Q.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해)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할 때 부딪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Q. 어려움의 주된 원천은 무엇이며 현실적인 극복 방안은 무엇인가?

○ 역할, 개념의 혼재

취약계층을 어디서부터 봐야 될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진입시점이 다 다를 것이다. 다문화, 탈북, 장애인, 조손가족 등 다양한 아이들이 있지만 평범한 아이들 중에서도 취약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하는지가 고민이다. (참가자 A)

이 취약계층이라는 학생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 제가 2007년도에 교복투(교육복지투자)사업에 참여했었다. 당시 처음 참여했을 때는 취약계층에 대한 기준안이 마련 되서 그 범위가 딱 정해져 있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취약계층에는 다문화, 탈북, 학교 밖 청소년, 정서적으로 위기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포함이 된다. 그러다보니 학교 전체 아이들까지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 아이들에게 지원 해야 하는 부분도 늘어나게 된 것이다.(참가자 B)

○ 쏟아지는 민원, 역량의 한계

그런 아이들뿐만 아니라 정서 위기 등 정말 아이들이 다양하다. 복지사가 있어야 하지만 없다.(참가자 A)

교육복지사 배치가 줄어드는 것은 그 분들 중에 퇴임하시거나 그만두시는 분들로 인해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복지사를 경험해 본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업무도 경감되고, 학생들 발골도 잘 이루어져서 계속 관련 건의를 하셨다고 한다.(참가자 B)

공문이 내려가자마자 굉장한 민원이 들어왔다. 우리 팀원 1사람이 1통화만 받아도 7 통화인데 제가 어제도 3번이나 받았으니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참가자 B)

이 소양을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줄 수 있는 강사를 본 적이 없다. (참가자 D)

○ 진로의 또 다른 장벽, 3Rs 기초학습기능 부진

중학교 아이들 수학을 따로 가르쳐봤는데 중3 아이들 중에서도 아주 기초적인 지식도 쫓아오는 애가 없었다.(참가자 D)

바리스타 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너무 잘한다. 문제는 이걸로 자격증 시험을 봐야 하는데 애들이 국어능력이 떨어져서 시험을 못 본다. 연습을 시키는 것과 별개로 이런 교육은 또 따로 해야 하는 상황이다.(참가자 D)

최소한 초등학교에서 가능한 학습 능력을 갖춰서 올려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참가자 D)

○ 뒤엎힌 실타래, 악순환의 고리

일단 취약계층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상황, 가정적 상황이다. 특히 제주도가 이혼율이 높고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도 높은 편이다. 그 안에서 위기 청소년들이 재생산 되는 구조이다. 이 구조가 쉼터로 나타나기도 하고, 지역아동센터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아이들의 자존감이 매우 낮고, 성장 동기나 자극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적다. 성취동기도 없고, 적절한 학습 분위기를 갖추는 것도 어렵다.(참가자 D)

이 아이들은 학교를 나와 아르바이트를 한다. 아이들은 아르바이트의 이직과 실적을 반복한다. 경력형성은 안되고, 벌어들인 돈은 다시 유흥비로 쓰이다가 다시 아르바이트를 한다. 졸업을 하든, 학교를 그만두든, 어른이 되든 그 상태로 그냥 가게 된다. 결국 이 아이들이 청년기에 접어들어도 이런 생활은 이어지고 뚜렷한 전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다.(참가자 D)

○ 왜곡된 인식, 연대의 어려움

작년에도 한 아이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담임선생님이 1년 동안 한 번도 상담 의뢰를 안 하시더라. 제가 너무 궁금해서 왜 상담을 안 하시냐고 여쭙봤더니 자기가 잘못해서 끌어안고 가야되는 아이인줄 아셨다고 한다. 많은 선생님들이 교육철학으로 인해 어떻게든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시기도 한다.(참가자 C)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는 순간 부모는 죄책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내 잘못

으로 인해 아이가 잘못됐다는 책임소재를 회피하려 들어 인정하지 않는다.……부모가 내 아이는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 학교에서는 학교 할 일만 하라고 정리해버린다. 이런 부모의 반응은 중학교 때는 더 심해진다고 한다.(참가자 C)

(도청과 모이려고 했으나) 왜 교육청과 모여야 하나며 도청에서 한 번 만나고 끝나버렸다. 교육청에 제안을 했는데 한 번 무산이 되었다. 사회복지연구센터와 해보자고 올해 초에 다시 모였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 쉽지 않은 게 거기서는 항상 학교가 어렵다고 한다.(참가자 B)

○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과 경직성

관리자가 (예산을 관리) 하는 곳과 안 하는 곳에서의 차이가 정말 크다. 질 적으로 달라진다.(참가자 B)

그것도 예산을 쓰는 것을 열어주면 좋은데 ‘이 사업에 이렇게 쓰라’고 한정시켜서 내려와서 더 필요한 사업이 있더라도 예산을 건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학교에서 예산이 풍족하다고 느껴본 적은 없다.(참가자 C)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인식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돈을 주시니 돈을 써야 한다는 부담감만 생긴다. 생계비 지원, 학원비 지원 등 아이들의 생활을 보고 필요한 곳에 지원해야 하는데 자꾸 이 돈을 사업운영을 위해 써야 하는 예산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업무 담당자들이 특히 그런 부담감이 크신 것 같다.(참가자 C)

□ 그 밖의 다른 의견

Q. 그 밖에 다른 의견은 무엇인가?

○ 특성화고의 아이러니: 무동기의 재생산

예전에 상고나 공고가 있었을 때는 평가가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은 특성화고를 문제아들이 가는 학교로 낮게 본다.(참가자 D)

특성화고 B나 특성화고 C에서는 일반고반만 지원하고 다른 아이들에게는 관심이 없다. 아이들은 학교를 가도 재미도 없고, 학업에 관심도 떨어지게 된다. 아이들이 자기 전망을 상실하게 됐다는 것이다.(참가자 D)

입학하자마자 3개월 만에 학교를 그만두고 은둔 생활을 하더라. 학교에 가지 않는

이유를 물었더니 학교가 멀고, 막상 학교에 가도 흥미도 없어서라는 이유를 들었다. 학교에 늦다보면 벌점을 받고, 벌점을 받으면 더 학교에 가기 싫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반복하다가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참가자 D)

얼마 전에 △△고에 갔더니 ◇◇대학교 2명 입학한 것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크게 걸려있더라. 왜 △△고에서 저런 걸 크게 걸어놓는 거냐. ▽▽고나 ▲▲고도 그렇다. 특성화고도 점차 엘리트화된다는 것이다.(참가자 D)

○ 2020년 생경한 위기, 코로나

저희 캠프가 집중캠프다 보니 아이들을 모두 지어서 시간을 들여 협력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고자 했다. 그 계획을 이끌어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졌다. 개인 활동이라서 아이들은 재미가 없고, 학습에 대한 흥미가 떨어진다.(참가자 A)

취약계층 아이들은 코로나로 인해 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방임되어 있는 상태이다.……코로나19 때문에 20명 정도 가정방문을 갔었다. 그런데 어떤 초등학생은 온라인 수업을 하는 와중에 휴대폰만 보고 있고, 사람이 가도 아는 척도 하지 않는다. 터울이 있는 고등학생은 게임중독이라서 연락도 안 됐다.(참가자 B)

지금 아이들이 학교 오기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우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또래 관계에서 편하게 말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예 없다. 밥 먹자마자 교실에서는 자기 자리에 앉아야 하고, 다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서로 말하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다.(참가자 C)

중학교 반에 아이가 학교에 안 와서 연락을 했더니 아이가 학교가기가 싫다고 대답했다. 이유를 물으니 학원에서든, 집 주변에서든 만나서 이미 친해진 애들 사이에서 낄 수가 없다는 것이다.(참가자 C)

기초학력도 문제지만 건강도 문제이다. 코로나 이전의 교육복지를 논하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사실 코로나로 인한 문제들이 올해 이후에 산적할 것이다. 특히 내년엔 직격탄이 될 것이다.(참가자 C)

3. 요약 및 시사점

가. 요약 및 과제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인식 및 과제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은 공부를 진로, 즉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인식하며, 때로는 의지를 갖고 공부할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입시 경쟁 속에서 압박감과 좌절을 경험함. 그들은 또한 획일화된 교육과정, 교사 편견, 따돌림 경험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생활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며 졸업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탈출을 기도하였음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은 자신들에 대한 교육지원센터를 쉼터(아늑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 충전소(부족함을 채워주는 생활형 복지 공간), 공작소(색다른 경험과 재도약을 위한 모험 공간), 사랑방(진실한 대화가 오가는 만남의 광장) 등으로 인식하고 있음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은 체험형 진로 프로그램,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취미활동 프로그램 등 좀 더 현실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일부는 검정고시 이외에 좀 더 고차적인 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음
 - 일부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은 교육지원센터 적응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며, 부모님의 반대로 교육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호소하고 있음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현황 및 과제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을 지원하는 실무자들은 공부를 삶 그 자체, 곧 기쁨과 행동을 나누는 시간이자 아동·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여정으로 바라보며, 교육의 기본 성격을 삶의 기본 소양으로서 자존감을 높이고 인성을 함양하는 것으로 인식함
 - 그리고 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학업 보충 및 학업 복귀를 돕는 제2의 학교이자 지속적인 돌봄과 보살핌을 제공하는 열린 공간으로 바라보고 있음. 또 교육지원센터에서 자기개발, 진로체험, 진로탐색 등 진로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의 자립 기반을 확충하며, 수혜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

여 그들의 참여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실무자들은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경험으로 영그는 체험형 진로 프로그램과 그들의 성장과 발달 유연성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1:1 개별지도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또한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생활 적응 프로그램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 더불어 실무자들은 교육과 복지 사이에서 자신들의 역할 행동에 대해서 개념적 혼란을 겪고 있으며, 수혜 대상의 연령 범위와 요구의 다양성,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교사 수급의 어려움, 한시적이고 체계성 없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체계, 왜곡된 학부모 인식 등을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주된 걸림돌로 인식함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을 지원하는 실무자들은 또한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의 기초학력 부진이 검정고시와 같은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주된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중학교 졸업 이후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함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 및 과제

- 공부나 교육의 성격에 대해서 교육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의 실무자들은 교육이 기능적 역할에서 벗어나 아동·청소년들이 삶의 잣대를 세울 수 있도록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음
- 교육지원 정책기관 실무자들은 주로 기초학습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전 방위적인 돌봄과 예산 및 장학금 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체계적 지원과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학생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함
- 또한 청소년 자립 시스템과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단기간 지원보다는 꾸준한 돌봄 및 성장지원 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더불어 수혜 대상의 범위에 대한 혼란, 쏟아지는 민원으로 인한 대응 역량의 한계, 돌봄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연대의 어려움,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과 경직성 등을 교육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주된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음
- 그리고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의 기초학습기능 부진이 교과학습 및 진로 개발에

주된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그들이 경제적·구조적으로 취약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실직과 이직을 반복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또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몰려 있는 특성화고의 교육지원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색다른 교육 환경에 대한 점검과 대책도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음

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한 기초교육 강화
 - 읽기, 쓰기, 수학 등 기초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충학습 프로그램 지원
 - 진로의 날, 진로 주간, 진로박람회 등 진로 탐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원
 - 독서의 날, 독서 주간, 작가와의 대화 등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창의적 인성 개발 프로그램 지원
 - 체육의 날, 음악의 밤, 영화박람회 등 심신 단련과 심미적 감성을 함양하기 위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 지원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상처 회복과 관계 개선을 위한 심리적 치유 공간 확충
 - 스트레스 해소, 불안 감소 등 심리적 면역력을 증진하기 위한 정서조절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학대, 따돌림, 낙인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자존감 증진, 갈등 해결, 게으름 탈출 등 회복 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한 자기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편견 극복, 차별 해소 등 사회심리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다문화감수성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부모 인식 개선과 부모-자녀 관계 회복을 위한 부모 코칭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통합 네트워크 구축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상담 창구 개설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단체들의 협의체 구성
- 공동체 안녕 증대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청소년 동아리 활동 육성 및 사회적 참여 기회 확대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기본 생계와 자립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확충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요원들의 전문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요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보급하기 위한 관련 기구/단체와의 연계망 확충

VI. 논의 및 정책 제언

1. 요약 및 논의
2. 정책 제언

VI. 논의 및 정책 제언

1. 요약 및 논의

- 본 연구는 기존 아동·청소년의 성장 지원 정책이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재학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학업유예, 학교 부적응 학생을 비롯한 학업중단 청소년 등 위기학생인 경우는 지역사회 관계기관들의 책임이 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을 위한 통합적 교육지원체제 구축을 모색함. 특히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전 생애에 걸친 삶을 조망하는 관점에서 변화된 사회현상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지원체제의 혁신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제주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현황과 국내 및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의 교육지원 기관 이용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 요구를 조사하고, 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지원 현황 및 실태, 요구 사항을 조사하였음. 또한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 수혜자, 관련기관 관계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여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 효과성 제고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음
- 제주지역 학령인구인 아동·청소년은 2020년 기준 제주지역 114천명으로 전체 인구 67만 대비 17%를 차지함. 이중 19세 이하 수급권자는 6,072명(2018년 기준)으로 5.3%의 비중을 차지함. 학업중단자는 2019년 기준 513명으로 전체 학생의 0.7%를 차지하고, 고등학생이 237명(1.2%)으로 초등(156명, 0.4%) 및 중학생(120명, 0.6%)보다 월등히 높음. 고등학생은 질병, 가사, 부적응에 의한 자퇴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함. 다문화학생은 2020년 기준 2,259명으로 전체학생의 2.9%를 차지하고 초등학교 다문화 학생(1,837명, 4.5%)이 중·고등학생보다 많이 분포되어 있고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전국적으로 2018년 기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중단율이 1.03%를 기록하고 있어 유의해야 할 대상임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분야 지원은 학교에서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이 지원되며 주로 학교 내에서 학습 및 문화, 심리 관련 활동 등이 이루어짐.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보호시설 등 아동·청소년 대상 사회복지관련 기관에서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는데 보호와 양육 관련 활동보다 교육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약함. 한편 2017년부터 교육지원 전문 서비스 기관인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도내 152개가 있으며 아동 대상은 지역아동센터가 65개소로 가장 많으며 전체의 50%를 차지함. 아동 대상 기관은 주로 돌봄과 보호,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상당수이며 아동학대 관련 기관도 분류되어 있음. 청소년 대상 기관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이 가장 많으며 청소년 관련 기관은 청소년활동과 상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련관, 지원센터 등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음. 지역아동센터 이용 현황을 보면 제주지역은 2015년도는 신고정원 1,984명 중 1,857명이 이용하여 신고인원 대비 93.6% 참여, 2016년도는 신고정원 대비 89.4%, 2019년말 기준 92.8%로 나타남. 제주지역 지역아동센터 수는 2015년 68개소에서 2020년 현재 66개소임. 사교육비 지출 현황을 보면 2019년 기준으로 300만원 이하 소득수준에 중학생 사교육비가 53.52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100만원 미만 소득수준에서는 고등학생 사교육비는 제로이며 중학생(29.96만원) 사교육비도 초등학생(43.07만원)보다 적은 수준으로 나타나,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매우 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국내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된 법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등 여러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주된 중앙 부처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임
- 중앙부처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의 드림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 교육부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꿈드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그리고 청소년쉼터,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임
-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관련 업무 담당 조직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서귀포시 포함)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들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 지원 정책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가 중심이 되어 마중물(자기주도학습) 배움터를 만들어 취약계층 관련 기관 및 읍면지역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음. 또한 교육청과 협력하여 기초학습 부진 해소를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교육기관의 협력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음. 더불어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기관은 돌봄이 주 기능이지만, 학습적 요구와 필요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 지원 정책은 2020년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 지원 계획을 통해 정서위기 지원, 기초학력 향상, 취약계층(다문화·탈북·저소득) 교육복지 통합 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단위학교별 혼디거넴팀을 구성하고 교육복지실 기능 확대를 통해 위기학생을 발굴하여 학생 유형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취약계층 학생지원을 포함한 학생복지 사업(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민간위탁), 취약계층 우수인재 육성사업(꿈사다리 장학제도)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음

○ 제주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긍정적인 면으로, 첫 번째는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있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돌봄과 더불어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두 번째로는 소외될 수 있는 특정 영역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도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임. 주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꿈드림(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과 가출청소년(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쉼터는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반면 부족한 면은, 첫 번째는 교육지원 대상인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대부분 동일하다는 점임. 사업별로 이중 또는 중복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업 대상이 대부분 동일함.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꿈드림과 가출청소년(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쉼터 사업을 제외하고는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 아동을 우선 대상으로 함. 두 번째는 사업 내용이 유사성 및 중복성을 띄고 있음.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운영 부처만 다를 뿐 돌봄, 급식 제공,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학습 및 교육 지원 등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또한 대상 또한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 내용과 지원 대상이 유사하다 보니 각 사업의 차별성이 떨어짐. 세 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취약계층 지원 관련 사업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취약계층을 다문화·탈북·저소득층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 종합해보면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 지원 정책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각각 추진함에 따라 이중 또는 중복 지원 형태를 띠고 있어 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맡는 별도 기관이 필요함
 -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의 급격한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 증가 등 예상 되는 사회적 환경에 대비한 교육콘텐츠 개발 및 적용, 일반화 보급을 위한 교육전문기관이 필요하며, 지자체-교육청-지역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공공성을 갖춘 아동·청소년 교육 전문기관이 요구됨
 - 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고른 학습 성취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학업성취 미도달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지역기관은 교육적 고민과 실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함.
 - 도청이 지원하는 지역사회기관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 지원정책들이 민·관이 함께 상호협력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이 연계·협력하여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교육복지사업은 개별 학교(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별로 운영형태 및 상태가 상이한 실정임. 따라서 학교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개별 학교 간의 조정과 개별 학교 컨설팅을 지원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연계된 지역사회 허브센터의 설립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논의하면, 응답한 아동·청소년들의 거주가족은 ‘부모가 있는 가정’이 전체의 60.0%로 가장 많고, ‘한부모 가정’이 전체의 30%로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현재 이용하고 있는 지역사회기관은 ‘지역아동센터’가 66.8%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함.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11.4%로 다음 순으로 나타남. 이는 설문조사 대상 기관 103개 중 66개(64.0%)를 차지하는 지역아동센터의 비중에 비춰 유사한 결과임을 확인해 줌. 교육지원기관의 소재지를 살펴보면, 읍·면지역은 제주시, 서귀포시 통틀어 30.7%로,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순으로 나타나 동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이는 제주지역 인구와 교육인프라가 동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 볼 수 있음

- 또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이 학교교육 외에 받고 있는 교육(사교육) 참여 현황은 학원, 개인과외, 학습지 구독 등이 응답자 전체의 50.2%로 나타남. 학원에서 가장 많이 수강하는 과목은 수학(36.6%), 영어(29.6%)가 전체의 66%로 나타났고, 예체능 학원을 수강하는 아동·청소년은 전체의 21.1%로 나타남. 또 참여 기간은 주 5일 동안 매일 학원을 다니는 아동·청소년이 전체의 32.0%로 가장 많고, 1회당 이용시간은 1시간 이상~2시간 이하로 수업을 받는 아동·청소년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3%로 나타남
- ‘스스로 공부하거나 다양한 교육을 받으려고 할 때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응답을 나타냄. 그 애로사항은 ‘학습지 등 교육 자료가 부족함’ 영역이 가장 크게 인식되고 있음. 이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음’,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음’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학습에 대한 의지나 교육 여건이 부족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음. 한편 ‘교육영역별 중요성’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기관의 관계자들이 인식하는 교육의 중요성보다 아동·청소년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영역별 교육제공의 시급성’에서 아동·청소년들의 인식 정도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창의적 체험활동(미술, 독서, 음악, 만들기 등)’이 가장 시급한 교육이라고 인식함. 그리고 지역사회기관의 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4점으로 만족도 평가를 하고 있어 대체로 적절한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 ‘지역사회 기관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임. 반면에 ‘가정의 교육 지원’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을 조금 넘는 응답을 하였고, 그 응답 중 ‘가족(부모님)이 나의 숙제 지도 및 학습 지도를 해줌’ 영역은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족도를 보임. 이를 통해 지역사회기관의 교육환경이 아동·청소년들의 교육지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 ‘교육방법에 대한 적합정도’에 대해서는 ‘실습, 견학 등 참여를 통한 교육’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이어 ‘강사의 강의를 통한 교육’, ‘토의와 질의응답을 통한 교육’ 순으로 나타남. 특히, ‘인터넷, 책 등을 통한 혼자 하는 학습’, ‘텔레비전, 라디오 등 대중 매체를 통한 교육 방법’은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의 적합도를 나타냄. ‘교육을 편리하게 받기 위한 여건’에 대해서는 좋은 선생님들의 좋은 무료 교육과 새로운 교육에 대한 요구

가 높게 나타남.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급증한 비대면 방법 중심의 언컨택트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 교육 방법 모색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온라인 학습 참여 확대에 따른 어려움’에 대하여는 ‘컴퓨터, 인터넷 통신 등 온라인 학습 환경이 충분하지 않음’ 영역이 평균 3.66으로, 가장 어려움이 높게 인식되고 있음. 온라인 수업의 확대로 온라인 수업을 위한 기반 시설의 보급 확대가 시급함을 알 수 있음. 이어 ‘온라인 학습 참여 방법이 불편함’, ‘온라인 학습 과정이 집중이 어렵고 이해가 잘 안됨’ 순으로 나타남. 이와 같이 ‘온라인 학습 과정에 집중이 어렵고, 이해가 잘 안됨’의 문제보다 온라인 학습 환경의 불충분이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학습 환경이 좀 더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음
- 교육지원기관 관계자의 조사에서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소속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 1순위에서는 ‘방과후 돌봄(부모 대리적 보호자 역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건강한 문화 공간의 역할’ 10.9%, ‘정서 및 사회적 발달 지원’ 순으로 나타남. 2순위, 3순위에서는 ‘정서 및 사회성 발달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남. 교육 중심의 역할보다 돌봄과 문화 공간, 정서 및 사회성 발달 지원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반면 ‘기관이 운영 중인 교육활동 비중’에 대하여는 ‘학습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정서지원’ 15.8%, ‘창의적 체험활동’, ‘문화예술활동’ 순으로 나타남. 그리고 ‘소속 기관 이용 아동·청소년의 교육상황 정도’를 살펴본 결과, 관계자들은 ‘학습동기가 약함’ 영역에서 교육상황이 가장 좋지 않다고 인지하고 있음. ‘학습동기가 약함’, ‘기초학습부진 등 학습 수준이 낮음’, ‘교육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력자(가족 등)가 없음’이 평균 3.01(1.05) 이상의 순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의 교육 영역별 중요도’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관계자들이 ‘보통’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 관계자들은 ‘문화예술활동’, 뒤이어 ‘창의적 체험활동’, ‘정서지원’, ‘학습지도’ 순으로 중요도를 낮게 인식함. 또 소속기관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시급성’ 정도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보다 낮게 응답한 가운데, ‘정서지원’ 영역을 가장 시급한 영역으로, 뒤이어 ‘진로교육’, ‘학습지도’ 순으로 교육의 시급성을 나타냄

- ‘소속 기관의 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이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정도를 ‘보통’수준보다 낮은 ‘그렇지 않다’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냄. 관계자들은 ‘냉·난방시설이 좋음’ 영역에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지만, ‘보통’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낮은 만족 수준임. 뒤이어 ‘아동청소년의 학습지도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함’, ‘책상 의자 등 교육받을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있음’ 순으로 나타남
 - ‘소속 기관의 아동·청소년대상 교육 방법에 대한 적합도’에서는 관계자들이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 관계자들은 ‘실습, 견학 등 참여를 통한 교육’ 영역, ‘강사의 강의를 통한 교육’, ‘소규모 동아리 모임을 통한 교육’ 순으로 나타남. 특이 사항은 ‘인터넷, 책 등을 통한 혼자 하는 학습’영역이 가장 낮은 교육의 적합도를 나타냄. 평균 2점이 되지 않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응답하였고, 응답 중 ‘학습공간이 부족하여 다양한 교육 운영이 어려움’ 영역에서 가장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애로사항에 대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
 - ‘코로나 19로 인한 학력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요구도’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요구도를 나타냄. ‘온라인 학습 콘텐츠 무료(저비용)이용 시스템 확대’ 영역을 제외한 4개 영역은 평균치와 거의 같은 수준을 나타냄. 관계자들은 ‘많은 학습 조력자(학습 도우미 등) 양성 및 지원 확대’, ‘무료(저비용) 학습 코칭 및 컨설팅 지원’ 등 2개의 영역에서 가장 높은 요구 수준을 나타냄. 하지만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요구 수준을 보임.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요 사항’에 대해서도 ‘보통’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을 나타냄. 이런 가운데 ‘공공 성격의 아동·청소년 교육 관련 전문기관 역할 강화가 필요’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남. 뒤이어 ‘행정동 단위 지역에 있는 다양한 공간을 학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협업체제 구축필요’, ‘교육 흐름에 맞는 필요한 교육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제도’와 ‘노트북, 드론 등 고비용 교구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지원시스템 필요’ 순으로 응답하였고, ‘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관련 연수 필요’가 가장 낮게 나타남
- 한편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초점집단면접에서 나타난 아동·청소년 당사자 의견은 공부를 진로, 즉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인식하며, 때로는 의지

를 갖고 공부할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입시 경쟁 속에서 압박감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음. 또한 획일화된 교육과정, 교사 편견, 따돌림 경험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생활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며 졸업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탈출을 기도하였음. 그리고 교육지원 센터를 쉼터이자 충전소이고, 공작소, 사랑방 등으로 인식하고 있음. 더불어 교육지원 프로그램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체험형 진로 프로그램,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취미활동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검정고시 이외에 심화된 학습 프로그램을 요구함. 이와 함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에게 교육지원센터 적응을 위한 오리엔테이션과 부모들의 이해가 필요함을 제기함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기관의 실무자들이 초점집단면접에서 제시한 의견은 공부를 삶 그 자체, 곧 기쁨과 행동을 나누는 시간이자 아동·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여정으로 바라보며, 교육의 기본 성격을 삶의 기본 소양으로서 자존감을 높이고 인성을 함양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학업 보충 및 학업 복귀를 돕는 제2의 학교이자 지속적인 돌봄과 보살핌을 제공하는 열린 공간으로서 바라봄. 그래서 자기개발, 진로체험, 진로탐색 등 진로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자립 기반을 확충하고, 요구의 반영으로 참여와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을 함. 또한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유연성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1:1 개별지도 프로그램의 강화와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생활 적응 프로그램, 그리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동시에 교육지원기관 실무자들은 교육과 복지 사이에서 자신들의 역할 행동에 대해서 개념적 혼란을 겪고 있으며, 수혜 대상의 연령 범위와 요구의 다양성,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교사 수급의 어려움, 한시적이고 체계성 없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체계, 왜곡된 학부모 인식 등을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주된 걸림돌로 인식함. 또한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의 기초학력 부진이 검정고시와 같은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주된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중학교 졸업 이후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함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정책추진 기관의 담당 실무자들은 공부나 교육의 성격에 대해 아동·청소년들이 삶의 잣대를 세울 수 있게 인문학적 소양 함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주로 기초학습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전 방위적인 돌

봄과 예산 및 장학금 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 또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체계적 지원과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학생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 대상의 범위에 대한 혼란, 쏟아지는 민원으로 인한 역량 한계, 돌봄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연대의 어려움,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과 경직성 등을 교육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주된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 자립 시스템과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단기간 지원보다는 꾸준한 돌봄과 성장지원 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필요함

- 한편 교육지원 정책추진 기관 담당 실무자들이 제기하는 바와 같이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의 기초학습기능 부진이 교과학습 및 진로 개발에 주된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그들이 경제적·구조적으로 취약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실직과 이직을 반복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몰려 있는 특성화고의 교육 지원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색다른 교육 환경에 대한 점검과 대책도 함께 수립되어야 함
- 제주지역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은 중앙부처별 다양한 사업 시행에 따라 돌봄과 교육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음. 학교와 지역사회기관에서 주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학업유예 및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학습동기가 부족하여 학업 성취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교육 활동에의 참여 기회는 매우 제한적임. 그리고 차상위층을 포함한 중위층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에게도 역시 참여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그나마 도청에서 추진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면서 교육청 및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자유롭게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
- 그러므로 그 동안 제주에서 추진되어 온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함. 특히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학습력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주도적 성장을 통해 자아탄력성 회복을 지원하는 노력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지원 기관간의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아동·청소년의 돌봄과 교육이 통합 지원되는 촘촘한 그물망으로 짜여진 제주지역 교육안전망 구축이 요구됨
- 향후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은 단순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만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성격의 사업이라는 인식을 넘어서야 함. 제주의 아동·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살아갈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춰야할 가치관과 태도, 그리고 삶의 방식과 역량 갖추기 등에 대한 방향성 정립과 실천 활동을 전개되어야 함. 특히 이러한 내용을 담아내기 위한 교육지원체제의 혁신과 교육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함

2. 정책 제언

- 아동·청소년기는 신체적·생리적·심리적·사회적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시기임. 인간은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성장과 발달이 진행된 결과로 존재하는데, 아동·청소년기는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성적 성숙과 여러 형태의 생리적 발달 양상이 촉진되는 시기이며, 무엇보다 인지발달과정을 통해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미래에 대한 생각과 사고체계가 형성됨. 그러므로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겪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발생하는 경험의 차이와 학습 능력의 격차는 전 생애에 걸쳐 극복이 어려운 난제로 자리 잡게 됨.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출발점이 다름으로 인해 인생 전반에 걸친 삶의 질 격차를 낳게 되며, 사회적으로는 빈곤의 악순환이자 대물림 현상으로 이어짐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은 취약계층 부모를 둔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 내·외 어디에 속해 있던지 학업성취도가 낮거나 정규교육활동에의 참여 기회가 제한된 아동·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전 생애에 걸친 삶을 조망하는 관점을 적용하여 기초학습역량을 강화하고, 심리적 안정을 통한 자아 정체감 형성, 자기개발과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통한 자립 준비, 사회 변화와 지역사회 이해와 참여 활동 등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본 장에서는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실태, 국내 정책 및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아동·청소년 및 지역사회 교육지원기관 관계자 대상의 구조화된 설문지 조사 및 FGI(Focus Group, Interview, 초점집단면접) 조사 결과, 전문가 자문내용 그리고 연구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 활성화 및 정책 대응과제들을 제시하였음

가.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의 정책 방향

- 제주특별자치도가 향후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의 효과성 증진 및 활성화

정책 방향은 크게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역량 증진,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정체성과 자존감 형성을 위한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통합적 성장 지원을 위한 혁신적 기반 조성,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제시함

1)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역량 증진

- 제주지역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은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에서 돌봄과 교육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기 실시 중에 있음. 그러나 주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중심의 복지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학습동기가 부족하여 학습 성취도가 낮은 청소년을 비롯하여 중위층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에게는 이마저도 참여를 희망해도 어려운 여건임. 이에 사회·경제적 배경에 상관없이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희망하면 기초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기초학습능력, 진로탐색능력, 인문학적 소양, 심신단련과 심미적 감성 등의 핵심역량을 증진할 수 있어야 함. 이를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인생의 출발점을 재설정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함
- 그런 의미에서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단순한 복지적·교육적 서비스 차원이 아닌 제주사회의 미래 주역이 될 차세대들을 위한 교육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임

2)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정체성과 자존감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 아동·청소년 시기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변화를 겪는 시기로 교우관계 및 학교 생활에서의 부적응, 그리고 가족 간의 불화 및 갈등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양산함. 즉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와 범죄 발생의 원인으로 전환되기도 함
- 그러므로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상처 회복과 치유, 그리고 관계 개선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제공이 요구됨. 이는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증진을 바탕으로 자아 정체성과 자존감 형성에 기여할 것임

3)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통합적 성장 지원을 위한 혁신적 기반 조성

- 제주지역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은 학교와 지역사회기관 등에서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주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대상에 집중되어 있고, 돌봄과 보살핌에 중점을 두어 운영되고 있음. 제주지역은 2016년 이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면서 교육청 및 학교,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자기주도학습컨설팅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와 지역사회기관간의 연계·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에 비해 실질적인 접근성 확보는 어려운 실정임.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정책의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지원 전달체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기관으로 이원화되어 구심적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함. 물론 이는 중앙 정부의 정책 사업 전달체계에 따라 교육과 돌봄 기능의 이원화가 발생한데 기인함.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육취약계층 교육지원의 혁신적 기반(조례와 제도, 교육참여방법, 교육내용, 교육수준, 교육방법 등)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4)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제주지역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의해 학교와 지역사회기관, 즉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음. 물론 학교는 교육청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지역사회기관의 교육지원 사업들은 제주특별자치도 혹은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직영이거나 운영 지원·위탁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그래서 학교와 지역사회기관간의 협력이 상시적이지 않거나 단절되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음. 그러므로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 학교와 지역사회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동시에 지역사회기관(단체) 들의 교육적 역량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지원체계의 구축과 상호간의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한 시점임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의 혁신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정기구와 공공기관, 아동·청소년의 돌봄과 교육지원 기관(단체) 들의 연계·협력을 통한 교육안전망 구축이 요구됨

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의 정책 과제

-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 지원의 질적 향상을

통해 미래 제주사회의 주역으로서 삶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정책의 새로운 방향 설정에 따른 향후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제주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 효과성 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들은 앞서 언급한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관련 조례·제도 개선,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기초교육 강화,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통합적 성장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지원 민관협력을 통한 교육안전망 구축으로 나누어 제안하였음

1)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관련 조례·제도 개선

-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교육 성취 수준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지위, 거주지역과 소속 등에 의해 구분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교육지원을 받을 기회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제주지역은 타 시도에 비하여 섬 지역이라는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타 지역 간의 이동과 교류의 제한으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이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를 고려하여 기존의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비롯하여 새로운 정책 과제 반영과 사업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법률적 검토가 요구됨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정책이 대부분 중앙부처별 법률 및 사업에 따라 반영되어 학교와 지역사회기관에서 추진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의 조례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함

□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 향상과 맞벌이 부모 지원 접근 필요

- 미국의 21c 지역사회학습센터는 학교선택권 강화, 교육의 수월성, 교육평등 이념추구 일환으로 방과후학교 차원에서 전개되는 연방정부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말하는데, 아동·청소년들에게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 이러한 기능은 NCLB법 체제 하에서 대폭적인 재정지원이 확대되었음.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교육법(No Child Left Behind Act: PL 107-110, NCLB법)은 2002년 1월 8일에 당시 부시대통령의 서명으로 미국의 교육정책이 1965년에 제정된 초·중등교육법(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을 대체한 것으로, 이는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학습성취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접근을 의미함.

Education Act)을 대신하는 새로운 법을 맞이한 것임(권두승, 2005). 이 NCLB법은 미국 공교육의 질적 하락과 그로 인한 많은 학생들의 낮은 기대감, 문해능력 부족, 자신에 대한 의구심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변화하는 세계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뒤쳐질 것에 대한 대응으로써 미국의 교육정책이 혁신적으로 변화한 것임

- 미국의 21stCCLC는 기존의 학교를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학교중심 교육체제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전략의 하나로 대두되었는데(Parson, 1999; 권두승, 2005에서 재인용), 지역사회의 기관과 학교가 연계하여 아동과 가족에게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부모와 노인이 지역사회의 자원으로서 기능하는 프로그램이 특성임.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과 주민 참여 조직의 운영과 리더십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있음. 특히 NCLB법에 근거하여 21stCCLC 프로그램이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 향상과 안전을 도모하고 맞벌이 부부를 돕는데 초점을 두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청소년기본법,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2015년 11월 18일에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음
- 이 조례의 목적을 제1조(목적)에 “도민에게 다양한 교육에 관한 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 교육지원체계 구축 및 도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체계 구축 및 도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근거로서의 조례와 관련 사업의 운영 주체 기관으로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FGI 결과를 보면, 2016년부터 기 설치되어 있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기능 수행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얻고 있음. 이는 조례에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기능으로 부여된, 1.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관련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2. 진로, 적성 및 인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학습지도전문가 양성 배치, 4.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5.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복합문화 프로그램 운영, 7. 지역 내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교육지

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 운영, 8.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한 역할 수행의 결과로 볼 수 있음. 이를 통해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제주지역에서는 나름의 성과를 낳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상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음. 제6조(이용대상)에서 관내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학부모, 교사로 하고, 수요자 중심의 자기주도학습이 정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따라 대상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고 열어놓고 있음. 또한 제10조(교육네트워크 구성)를 통해 도지사는 ①항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교육기관, 지역교육관련단체 등과 협력으로 다양한 교육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②항에서 도지사는 필요시 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현안 논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③항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교육 네트워크 구성·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므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행정체계의 구분으로 상시적인 연계·협력의 어려움이 제기되는 학교와 지역사회기관 간의 연계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조례에서 학습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기능으로 부여받은 만큼, 제주지역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로서의 역할 수행은 매우 적절할 것임. 이에 조례에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의 정의, 지원계획의 수립, 관련 네트워크 구성 및 협력 방안 등을 반영하기 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한 조례개정 노력이 요구됨
-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지역사회 기관 이용 대상 확대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 더불어 지역사회기관 이용 대상에 대한 제도적 보완 노력이 요구됨.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법률과 조례상으로는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저소득층 아동 등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은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저소득층 대상 아동·청소년에 국한되어 적용되고 있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도 역시 같은 상황임. 이를 통해 미국의 21stCCLC 프로그램이 맞벌이 부부를 돕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우리사회는 대부분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이 학원을 비롯한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실태를 감안하여 맞벌이 부부 대상의 돌봄과 교육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됨

2)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 제주지역에서 추진되는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사업들이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단체)들에 의해서 개설 및 운영되고 있지만 운영 부처만 다를 뿐 돌봄, 급식 제공, (체험) 활동 프로그램 운영, 학습 및 교육 지원 등 유사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차별성이 떨어짐
- 특히 교육지원 프로그램들은 대다수의 운영 기관들이 각각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요구와 교육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이에 향후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 정책방향과 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 제들을 제시하고자 함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 방향성 정립 필요

-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 활성화와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 방향성 재정립이 우선되어야 함.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을 맡고 있는 지역사회 기관에 대한 기본 가이드가 없는 상태에서의 교육지원 정책과 사업 그리고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산발적인 운영은 기초학습능력의 향상 정도와 교육격차 해소 노력의 결과를 측정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운영의 지속은 약순환될 가능성이 높음
- 제주특별자치도가 미래사회와 4차산업 혁명 시대의 대응책으로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꿈바당학습문화카드지원사업과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담당하는 평생교육과와 지역사회기관을 담당하는 여성가족청소년과 간의 협의과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이를 통해 제주지역 내 여러 기관(단체)에서 다양한 아동·청소년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설 및 운영되어 온 현황을 분석하여 방향성을 재정립함으로써 그 동안 투입해 온 교육지원 사업의 범위와 절차, 그 방법의 조정과 적용으로 관련 정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제주지역 내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기관(단체)에서 개설되는 교육지원 관련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각 기관(단체)마다 제 각각 학습지를 중심으로 선택적

인 운영이 되고 있거나,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어 수요자 특성들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음.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들이 기초학습능력 부족으로 학업성취가 낮아 기초교육 강화 등 필수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방치되기도 함

- 그러므로 자기주도학습 컨설팅을 비롯하여 기초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 개발·보급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역할 강화뿐만 아니라 적용범위를 전 지역 사회 기관으로 확대하고, 이들 지역사회기관에 필수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기초교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읽기, 쓰기, 수학 등 기초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충학습 프로그램 지원
 - 진로의 날, 진로 주간, 진로박람회 등 진로 탐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원
 - 독서의 날, 독서 주간, 작가와의 대화 등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창의적 인성 개발 프로그램 지원
 - 체육의 날, 음악의 밤, 영화박람회 등 심신 단련과 심미적 감성을 함양하기 위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 지원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상처 회복과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 아동·청소년기의 정체성과 자존감 형성은 평생에 걸친 정서적 안정성 확보와 관련이 있음. 더구나 심리적 결핍은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경험으로 축적되어 정서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음. 지역사회기관에서 정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매우 제한적 제공되고 있음
- 이에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개설과 운영이 원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심층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함.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스트레스 해소, 불안 감소 등 심리적 면역력을 증진하기 위한 정서조절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학대, 따돌림, 낙인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자존감 증진, 갈등 해결, 게으름 탈출 등 회복 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한 자기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편견 극복, 차별 해소 등 사회심리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다문화감수성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부모 인식 개선과 부모-자녀 관계 회복을 위한 부모 코칭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통합적 성장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현상은 우리사회에 많은 혼란과 변화를 가져왔음. 특히 아동·청소년들의 학교 등교가 어려워지면서 원격수업 중심의 가정 학습이 일상화되어 부모의 책임과 부담이 가중되었고, 이로 인한 학습결손과 교육격차 해소가 사회문제로 등장하였음. 이에 대한 사회적 해소 노력으로 교육부는 2020년 10월에 학습·정서·진로 등 다방면에 걸친 학습상담을 실시하여 유형별 학생 맞춤형 학습지도를 지원함으로써 학습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제고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상황의 지속으로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음. 이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일시적인 처방을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함. 일상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실제 몸에 뻗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가이드가 있고, 이를 통해 반복적인 훈련과정을 거칠 때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임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 중 긴급 돌봄서비스 대상을 제외한 대부분이 학습결손으로 인한 교육격차 발생에 더욱 노출되어 있었음에 주목해야 함. 이런 상황 하에서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 활성화를 위해, 사회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곳곳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여 영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함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참여 확대를 위한 종합 정보 제공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진행됨에 따라 이를 종합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함. 이는 교육지원 정책간의 상호 조정과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음

- 또한 실제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이 학교와 지역사회기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학교와 지역사회기관에서 각각 제공되는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상호간의 정보제공 및 정보의 집적화를 위한 원활한 소통채널의 확보가 필요함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지원의 확대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겪는 삶의 경험 중 아동·청소년기는 독립된 인간으로서 스스로의 의지에 따른 선택과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핵심능력을 갖춘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때임. 그러므로 교육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사회문제의 예방적 노력이라는 점에서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성장 지원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과제임
- 그러므로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처한 개개인의 여건과 역량 수준 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해짐. 현재는 학교와 지역사회기관이 제공하는 범위 중심의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어 기관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프로그램의 영역과 내용, 그리고 질적 수준의 차이가 발생함. 이 같은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구체화가 요구됨
- 미국의 21stCCLC에서는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12개 유형으로 제시하였음. ①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포함하는 교정교육 활동과 학습능력 신장 프로그램, ② 수학과 과학교육 활동, ③ 미술과 음악교육 활동, ④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⑤ 개인교수 서비스(노인 자원봉사자에 의한 서비스를 포함)와 멘토링 프로그램, ⑥ 영어능력이 제한적인 학생들을 위하여 영어와 학습능력을 강조하는 방과후 활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⑦ 여가활동, ⑧ 텔레커뮤니케이션과 테크놀로지 교육 프로그램, ⑨ 도서관 개방시간 연장, ⑩ 부모참여와 가족의 문해능력 촉진 프로그램, ⑪ 무단결석, 정학, 퇴학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⑫ 약물과 폭력 예방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차터교육¹⁾ 프로그램임

□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윤리 교육 강화

- 지식정보화 시대에 정보통신 기기의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

1) 미국의 교육시스템으로, 대안학교의 성격을 가진 공립학교임.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의 협조 하에 저소득층 지원과 다인종 교육 등 전인교육과 창의적 교육방식을 추구하며, 행정상으로는 사립학교의 특성을 띠고 있어 사립과 공립 교육의 장단점을 접합한 교육형태로 많은 실험적 교육과정이 운영됨.

업의 급증으로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임. 더구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보호자의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적극적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 노력이 요구됨.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로 앱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아동·청소년들이 게임과 유튜브를 비롯한 무차별적인 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여건임

- 그러므로 세상과의 주요 의사소통 창구로 디지털(특히 인터넷, 스마트폰 등)에 의존하는 경향을 고려하여 스마트폰과 인터넷, 그리고 SNS 등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윤리를 갖출 수 있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콘텐츠 및 학습 방법 활용 교육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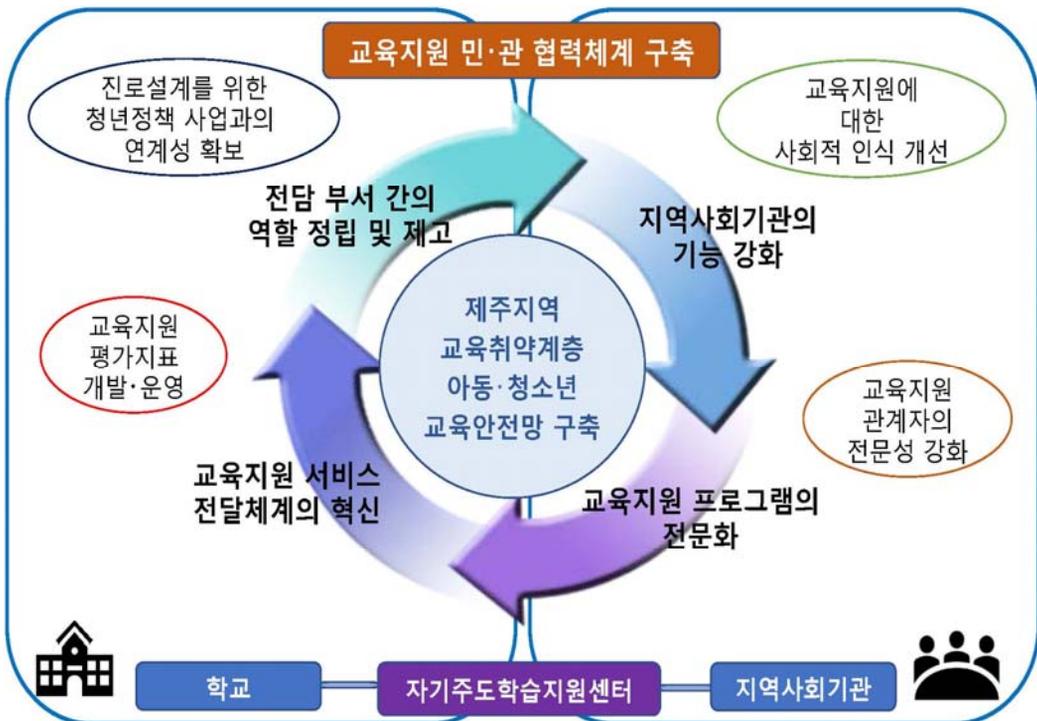
-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의 강화뿐만 아니라 디지털 정보지식 사회에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 강좌가 널리 활용되는 추세임. 이를 대비해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콘텐츠 특성을 이해하고, 학습 지원 사이트 활용 방법을 몸에 익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함
- 향후 학습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등 전문콘텐츠를 제공하는 공공 사이트의 활용과 온라인·오프라인 학습정보의 활용과 연계 학습 활동 등에 대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

□ 지역사회기관의 교육 시설 확충 및 학습 환경 조성

-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기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대부분 민간이 임대 건물을 사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교육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거나 장비(영상, 빔 프로젝트, 방송, 컴퓨터 등)들이 미비한 경우로 인해 원활한 교육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함
- 또한 독서교육을 위한 도서 구비 등 학습 환경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대다수임.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방과후 시간에 스스로의 의지로 책을 골라 독서시간을 갖는 것이야말로 자율적 선택에 의한 자발적 학습에의 참여라고 볼 수 있음. 이러한 학습 환경의 조성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보다 높은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이를 위한 공공적 지원에 대한 검토와 환경 조성 방안 모색이 요구됨

4) 교육지원 민·관협력을 통한 교육안전망 구축

-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기관(단체)은 크게 학교와 지역사회기관 등으로 대별되는데, 각 기관별 연계에 어려움이 수반되는 실정임. 따라서 각 기관별 교육 격차가 발생하고, 기관들이 제공하는 교육지원의 범위에 따라 아동·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연계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기관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특히 학교와 지역사회기관 간 연계와 협력체계가 우선 마련되어야 함. 또한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의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전담기구와 전달체계가 필요하며,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과 관계자 간 교류와 통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포함하여 온·오프라인 및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그림 VI-1]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안전망 구축 모형

-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제주지역사회가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한 교육취약계층 아동·청

소년을 위한 교육환경은 새로운 기반 마련이 필요함. 기존 제주지역에서 추진되는 교육 지원 정책과 사업, 그리고 각종 교육지원 프로그램들은 보다 객관적 평가를 통해 새로운 교육환경 체계 내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음. 여기에서 전담 부서간의 역할 정립 및 제고, 지역사회기관의 기능 강화,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전문화와 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진로설계를 위한 청년 정책 사업과의 연계성 확보, 교육지원 관계자의 전문성 강화,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지원 평가지표 개발 및 운영, 교육지원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함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전담 부서 간 역할 정립 및 제고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이와 관련한 정책사업들을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도 아동·청소년복지와 교육지원 담당 부서가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 민간기관(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 이에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사회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간의 역할을 확인하고 지역사회기관과의 통합적 성장지원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정책의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실질적 교육지원 기관으로서 지역사회기관의 기능 강화

- 현재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를 비롯한 지역사회기관이 돌봄 기능과 더불어 교육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특히 제주지역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학교와 더불어 생활권 가까이에서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기관들이 실질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그러나 지역사회기관은 대부분 아동·청소년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므로 돌봄 중심의 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보다 많은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발굴과 교육지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 지역사회에 자리하고 있는 지역사회기관의 교육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 또한 지역사회에 위치해 있는 청소년 문화 공간 및 단체, 그리고 마을 공동체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교육 지원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발굴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 제주지역의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과 사업들은 대부분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다문화·탈북이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교육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학업성취도가 낮은 아동·청소년 등 다양한 교육취약계층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를 통해 지원사업의 범위와 지원기관의 역할 분담 등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채 각 기관의 입장에 맞춰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중 및 중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정해 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함. 즉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 사업조정 등을 할 수 있는 중간 매개체 기관, 즉 허브기관으로서의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역할 확대가 필요함
- 또한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상담 창구를 개설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업의 효율성 향상과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앞으로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들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교육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교육취약계층 청소년의 진로설계를 위한 청년 정책 및 사업과의 연계성 확보

- 교육취약계층 청소년의 기본 생계와 자립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확충이 요구되는데, 근래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 청년 정책과 사업들 간의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 있음
- 또한 교육취약계층 청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 대부분이 아르바이트 일감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 따라 이와 관련한 법규 및 지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안전한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청소년기 경제활동의 경험이 향후 진로설계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시 청년 정책 및 사업과의 연계성 확보가 요구됨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지원 관계자의 전문성 강화

- 현재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은 관련 사업을 맡고 있는 지역사회기관의 전문역량에 달려 있음. 이는 아동·청소년의 선택에 의한 참여 중심이 아닌 기관의 서비스 공급을 중심으로 참여하기에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음. 다시 말해서 공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기관 이용 아동·청소년에게 제공하는 방식이 대부분임
- 그러므로 지역사회기관에 몸담고 있는 관계자(기관 대표, 실무자, 강사)의 교육적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며, 그 결과가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특히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활동을 직접 담당하는 강사에 대한 검증과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마련도 필요함. 현재 지역사회기관 중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기초학습, 외국어지도, 독서지도, 예체능지도 등을 담당하는 파견 아동복지교사 대상으로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교육방법론 등의 전문연수도 제공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노력은 비단 지역사회기관의 관계자만이 아니라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자원활동가(멘토 등)에게도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의 전문화를 위한 전문 강사 발굴 및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를 위한 관련 기관과 단체와의 연계망 확충이 요구됨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전 생애에 걸친 삶을 조망하는 관점의 교육지원 평가지표 개발 및 운용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의 효과와 만족도 그리고 향후 개선사항 등을 지역사회기관에서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삶 전체를 조망하는 관점의 교육지원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이에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기관들은 교육 실시에 관한 사업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환류(feedback) 체계의 마련과 운용이 필요함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지역사회기관들은 대부분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대상이 주로 이용하는 특성을 지님.

따라서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과 돌봄사업의 통합 운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음. 이로 인해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을 통한 성장에 대한 가족을 비롯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게 나타남. 이와 같이 제한적인 교육지원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이 요구됨

- 2020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 중심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임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민관협력 체계 구축

- 제주지역에서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정책과 사업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과 지역사회기관(단체)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특히 지역사회기관(단체)들은 자신들이 맡은 돌봄사업에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에는 관심이 부족해짐. 아울러 행정(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시, 행정시)의 담당부서는 정책사업 혹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주는 행정지원기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사회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정보의 습득과 활용 능력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들어섬에 따라 기초학습능력 갖추기가 더욱 중요해짐. 특히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의 효과성 증진이 요구됨. 이와 같이 교육지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함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기관(단체들)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함.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기관의 다양한 주체들이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의 방향과 목표, 구체적 실행방안 등을 논의·조정하고, 총괄적으로 관리·평가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할 수 있음
- 또 협의체에는 실제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의 운영 책임자 및 담당 실무자 단위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VI-1>과 같음

〈표 VI-1〉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의 정책 과제(안)

구 분	주요 과제	비고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관련 조례·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 향상과 맞벌이 부모 지원 접근 ·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등 지역사회 기관 이용 대상 확대위한 제도적 개선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 방향성 정립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상처 회복과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통합적 성장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 참여 확대를 위한 종합 정보 제공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지원의 확대 ·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윤리 교육 강화 · 온라인 콘텐츠 및 학습 방법 활용 교육 강화 · 지역사회기관의 교육 시설 확충 및 학습 환경 조성 	
교육지원 민·관협력을 통한 교육안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전담 부서간 역할 정립 및 제고 · 실질적 교육지원 기관으로서 지역사회기관의 기능 강화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발굴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 교육취약계층 청소년의 진로설계를 위한 청년 정책 및 사업과의 연계성 확보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지원 관계자의 전문성 강화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전 생애에 걸친 삶을 조망하는 관점의 교육지원 평가지표 개발 및 운용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민관협력 체계 구축 	

참고문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18). 경기도 청소년거점쉼터 설치 및 증장기 운영방향. 경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구자인·유정규·곽동원·최태영(2011). 마을만들기, 진안군 10년의 경험과 시스템: 더디가도 제대로 가는 길. 안양: 국토연구원.
- 국회입법조사처(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권두승(2005). 미국의 21C 지역사회학습센터(21stCCLC)의 성립배경 및 운영성과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11(4), 111-131.
- 김경애 외(2014).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경애·김정원(2007). 교육지원체제로서 지역네트워크 형성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평생교육연구, 13(3), 117-142.
- 김난덕(2015). 한국에서의 부의 상속: 1970-2013. 낙성대경제연구서.
- 김찬호(2002). 지역이 배움터가 될 때. 이남주 외. 마을 전체가 배움터이다. 20-28. 서울: 한국 YMCA 전국연맹.
- 나영선(2003). 국제기구(OECD, UNESCO 등)와의 공동연구(2003): 저학력·저숙련 계층의 성인학습 현황과 과제.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류방란, 김성식(2017). 저소득층 학생의 학교 적응, 수업 태도, 학업 성취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영향 분석. 한국교육, 44(3), 95-122.
- 보건복지부(2019). 2019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성기선 외(2009). 농산어촌 교육 실태 분석 및 교육복지 방안 연구: 고등학교.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양병찬(2014). 자자체 마을만들기사업에서 '마을학교'의 평생교육적 의미 :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평생교육2(1), 1-25.
- 양애경·조호제(2010). 자기주도적 학습과 학업성취도간의 관계. 한국교육논단, 8(3), 61-82.
- 여성가족부(2019a). 2019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9b). 2020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침.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20). 2020년청소년사업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 이광호(2013).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20(8), 365-384.

이지혜·김남선·변종임·양병찬(2004). 교육취약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이혜영 외(2011). 교육복지 통합적 지원체제 구축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2019).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매뉴얼 개발. 서울: 중앙교육복지 연구지원센터.

최상덕(2014).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Ⅱ).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2012). 도시 저소득층 학생의 학교 밖 교육 실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0). 2020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실무자 업무매뉴얼.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만길 외(2008). 농산어촌 교육복지 실태 분석 연구: 초중학교.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한만길 외(2009). 탈북학생의 교육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허미연 외(2012). 도시 저소득층 학생의 학교밖 교육 실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꿈드림홈페이지 <http://www.kdream.or.kr>(2020.11.22. 검색)

문9. 아래 교육들이 나에게 얼마나 빨리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내용	매우 시급함	시급함	보통임	시급하지 않음	전혀 시급하지 않음
1) 학습지도(기초학습 및 교과학습, 숙제지도 등)	①	②	③	④	⑤
2) 문화예술활동(견학, 캠프, 공연, 체험 활동 등)	①	②	③	④	⑤
3) 정서지원(개인 및 집단 상담, 동반자 프로그램 등)	①	②	③	④	⑤
4) 진로교육(진로탐색, 진로체험 등)	①	②	③	④	⑤
5) 창의적 체험활동(미술, 독서, 음악, 만들기 등)	①	②	③	④	⑤
6) 이 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을 적어 주세요.					

문10. 학교 외 지역사회기관에서 받은 아래 교육들이 나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내용	매우 도움이 됨	도움이 됨	보통임	도움이 안 됨	전혀 도움이 안 됨
1) 학습지도(기초학습 및 교과학습, 숙제지도 등)	①	②	③	④	⑤
2) 문화예술활동(견학, 캠프, 공연, 체험 활동 등)	①	②	③	④	⑤
3) 정서지원(개인 및 집단 상담, 동반자 프로그램 등)	①	②	③	④	⑤
4) 진로교육(진로탐색, 진로체험 등)	①	②	③	④	⑤
5) 창의적 체험활동(미술, 독서, 음악, 만들기 등)	①	②	③	④	⑤
6) 이 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을 적어 주세요.					

문11. 내가 다니고 있는 지역사회 기관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번호에 √를 표시해 주세요

내용	매우 그러함	대체로 그러함	보통임	그렇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음
1) 아동·청소년의 학습지도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함	①	②	③	④	⑤
2) 기관 내 언제든지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있음	①	②	③	④	⑤
3) 책상, 의자 등 교육받을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있음	①	②	③	④	⑤
4) 컴퓨터 등 멀티미디어 교육 장치가 충분함	①	②	③	④	⑤
5) 냉난방 시설이 좋음	①	②	③	④	⑤
6) 학습 도움 책이나 읽을 만한 책이 많음	①	②	③	④	⑤
7) 이 외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적어 주세요.					

문12.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번호에 √를 표시해 주세요

내용	매우 그러함	대체로 그러함	보통임	그렇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음
1) 가족(부모님)이 나의 학습시간 등을 관리 해 줌	①	②	③	④	⑤
2) 가족(부모님)이 나의 숙제지도 및 학습지도를 해 줌	①	②	③	④	⑤
3) 가족(부모님)이 나와 문화예술활동(영화, 여행, 운동 등)을 함께 함	①	②	③	④	⑤
4) 온라인학습을 잘 받을 수 있게 컴퓨터, 인터넷 설치 등이 잘 되어 있음	①	②	③	④	⑤

문13. 아래에 있는 다양한 교육방법들이 나에게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교육 방법	매우 적합함	적합함	보통임	조금 부적합	매우 부적합
1) 강사의 강의를 통한 교육	①	②	③	④	⑤
2) 실습, 견학 등 참여를 통한 교육	①	②	③	④	⑤
3) 토의와 질의 응답을 통한 교육	①	②	③	④	⑤
4) 인터넷(온라인)을 통한 교육	①	②	③	④	⑤
5) 텔레비전,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	①	②	③	④	⑤
6) 소규모 동아리 모임을 통한 교육	①	②	③	④	⑤
7) 인터넷, 책 등을 통한 혼자하는 학습	①	②	③	④	⑤

문14. 학교 외에서 필요한 교육을 편리하게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교육 방법	아주 많이 필요함	많이 필요함	보통임	필요하 지 않음	전혀 필요하 지 않음
1) 받고 싶은 교육을 직접 신청(제안)할 수 있는 제도	①	②	③	④	⑤
2) 마을 곳곳에 많은 학습공간 필요	①	②	③	④	⑤
3) 계속 받았던 교육 말고 새로운 교육 필요	①	②	③	④	⑤
4) 좋은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무료교육 많이 개설	①	②	③	④	⑤
5) 집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마련	①	②	③	④	⑤
6) 위 내용 말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 주세요					

문15.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온라인 학습 참여 확대에 따른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용	매우 그러함	대체로 그러함	보통임	그렇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음
1) 온라인 학습 참여 방법이 불편함	①	②	③	④	⑤
2) 컴퓨터, 인터넷통신 등 온라인 학습 환경이 충분하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3) 온라인 학습과정에 집중이 어렵고, 이해가 잘 안됨	①	②	③	④	⑤
7) 이 외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적어 주세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 - PC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응답자이름		응답자연락처	
면접원		면접일시	2020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시 분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부록 1-2】 설문지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 실태 조사 설문지(관계자용)

--	--	--	--	--	--

안녕하십니까? 바쁜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교육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주지역 아동·청소년 교육 위한 정책 수립에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음의 질문을 잘 읽고 해당하는 내용에 응답해 주세요.

문1. 내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유형은?

- ① 지역아동센터
- ②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③ 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수련관
- ④ 대안청소년교육기관(동려청소년학교, 생느행 등)
- ⑤ 꿈드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⑥ 기타 ()

문2. 내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소재지는?

- ① 제주시 동지역
- ② 제주시 읍면지역
- ③ 서귀포시 동지역
- ④ 서귀포시 읍면지역

문3. 내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이용대상자는?

구분	인원수
1) 초등학생	() 명
2) 중학생	() 명
3) 고등학생	() 명
4) 학교밖 청소년	() 명
5) 기타 ()	() 명

문4. 귀 기관의 역할을 우선순위에 따라 1, 2, 3, 4, 5, 6 순번을 기입해 주세요.

- 1) 방과 후 돌봄(부모 대리적 보호자 역할) --- 2) 정서 및 사회성 발달 지원
- 3) 학업 성취 및 학습지도 --- 4) 보호와 상담 역할
- 5) 건강한 문화공간의 역할 --- 6) 기타 ()

문5. 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활동 비중을 순서대로 1, 2, 3, 4, 5, 6 순번을 기입해 주세요.

- 1) 학습지도(기초학습 및 교과학습, 숙제지도 등) --- 2) 문화예술활동(견학, 캠프, 공연, 체험 활동 등)
- 3) 정서지원(개인 및 집단상담, 동반자 프로그램 등) --- 4) 진로교육(진로탐색, 진로체험 등)
- 5) 창의적 체험활동(미술, 독서, 음악, 만들기 등) --- 6) 기타()

문6. 귀 기관 이용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상황은 어떠합니까?

내용	매우 그러함	대체로 그러함	보통임	그렇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음
1) 기초학습부진 등 학습 수준이 낮음	①	②	③	④	⑤
2) 학습동기가 약함	①	②	③	④	⑤
3) 온라인학습을 위한 교육여건 미비(컴퓨터 구비 및 활용법 숙지 부족 등)	①	②	③	④	⑤
4) 교육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력자(가족 등)가 없음	①	②	③	④	⑤
5) 인지·정서적으로 부족함이 있음	①	②	③	④	⑤
6) 이 외에 교육적 상황을 적어 주세요.					

문7. 귀 기관 이용 아동·청소년들에게 아래의 교육 내용들이 어느 정도 중요합니까?

내용	매우 중요함	중요함	보통임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1) 학습지도(기초학습 및 교과학습, 숙제지도 등)	①	②	③	④	⑤
2) 문화예술활동(견학, 캠프, 공연, 체험 활동 등)	①	②	③	④	⑤
3) 정서지원(개인 및 집단 상담, 동반자 프로그램 등)	①	②	③	④	⑤
4) 진로교육(진로탐색, 진로체험 등)	①	②	③	④	⑤
5) 창의적 체험활동(미술, 독서, 음악, 만들기 등)	①	②	③	④	⑤
6) 이 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을 적어 주세요.					

문8. 아래 교육 내용들이 귀 기관 이용 아동·청소년들에게 어느 정도 시급합니까?

내용	매우 시급함	시급함	보통임	시급하지 않음	전혀 시급하지 않음
1) 학습지도(기초학습 및 교과학습, 숙제지도 등)	①	②	③	④	⑤
2) 문화예술활동(견학, 캠프, 공연, 체험 활동 등)	①	②	③	④	⑤
3) 정서지원(개인 및 집단 상담, 동반자 프로그램 등)	①	②	③	④	⑤
4) 진로교육(진로탐색, 진로체험 등)	①	②	③	④	⑤
5) 창의적 체험활동(미술, 독서, 음악, 만들기 등)	①	②	③	④	⑤
6) 이 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을 적어 주세요.					

문9. 우리 기관의 교육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번호에 √를 표시해 주세요

내용	매우 그러함	대체로 그러함	보통임	그렇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음
1) 아동·청소년의 학습지도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함	①	②	③	④	⑤
2) 기관 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되어 있음	①	②	③	④	⑤
3) 책상, 의자 등 교육받을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있음	①	②	③	④	⑤
4) 컴퓨터 등 멀티미디어 교육 장치가 충분함	①	②	③	④	⑤
5) 냉난방 시설이 좋음	①	②	③	④	⑤
6) 학습 도움 책이나 읽을 만한 책이 많음	①	②	③	④	⑤
7) 이 외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적어 주세요.					

문10. 기관 이용 아동·청소년들에게 아래 교육방법이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교육 방법	매우 적합함	약간 적합함	보통임	약간 부적합	매우 부적합
1) 강사의 강의를 통한 교육	①	②	③	④	⑤
2) 실습, 견학 등 참여를 통한 교육	①	②	③	④	⑤
3) 토의와 질의 응답을 통한 교육	①	②	③	④	⑤
4) 인터넷(온라인)을 통한 교육	①	②	③	④	⑤
5) 텔레비전,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	①	②	③	④	⑤
6) 소규모 동아리 모임을 통한 교육	①	②	③	④	⑤
7) 인터넷, 책 등을 통한 혼자하는 학습	①	②	③	④	⑤

문11.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애로사항입니다. 해당번호에 √를 표시해 주세요

내용	매우 그려함	대체로 그려함	보통임	별로 그려지 않음	전혀 그려지 않음
1) 다양한 교육 내용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함	①	②	③	④	⑤
2) 새로운 교육 기획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3) 강사 정보 등이 부족하여 강사 수급이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4) 학습공간이 부족하여 다양한 교육 운영이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5) 예산이 부족함	①	②	③	④	⑤
6) 노트북 등 교육 자재가 부족함	①	②	③	④	⑤
7) 기타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문12.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 방법	아주 많이 필요함	많이 필요함	보통임	많이 필요하지 않음	전혀 필요하지 않음
1)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지원	①	②	③	④	⑤
2) 자기주도학습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기회 제공 확대	①	②	③	④	⑤
3) 온라인학습 콘텐츠 무료(저비용)이용 시스템 확대	①	②	③	④	⑤
4) 많은 학습 조력자(학습도우미 등) 양성 및 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⑤
5) 무료(저비용) 학습코칭 및 컨설팅 지원	①	②	③	④	⑤
* 위 내용 말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 주세요.					

문13.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 방법	아주 많이 필요함	많이 필요함	보통임	많이 필요하지 않음	전혀 필요하지 않음
1) 공공 성격의 아동·청소년 교육관련 전문기관 역할 강화 필요 - 교육기획 및 프로그램 지원, 강사정보공유 등	①	②	③	④	⑤
2) 교육흐름에 맞는 필요한 교육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제도	①	②	③	④	⑤
3) 행정동 단위 지역에 있는 다양한 공간을 학습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는 협업체제 구축 필요	①	②	③	④	⑤
4) 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관련 연수 필요	①	②	③	④	⑤
5) 노트북, 드론 등 고비용 교구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지원 시스템 필요	①	②	③	④	⑤
6) 도내에 한정하지 않고 도외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별 지원 필요	①	②	③	④	⑤
* 그 외에 제안하고 싶은 내용들을 적어 주세요					

제주지역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실태조사

발행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처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전략기획부)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2동) 4층
Tel) 064-726-9850 Fax) 064-726-9848
Home Page : www.jiles.or.kr
제 작 온누리디앤피(064-722-0086)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복제나 복제는 금합니다.

ISBN 979-11-972960-1-7

<비매품>